

Journal of ICT Leaders



INTERVIEW

ICT를 움직이는 12명의 리더들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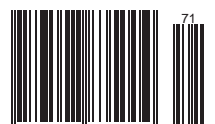
ICT 정책 토론회-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재양성

CIO를 위한 또 다른 시각

대자율과 리더십, 신뢰와 박수!

그 '섬'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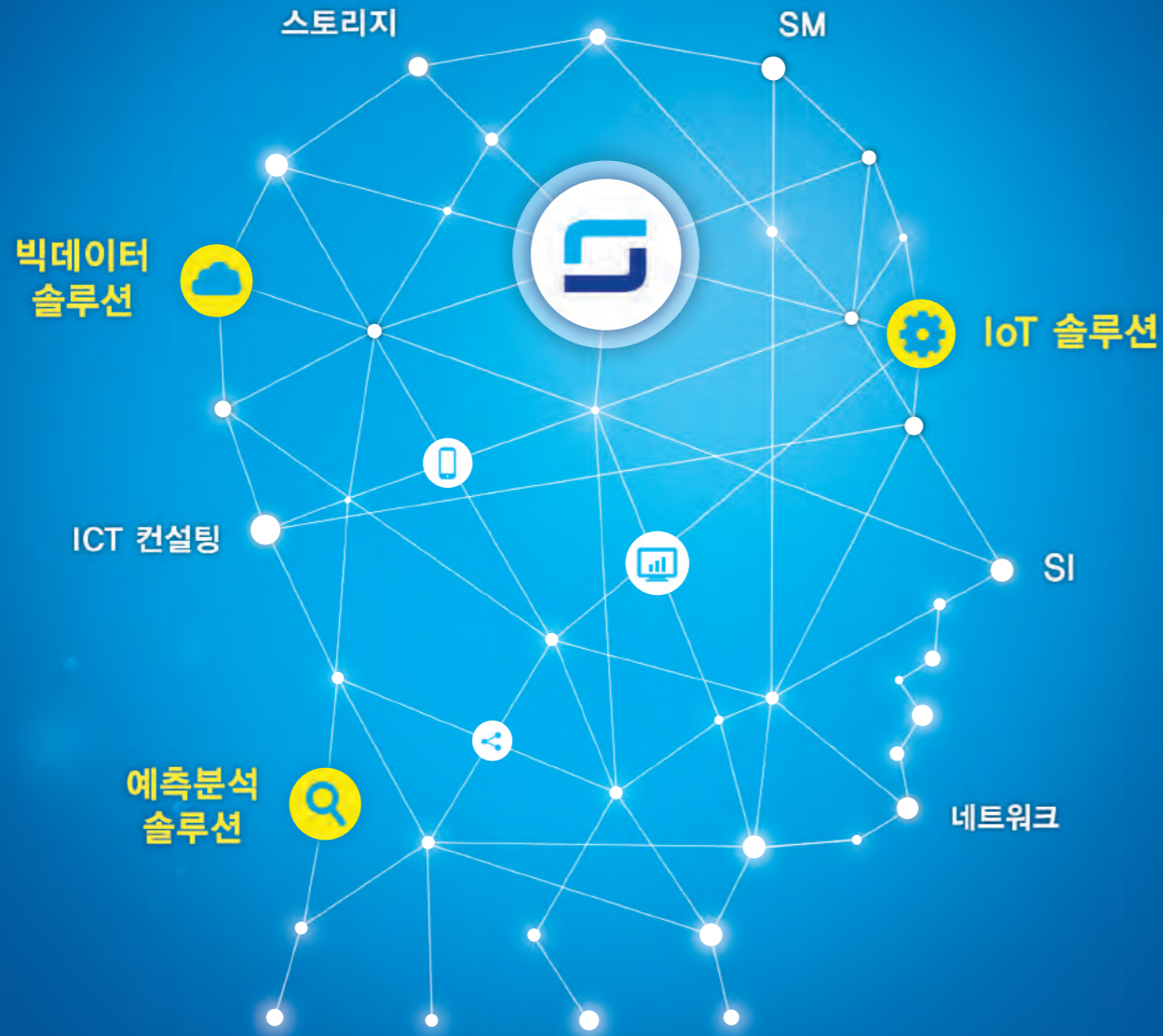
제주도 밖의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 · 가파도



2017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대상
IT(빅데이터 솔루션)부문 대상 수상



1 MATRIX
2012 대한민국 SW대상 대통령상 수상



데이터솔루션은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물론이고 데이터분석 인프라 구축에서
주제선정 및 분석모델 개발, 상시적인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 금융 · 제조 · 유통 · 서비스 · 통신 · 의료 · 국방 · 교육

데이터의 길을 찾다

Big Data

Visualization

Analysis

(주)비아이매트릭스는 BI & Big Data 전문기업으로 경영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B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ontents

Summer 2018, vol. 06

발행인 겸 편집장 · 전구주
 편집고문 · 박우건
 편집위원 : 서강수, 이종현, 조진우, 최대용
 취재 · 전구주, 강병현, 이애자, 임혜영
 편집디자인 · 황창혁
 사진 · 이재훈(스튜디오 모델리아니)
 편집기획위원 · 문정현, 김보중, 이영로, 이영근, 손정배, 김은선, 김정태, 진솔아
 구독 · 반송문의 · TEL. 02)2261-1113
 발행처 미오미디어 · 04627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길 24, 303호
 정가 1만 5,000원, 1년 5만원

ICT LEADERS INTERVIEW

- 024 **Cover Story**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고용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034 **In the NEWS**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명희 원장
- 044 **랑데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총장
- 058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한국IBM 장화진 대표이사
- 066 **랑데부**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이사
- 072 **avant-garde**
한국HPE 함기호 대표이사
- 080 **CIO/CISO Leader**
KT IT기획실 신수정 부사장
- 092 **Woman in IT**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송정희 특훈교수

- 098 **랑데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이사
- 116 **Meet the Guru**
숙명여대 ICT융합공학부 윤용익 교수
- 124 **Award Winner**
NDS솔루션 김남교 대표이사
- 130 **YOUNG & SMART**
모어이즈모어 객재경 대표이사



자동차 SW 전문기업, 한컴MDS

자동차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은 차량에 내장되는 전자제어장치와 임베디드 SW에 의해 구현됩니다. 자동차 SW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에 위해 개발 초기부터 양산까지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로 자동차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검증까지 한컴MDS가 혁신하겠습니다.



HANCOM 한컴MDS (구.MDS테크놀로지)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한컴타워 3,4층 www.hancommds.com



BOARD
154 FKII 東西南北

COLUMN
009 Editor's Letter

010 PHOTO POEM
여름일기/여름/비 개인 여름 아침

052 한국의 窓-宮
조선왕조 법궁, 경복궁

160 後記

SPECIAL THEME

086 기획특집-ICT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재양성

106 CEO를 위한 또 다른 시각
대자율과 리더십, 신뢰와 박수!

TRAVEL & LEISURE

111 WORLD TRAVEL
동유럽, 체코와 오스트리아

136 그 '섬'에 가고 싶다
제주도 밖의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 · 가파도



文化街, IT 文化散策

144 CINEMA
<레디 플레이어 원>



Q-Wayfinder SW특성



- 검색모듈
- 템플릿
- 목적지까지의 실제거리 표시
- 멀티터치
- 3D 변환 툴
-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기능
- 팝업
- 광고 및 이벤트
- 이미지,영상 연속 광고 가능
- 층별 전환 팝업창 제공
- 건물들 간의 길 안내 가능
- 플래시 파일, 버튼 사용가능

1. 프로젝트 :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 확인
2. 작업공간 : 디자인 작업 공간
3. 속성 :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 확인
4. 툴 : 용이한 작업을 위한 툴
5. 오브젝트 : 기본 버튼/지도/썸네일/텍스트/비디오/URL 등 적용 가능한 오브젝트
6. 액션 : 각 스크린/오브젝트에 적용 가능한 액션

3D 변환 툴



- Ⓛ 카드 도면 NO!
- Ⓛ 3D Max 프로그램 NO!
- Ⓛ 2D 이미지의 지도를 쉽게 3D로 전환

템플릿 및 아이콘



영화관 쇼핑몰 병원 놀이동산 교육기관 쇼핑센터 터미널 박물관

contents

Summer 2018, vol. 06

SPECIAL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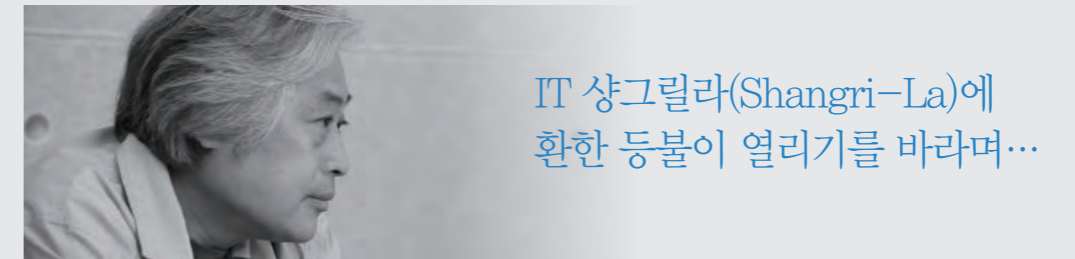
- 016 **Photo Panorama**
2018년 한이음데이
- 020 **Photo Panorama**
2018 SW 마에스트로 100+ 컨퍼런스
- 146 **Replay**
한-일 정보보안 전문가 간담회
- 147 **Replay**
부탄 ASOCIO 정례회의 참석
- 148 **Replay**
한국 CIO포럼 4월 조찬회
- 149 **Replay**
한국 CIO포럼 5월 조찬회



- 150 **Replay**
한국 CIO포럼 6월 조찬회
- 151 **Replay**
근로법 개정에 따른 IT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 152 **Replay**
SW마에스트로 9기 발대식
- 153 **Replay**
2018 임베디드SW컨퍼런스

〈Journal of ICT Leaders〉는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사진 등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미오미디어가 가지고 있으며 사진 등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Journal of ICT Leaders〉는 ICT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계간 소식지로 인물 인터뷰, 대담, 문화탐방, 산업계 동향과 소식 등의 다양한 읽을거리를 전합니다.



IT 상그릴라(Shangri-La)에
환한 등불이 열리기를 바라며...

■ 〈Journal of ICT Leaders〉 독자 여러분, 어느덧 2018년의 절반을 넘어서서 성하(盛夏)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각계각층 독자님들의 성원과 관심,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지원 등에 힘입어 〈Journal of ICT Leaders〉도 벌써 6호 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IT업계에 특별한 잡지가 되고자 성심을 다한 입장에서 잡지 발행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부터 전합니다.

어느 유명 정치인 출신 작가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 외에는 없다!'라는 한마디 말로 작금의 시국을 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절망과 좌절을 주었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더니 한순간에 찬란해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 빛의 위대함에 놀라고 있기에 작가의 그 말은 가슴에 깊게 와 닿습니다. 그동안 어둠은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우리 주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거듭했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또 때로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주저앉기도 했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이 가장 멀리 사라질 것 같은 아니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은 지금, 오히려 다리가 풀리고 겨드랑이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과도한 허탈감에 물들어버린 이 기분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과도기(過渡期)'라는 말을 '밥이 익기 전 뜬들일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비유하여 표현한 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밥이 제대로 지어지기 전 뜬들일 시간이 필요한 때로 우리 모두가 지난 날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결의를 다져야 할 엄숙한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막강한 IT의 수혜를 듬뿍 받은 전자군단 독일이 겁 없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의 패기로 무장한 멕시코에게 월드컵 첫 경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영원한 강자, 영원한 약자도 없는 월드컵의 세계를 그렇게도 좋아했다는 등소평은 경기를 통해 '전술' 보다는 통일된 중국이 변영할 '전략'을 찾아내기 위해 술한 불면의 밤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 기회 우리 스스로 깨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 이제는 완전한 빛만이 존재하는 '상그릴라(Shangri-La)'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IT업계 또한 그 이상향에 천 개, 만 개의 '빛'의 등불을 달아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때 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마, 무더위, 근거 없는 의심, 편견과 오만 그런 어둠은 이제 다 걷어내고 청량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자꾸만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추슬러 봅니다.

여름일기

이해인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 넣고 싶다

여름엔
햇볕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꿈을 흘리고 싶다
땀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 번 바다에 가고 싶다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엮드려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



청송군 제공

PHOTO POEM

여름

유자호

이 여름에
우리는 만나야 하리.

여미어 오던
가슴을
풀어헤치고
우리는 맨살로
만나야 하리.

포도송이처럼
석류알처럼
여름은
영롱한 땀방울 속에
생명의 힘으로
충만한 계절.

몸을 떨며 다가서는
저 무성한
성숙의 경이 앞에서
보라,
만남이 이루는
이 풍요한 여름의 기적. 비 개인 여름 아침





PHOTO POEM

비 개인 여름 아침

김종삼

비가 개인 날

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아침을 이루었으니

綠陰이 종이가 되어

금붕어가 시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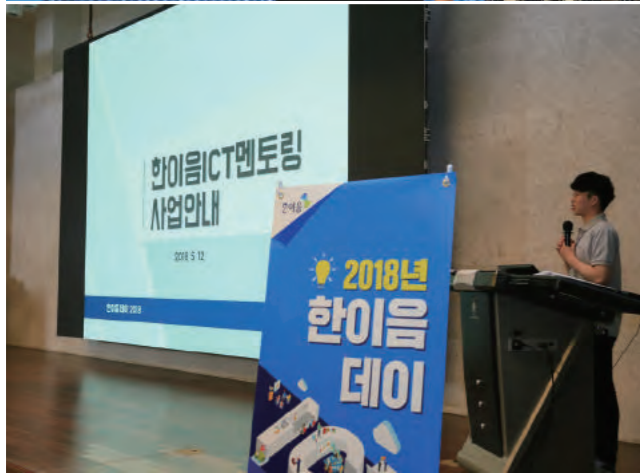




2018년 한이음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년 한이음데이가 지난 5월 12일(토)~13일(일), 2일 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프로젝트 내실화 및 멘토-멘티 간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56개 대학 302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5월 12일(토), 1일차 일정에서는 2018년 한이음 ICT멘토링 제도 안내, 멘토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ICT 특강 및 프로젝트 팀 활동이 진행되었다. 멘토 발대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준호 과장이 참석하여 LG CNS의 강석태 멘토와 유알피시스템의 이주희 멘토에게 각각 남여 대표 멘토로 위촉장을 수여 하였으며, 멘토 발대식을 기념하는 퍼즐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ICT 특강에는 NICE연구소의 이낙선 멘토가 '한이음 ICT멘토링 프로젝트 수행방법', 한국IBM의 김천순 실장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바라보는 미래 비즈니스', 특허법인 다울의 정연주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이해 및 ICT분야별



지식재산권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5월 13일(토), 2일차 일정에서는 전날 진행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우수팀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베스트기대학과 베스트 팀워킹상 각각 5개 팀, 총 10개 팀이 시상하였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최성진 선임이 '창업을 위한 스마트 창작터'의 내용으로 향후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였고, 감성소통리더십연구소의 차희연 소장이 '타인의 대한 이해와 감정 조절을 위한 소통 방법'의 주제로 멘티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두드림컨설팅의 함선희 대표는 멘토를 대상으로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감성 리더십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멘토링 진행 시 멘토가 멘티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정리/양지훈



2018 SW마에스트로 100+컨퍼런스

2018 SW마에스트로 100+ 컨퍼런스가 지난 5월 30일 양재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진행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SW마에스트로 연수생, 멘토 뿐 아니라 SW분야 연구자, 학생, 일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최고급 SW인재양성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의 “젊은 소프트웨어 인재가 미래다”는 제목의 ‘기조강연’, 8기 SW마에스트로 10명에 대한 ‘인증식’, 기수료생의 ‘데모데이’ 그리고 LG CNS, 기아자동차,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석한 ‘취업상담’ 등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되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SW마에스트로 사업의 성과가 창업과 취업으로 이어져 확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료생의 기술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수료생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리/백승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고용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 방향보다 속도가 필요하다!

■ “롤 모델을 꼽는다면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는 단연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정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요 서민들의 문제의식과 사회정의를 타협을 통해 이룬 분이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에서 남다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고용진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여서 정신없이 바쁜 와중이었지만 고 의원은 잠시 시간을 내주었다. 그의 얼굴은 하얀 이가 보기 좋게 드러날 만큼 새까맣게 탔지만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의 방은 별다른 장식이 보이지 않아 검박했다. 꽃 화분도 보이지 않았다. 책장에는 IT관련 서적과 인문서적이 절반씩 섞여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출판기념회가 잦아 전해지는 책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그의 책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희 백선>, <김구>, <정도전>, <신익희>, 그리고 <이순신> 같은 인물 평전과 역사소설, <사기본기> 같은 고전이였다.

벽에 걸려 있는 글씨 역시 김구 선생이 인용한 이순신 장군의 기개 넘치는 전장으로의 출사표였고 국회의장 인준을 기다리는 문화상 의원이 썼다는 ‘山高水長’이었다. 그리고 그의 지역구인 노원구의 옛 지도가 기개 넘치는 호랑이 그림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직 경륜이 쌓이지 않아 걸려 있는 것도 화려하지 않고 숫자도 적다”고 농 섞인 답을 했다.

우리가 긍지를 갖고 세계에 내세울 것 중의 하나는 바로 40년에 거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일 것이라는 고용진 의원은 패기 넘치던 서른한 살 때로 되돌아가서 더 완벽한 정치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초선 국회의원의 특징은 '배우는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는' 것이라는 그는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로드맵 역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에 두었다.

“평소 어떤 책을 읽나요?”

“근현대 역사소설을 즐겨 읽습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니 지금 말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가 제 전문이 아니어서 그쪽 관련된 책을 입시 공부하듯 열심히 훑어가며 읽고 있어요.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니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창업국가나 ICT 트렌드를 소개하는 책들을 최근에 읽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나 정치적 속성을 역사를 통해서 통시적, 공시적으로 잘 잡아주는 그런 책들을 읽을 때 편합니다. 물론 수필이나 명상록 같은 책보다는 덜하지만 말입니다.”

“언론정보학을 전공했으면 영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도 최근에 본 영화는 <1987>과 마블 시리즈 세 번째 영화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꼽을 수 있겠네요. 글썄요, 어째서 전작들을 보지 않으면 50%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저런 영화에 천만 관객이 몰렸을까 신기하기도 했어요. 대학교 4학년인 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마블 영화를 모두 보았다고 전제하고 고정관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첨단기술을 동원하여 제작한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곳곳에 넘쳐나는 ICT 아이템 또한 관객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964년생인 고용진 의원은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40대의 외양과 근살 하나 없는 탄탄하고 절제된 몸매를 자랑했다. 이를 말하자 “나도 뱃살이 있다”면서 손 사례를 치는 그에게 “독특한 건강 관리법이라도 있는지”를 물었다.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계단을 만나면 무

릎에 무리가 오지 않을 만큼 걸어서 오릅니다. 아마 그런 습관이 비결이라면 비결 아닐런지요.”

“만약 시간을 되돌려 청춘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제가 31세에 시의원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허술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더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그 허술함을 보완하고 싶은 욕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지를 갖고 세계에 내세울 것 중의 하나는 바로 40년에 거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일 것이라는 고 의원은 패기 넘치던 서른한 살 때로 되돌아가서 더 완벽한 정치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초선 국회의원의 특징은 '배우는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는' 것이라는 그는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로드맵 역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에 두었다.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된 의견이나 하소연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모두 공감 가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저희들도 놀란 일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기업가나 근로자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하는 것은 당위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조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가야할 방향입니다.”

2년간의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고 '같은 자리에 남을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로 옮기게 될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에 국회가 멈추고 있는 답답한 상태에 고용진 의원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공유와 타협을 통한 소통”이라고 했다. 그리고 작금의 4차 혁명시대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방향보





다도 '속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미리 보내진 질의서에 정리를 해서 준 답변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Q : 당 정책위 부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은 2년 연속 국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회와 국회의원으로서 이룬 주요 성과, 수상내역을 말씀해주세요.

A :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난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지역구인 노원구와 국회를 오가는 빠빠한 일정이지만, 매 걸음걸음 국민들의 기대와 염려를 담고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에 대한 현안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고민하고, 동 분야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법률 입안 및 정책을 추진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통신요금 인하, 방송개혁, 탈원전 등 민감한 쟁점을 많이 다루다 보니, 유독 정당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첨예하게 대립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국정원 연루 및 스마트폰 감청기술 개발 의혹,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 부실, 원전 용역개발 비리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당 내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당대변인을 맡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100일 민생상황실'에서 생활비절감팀장을 맡아 국민이 이뤄낸 정권교체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했던 점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생활비 절감이라면 누구보다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주부들과 함께했던 토크콘서트, 통신비 인하를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을 빼고,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남아 경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와 벌였던 정책토론회, 다섯 차례의 당정 협의 등, 참으로 숨 가쁘고도 또 보람된 100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신 덕분에 2016·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비롯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로부터 모범 국회의원 대상,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우수국회의원 대상 등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Q : 최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A : 공인인증서, 액티브X에 대한 사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까닭은, 공인인증서 이용 과정의 불편함 뿐 아니라 이용자가 다른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정 인증서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지요. 현재의 방식은 호환성 저하,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 속도 저하 및 오류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20여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은행·보험·쇼핑몰 등에서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이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은 오직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지요.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

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을 빼고,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남아 경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바꾸어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X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어,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기대합니다. 물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 의원님이 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지요?

A :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꼽습니다. 스마트홈, 스마트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인간 행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을 구현할 새로운 기술들이 인류 생활의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이나 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에, 기존의 사회적·법적 규제와 충돌합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신제품·신서비스 공식 출시 전의 실증시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킴으로써, 시장테스트가 필요한 기술의 보안을 지원하고 출시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로드맵에는 해당 지역 전체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는 계획도 담

앞으로는 현재보다 창의적이고 비전형적인 일자리 형태가 많아지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내 지능정보 분야에서만 약 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연한 대처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현실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방향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Q : 제1회 <세계 빛의 날> 세미나에서 의원님이 밝힌 '4차 산업시대 광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A : 초고속 광통신은 세상을 바꾸어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대다수의 첨단 ICT 기술이 레이저와 빛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광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해 왔습니다. 광학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은 앞으로 진행될 4차 산업혁명에서 더욱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다양한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빛의 날' 제정도 광학과 광기술의 산업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고, 빛과 관련한 연구와 개발,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광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광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연 인재육성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산업계를 만나보면 현재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기술로서 광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많지만, 우수한 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2016년, 국회에서는 광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융합 기술개발 및 지원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며, 올 3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설립과 지원, 전문연구소와 전담기관의 설립·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한국광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산·학·연 위원들이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융합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전문 인력양성, 기술 지원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 광융합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 중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과 그 완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A :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명제는 오싷합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의 풍요가 아닌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모바일뱅킹 활성화로 고객들의 은행 방문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패스트푸드점도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고 주문 전담 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보스포럼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또 금융·서비스업으로 발전한 산업혁명의 역사를 반추해보면 기술 발전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함과 동시에 직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왔습니다. 일자리의 '소멸'이 아닌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현재보다 창의적이고 비전형적인 일자리 형태가 많아지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내 지능정보 분야에서만 약 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은 단순히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벌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창출된 부가 고루 분배되지 않고 노동자는 갈수록 궁핍해지는 현실에 저항한 노동운동이었습니다. 미래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제조건 역시 복지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그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에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기술이 불려올 생산성 향상 효과가 노동자들에게 적절하게 돌아가고, 나아가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Q : 의원님이 지적하여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A : 잘 아시다시피 최신 스마트폰은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 이미 어지간한 가전제품 수준입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는 만큼 고장이나 분실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스마트폰 약정은 대부분 2~3년인데, 1년 반 정도 되서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 소비자 과실이 아니더라도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많은 소비자들이 전용 보험까지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의 국내 품질보증기간을 현재 1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스마트폰의 평균 교체주기가 2년 7개월 정도인데 보증 기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셈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무선청소기는 보증 기간이 최대 5년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삼성과 LG가 같은 제품에 대해 EU 28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증기간 2년을 내세워 마케팅을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들 기업의 품질 보증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무선청소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면서 보증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례를 스마트폰 액정이나 배터리에 적용해 품질보증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LG전자 최상규 사장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고가의 기기인 만큼 국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와 동일하게 2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 합리적인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 의원님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원 상'과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요?

A :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면서 동시에 소속 지역구 이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질의, 예산 심사, 정책연구, 민원 청취, 지역 발전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와 지역구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하루에도 여러 번 오가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원'이란 이처럼 주어진 여러 역할의 균형을 잘 잡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고루 쓰이는 의원입니다.

공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지칭할 때 으레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앞에 '존경하는(Honorable)'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국회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원을 선출한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언쟁 중 목소리가 높아지기 쉬운 회의장에서 감정을 자제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유도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논점이 흐려지기도,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논쟁은 치열해야 하지만 의원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회의록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 : 고동진 의원님에게 지역구인 '노원'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노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A :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집(Home)'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원갑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했으니 정치인으로서 노원에서 성장한 셈입니다. 또 어떤 곳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집이 그렇듯 말입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 노원은 지금은 베드타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끝에 위치하고 일자리보다는 대단



지 아파트와 빌라가 주를 이루는 까닭입니다. 낙후한 건물도 많습니다. 반면 그만큼 투자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원구 월계·공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에 당선 이후 낙후한 광운대역 개발 사업 실현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을 설득해 지난해 서울시-노원구-코레일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내년까지 개발 계획을 인가받아 2020년 착공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폐선로를 활용한 경춘선 숲길공원의 개장과 한내행복발전소 개관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기반 조성에도 힘써왔다고 자부합니다.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 생활사박물관도 건립 중입니다. 주민 편의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강북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전구주 · 사진/이재훈



고동진 의원 Profile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 석사
 현)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갑/더불어민주당)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국회부의장 비서관

연혁 및 로드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범 (17. 7. 26.)

- 2005~2008: 위차 통합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이전, 대전센터 설립(2005), 광주센터 설립(2007))
- 2009~2012: 자원 통합 (하드웨어 통합구축 주도, 정보자원 공동구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 2013~2017: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플랫폼 통합 운영, G-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 2015~2021: 빅데이터 서비스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부처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구센터 & 광주센터 설립,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추진, 4개 센터간 서비스 및 데이터 상호연계

주요 기능

세계 최초 범정부 통합데이터센터

1990년대부터 한국은 전자정부 정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중복투자, 전문성 부족, 열악한 전산환경, 보안 취약성 등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탄생했고 한국의 전자정부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축진
-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 빅데이터 활용 과학적 정책 수립
- 정보자원 관리효율성 제고

미션 & 비전

MISSION 디지털

VISION 지능형

경영방침 BUSINESS POLICY

Innovation (Operation Excellence)

신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무역량 확보

Leadership (Technology Lead)

입주기관과 국(IT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선도

핵심가치 CORE VALUE

I Integrity (정량·정실)

R Relationship (신뢰·소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명희** 원장

업무 혁신(Innovation), 기술 리더십(Leadership),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고객만족(Happiness)!

“평소 롤 모델이 있는지요?”
 “글쎄요, 딱히 롤 모델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딸아이는 저를 롤 모델이라고 한답니다.” - 이 말을 할 때 고정된 톤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김명희 원장의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고 웃음이 피어났다.
 “만약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답을 하던가요?”
 “반응이 다양합니다. 가족에 얽힌 여러 사연을 말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등학교 시절 전국 수석을 기대 받는 등 화려한 학창시절을 보내신 것으로 아는데 의외입니다.”
 “KAIST 1회 입학을 선택했었지만, 제게 IT분야는 참 힘들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걸어 온 길을 다 아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같은 시간들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분야가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잠시라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라 제 성격에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





고요. 일이 힘들었던 것은 밤을 새워 일하는 것은 예사였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예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백일장에 나가서 입상을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은 ‘어머니’였어요. 제가 함께 해주지 못한 시간에 대해 섭섭함과 이해,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까지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국어선생님인 담임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글이어서 학교에서 낭독되어 눈물바다를 만들었다’고 전하는 전화를 받고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시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이미 여름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던 5월의 마지막 날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자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김명희 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절차는 예상대로 정문에서부터 까다로웠다. 약간의 긴장감마저 일으킬 정도였다. 정문 안에는 입장 절차를 받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소지한 물품 하나하나를 대조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원장님 인터뷰!”라고 농담 섞인 설명을 했지만 담당자들은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신분증 제시 등 원칙적인 절차를 계속할 뿐이었다.

“원장님 인터뷰 간다고 했더니 어찌 더 세밀하게 검색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검색도 원칙에 입각해서 실

시하고, 내부에 들어와서 일하는 수백 명의 민간업자들에게 대한 검색은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검색을 강화한 거지요. -웃음-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주세요.”

2017년 2월 1일 취임식을 가진지 한 달 만에 기관의 조직 개편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적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혁신을 실행하고 있는 김명희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김 원장은 인터뷰 당일에도 아침 8시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10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많은 일정을 바쁘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그의 일정 중에는 정부 부처 간의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기조연설 같은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정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것이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한민국 정부 45개 부처의 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과 정보보호, 보안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정부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처음 원장 제의를 받고나서는 거절도 고려했었어요. 우선 주말부부로 지내야 하고, 연봉 역시 상당한 차이가 나게 깎였고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국가의 중요시기에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를 구현하고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는 고품질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의 핵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데에 느낄 보람이 제가 갖게 될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 기관으로의 입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장으로 부임한 처음 한 달은 아예 서울 본가 쪽을 쳐다보지를 않고 관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생활하면서 원장으로서 이루어야 할 개

혁 목표와 방향 찾기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의 그런 열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향하는 변혁의 열정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느껴져 행정안전부를 넘어 전 국가적으로 긍정의 나비효과를 줄 수 있겠다는 기분 좋은 기대까지 갖게 했다. 인터뷰 내용과 질의서 답변 내용을 Q&A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Q : 세계 최초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인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새롭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출발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개요, 개편 과정과 이후 달라진 사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신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입니다. 2000년대 초 전자정부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각 정부기관별 분산 구축·운영에서 오는 IT 인프라의 중복투자, 부족한 전문 인력, 열악한 전산실 환경 및 취약한 보안시스템 등의 정보자원 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05년 11월에 세계 최초 정부 전용 데이터 센터로 정부 통합 전산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2007)를 설립하였고, 2016년 3월에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받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일에 제가 6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으로 취임하였고, 7월 26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제 1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 1일 취임 후, 저희 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운영 수준 등 기술적인 분석과 조직 및 구성원들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진행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기관의 명칭 변경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기관의 명칭은 기관이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기관이 지향하는 바가 합쳐되어야 하는데, 지난 12년 동안 사용된 ‘정부통합전산센터’ 라는 이름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

를 진행하여 3가지 안을 마련하였고, 작년 신입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보고 시에 장관님 지원 요청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6개월 만인 작년 7월 26일에 전체 정부 조직법 개정과 함께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한민국 정부 45개 부처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과 정보보호, 보안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정부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 ICT 인프라를 구현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융합망 구축, 대구 지역 데이터 센터, 백업전용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기반 국가 주요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공공 빅 데이터 센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 임기 3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으로서의 최우선 성과 목표와 그간의 1년 4개월 임기 수행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A : 2017년 2월에 부임하여 직원들에게 세 가지 기관운영방향(경영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로세스 개선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혁신(Innovation),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기관과 국내 IT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리더십(Leadership), 안정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과 정부부처가 만족하고, 내부직원이 행복한 조직, 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고객만족(Happiness)이 그것입니다. 세 가지 기관운영 방향을 근간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 설립 12년 만에 기관의 미래 발전적 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을 개정한 것이 첫 번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조



정 기능 및 센터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 도입 촉진 등을 위해 아키텍트팀을 신설하는 등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전면적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정부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빅 데이터 분석(경찰청 입장일지 분석, 대전시 119 구급행정체계 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빅 데이

터 분석플랫폼인 '혜안' 이용 확산과 전문교육 실시로 '혜안'의 이용자가 2016년 말 2천명에서 현재 10만 명으로 증가하여 공식사회 빅 데이터 저변확대에 기여한 점은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 사전 예방을 위한 보안취약점 관리 자동화 개선을 통해 기존 전체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전수 점검에 70일 소요되던 것을 7일로 단축하여 운영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급증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물리 및 정보시스템을 모두 망라하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정부 헤드헌팅 1호 여성 고위공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첫 여성 기관장'이라는 타이틀이 다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남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IT 분야 공공기관'의 첫 여성 기관장이 된 점이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노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안모델을 설계하여 현재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비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서비스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로 변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개별적·장비중심·텍스트 기반의 관계에서 통합적·서비스중심·시각적 관계로 전환기반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외부 기관으로부터 Digital Transformation 관련 상을 세 개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전체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한 해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기관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여하는 '도약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Q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최초의 여성 기관장으로서의 소감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A : '정부 헤드헌팅 1호 여성 고위공무원', 국가정

보자원관리원 '첫 여성 기관장'이라는 타이틀이 다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남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IT 분야 공공기관'의 첫 여성 기관장이 된 점이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노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성·남성을 크게 따져가면서 일을 하는 성향은 아닌데, 여성 인력들이 가지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 안에서도 여성 고위공무원 인력을 10%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원에도 많은 여성 인력들이 있는데, 책임감 있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투명하고 자기 주관도 있고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장점이 편견 없이 적극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Q : '전자정부 세계 1위' 명성 유지를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향후 전략이 궁금합니다.

A : 최신의 기술발전을 보면 정부 서비스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서비스의 변화 방향에 발맞춰, 중앙부처의 인프라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리 원은 이러한 정부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보다 지능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원의 비전을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현'으로 바꾸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 본원과 광주센터 두 개의 데이터 센터 이외에 향후 2020년과 2021년에 확충되는 대구 센터와 백업 전문 센터를 포함하여 4개 센터간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원 '발전전략 2022 TF'를 구성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까지 클라우드 업무설계 기준 및 인프라 환경 구성 등 표준 아키텍처를 마련하여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정비되지 않은 프로세스,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기술 검증용

실시한 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2년에 완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oT, 모바일·영상 데이터, 가상현실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발생 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센터로의 진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인 공공 빅 데이터 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센터를 연계하고 필요기술과 데이터를 지원하며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 가장 기반이 되는 시급히 진행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공공 빅 데이터 센터 준비 TF 활동을 통해 2019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 국가정보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글로벌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응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A : 현재 우리 원은 사이버 보안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다단계 방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변화 발전해가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망라하는 end-to-end 관점의 사이버 보안 정책을 구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은 점차 고도화·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공격과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과 시스템의 한계로 이와 같은 사이버 위협 변화에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측·예방·분석·탐지활동을 자동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신규 위협 대응 등 사전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우리 원에서 자체 수집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였으나,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의 공유 및 공조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기관과도 정보공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원장님의 정의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A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업 또는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향상시키

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인사조직 등 기관 내 모든 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기술인 AI, IoT,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에 대응하고,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며, 향후 4개 센터(대전, 광주, 대구, 공주) 운영에 대비해 기술, 프로세스, 조직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관점에서는 4개 센터 간 지능형 데이터 센터 구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침해 대응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그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기술인 AI, IoT,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에 대응하고,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며, 향후 4개 센터(대전, 광주, 대구, 공주) 운영에 대비해 기술, 프로세스, 조직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범정부 빅 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인 혜안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제공 및 연계,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공공 데이터 관리 기반 등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개별적 장비중심의 모니터링 체계에서 서비스 관점의 시각적·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저희 원이 가지고 있는 장애·변경·자산 등 24개 표준운영절차와 지침의 개선과 운영·유지보수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점에서는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조직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4개 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기획·운영 부서 분리, 사업 총괄 팀 및 공통 인프라 팀 신설, 그리고 아키텍트 팀을 신설하여 운영정책, 성능검증, 신기술 도입 등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직무분석과 필요 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사회는 잦은 전보 이동으로 전문성을 지속 보유하기가 어려운데 이를 보완하고자 17개 직위에 대해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 위주의 공직사회 평가시스템을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침체된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Q : 한국IBM 글로벌테크놀로지서비스 상무, SK텔레콤 IoT 솔루션사업본부장 등 민간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글로벌 회사 (한국 IBM) → 국내 대기업 (SK텔레콤) → 정부기관 등으로 조직을 옮겨 가면서 각각의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나름대로 저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년 4개월 동안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직접 보고 겪은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국가 ICT의 큰 그림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민간 영역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관장으로서 제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거대한 관료 조직의 룰을 따라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공직사회의 문화가 형성되고 제도가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는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Q :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IT분야 진출을 꿈꾸는 여성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A :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여성 리더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유리천장’이 점차 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는 물리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아서, 친정 부모님과 남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일과 육아를 혼자 동시에 하는 슈퍼우먼이 되려하지 말고, 주변의 응원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일·가정 양립은 여성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의 수적인 증가가 질적인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뒀은 반드시 해내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열정과 끊임없는 Self-Motivation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에도 훌륭한 여성 인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IT 분야에서도 여성 리더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실 옆에는 아담한 접견실이 자리한다. 이 접견실 벽에는 마치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따뜻한 햇볕을 받아 수면을 반짝이는 것 같은 모네와 피사로의 그림이 걸려있다. 그리고 옆의 원장실에 들어가면 입구 쪽 벽, 김 원장의 자리에서 마주보이는 곳에 역시 모네와 르누아르의 그 유명한 그림이 각각 걸려 있다. “해외 출장 중에 박물관을 찾아 평소 보고 싶었던 그림과 마주하는 순간을 아주 좋아한다”는 그의 취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그림 아래로는 클래식 음악을 서라운드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들이 자리했다.



“원장님의 취미 생활과 운동, 건강 유지 비결 등이 궁금합니다. 좋아하여 자주 인용하는 명언이나 글귀, 늘 곁에 두고 읽는 책과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그리고 보신 영화중에 기억에 남아 권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글귀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입니다. 저는 도전하는 삶을 좋아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은 주로 스님들 저서를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의 안정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법륜 스님의 <방향해도 괜찮아> 등을 곁에 두고 마음 갈 때마다 읽는 편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 기억에 남는 영화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인데,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되돌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설령 과거에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영화입니다. 또 주제곡인 ‘How long will I love you?’도 아주 좋아하는 음악이랍니다.”

“만약 10대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에 원장님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고, 크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ICT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밤을 새우기도 많이 하고, 늘 일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29년 차인데, 일을 시작한 이후로 딱 넉 달을 쉬었습니다. 큰 애 출산 후 두 달, 둘째 애 출산 후 두 달, 두 번의 이직을 했지만, 이직할 때에도 쉬지 못하고 늘 쫓기듯이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옮겨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인지라, 미안해서 감히 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바로 이직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IBM에서 SK 텔레콤으로 이직할 때는 금요일까지

IBM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SK텔레콤으로 출근했고, 이곳에 기관장으로 취임할 때에도 1월 31일 밤 8시에 SK 텔레콤에서 퇴근하여, 다음날 2월 1일 오전에 임명장을 받고 바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큰 애가 중 1때 백일장에서 입상한 작품이 ‘어머니’였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크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철저한 계획대로 움직이는 원칙주의자이자, 끊임 없이 변화를 모색하는 그였지만 딸과 아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남편과 어머니, 시댁 식구들 이야기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가도 환하게 웃는 푸근한 어머니자, 딸의 모습이었다.

정리/손정배 · 사진/이재훈(모달리아니)



김명희 원장 Profile
광주 사레지오여고 졸업
카이스트 경영과학 학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전)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SK텔레콤 IoT 솔루션사업 본부장
한국IBM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상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총장

인간을 위해 미래를 꿈꾸는 창의의 SeoulTech

우리 대학은 지난 110여 년 간 산업현장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11만 인력을 양성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대적 사명을 책임져 왔습니다. 차별화된 산학협력 분야의 전통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산학협력과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이를 교육과 연계시키는 이른바 '산학협력에 기초한 교육·연구체계 구축'이라는 특성화 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장님은 지난 3월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명예지요. 제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을 맡았고, 공학교육의 국제적 증가성과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인정이라 여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신록이 캠퍼스에 가득하고 날씨는 더위마저 느끼게 하던 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찾아 김종호 총장과 약 1시간 30분 정도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미리 주어진 질문마다에 이미 꼼꼼하게 답을 준비하고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터뷰는 질문지 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는 사진 촬영을 위해 교정으로 나가기를 권하자 흔쾌히 응하면서 총장실 뒤편의 아주 오래 된 건물을 소개했다. 100년이 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유서 깊은 이 건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총장 임기가 다하면 연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쯤 뒤에는 어떤 일에 열심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업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온 만큼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겠지요. 퇴직 후에는 상담 교육이나 기술 자문을 통한 재능 기부 봉사를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청춘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싱가포르의 국부로 통하는 이광요는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에 500만 인구가 사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어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가 혼재될 수밖에 없으니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과, 전 국민이 제2외국어로부터 자유롭도록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지요. 그 결과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을 넘어가는 강소국을 이루었어요.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국제적 문화와 문명을 경험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세계여행을 택할 것 같아요. 유럽도 좋지만 아프리카나 남미라면 더 좋겠지요.”

학생들에게는 늘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인성을 강조해온 김종호 총장은 지금 세계 문명여행을 꿈꾸고 있다. “왜 총장이 되었나?”를 묻는 학보사 기자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욕심보다도 학생들 개개인이 내가 다닌 대학이 어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던 김 총장에게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계를 예정된 로드맵에 맞추어 돌릴 수 있는 시간은 1년 몇 개월 정도가 남았다. 하지만 그는 처음 총장에 출마할 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계속해서 걸음을 옮길 것이라 확신을 받았다.

“평소 어떤 책을 가깝게 두고 읽나요?”

“아내는 기독교 신자여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요. 하지만 저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더 즐겁습니다. <누구누구의 자서전> 같은 책 말이지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종류입니까?”

“교육 관리, 교수법에 관한 책을 읽고 있지요.”

김 총장은 평소 학생들에게 “대기업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역량을 발전시켜 장기 레이스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덧붙여 “중견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며, “조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자신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임을 상기시켜왔다.



군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의 김 총장의 건강비결은 특유의 부지런함일 것 같았다. 이에 건강관리법에 대해 문자 역시 “걷기”로 답을 했다. 교수일 때보다 업무 하중이 더 심해 별도의 운동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6000보 정도는 걸으려 노력한다고 한다. 등산은 아니어도 동네 산은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그는 길을 걸으면서도 파키스탄이나, 네팔, 부탄의 어느 고원을 그린다고 했다. 그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다 하고 나면 어떤 모양의 족적이 남을지가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Q : 1910년 설립, '21세기형 대학'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역사와 간략한 현황, 비전을 소개해주세요.

A : 우리 대학은 지난 110여 년 간 산업현장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11만 인력을 양성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대적 사명을 책임져 왔습니다. 차별화된 산학협력 분야의 전통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산학협력과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이를 교육과 연계시키는 이른바 '산학협력에 기초한 교육·연구체계 구축'이라는 특성화 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융합형 과학기술대학'으로서 MIT나 CalTech과 같은 세계적인 과학기술대학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미래를 꿈꾸는 창의의 SeoulTech'라는 비전 아래에 '창의융합인재양성' 'R&BD연구역량강화' '기업형 산학협력모델화' '대학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이라는 5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공학과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분야를 융합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21세기형 과학기술대학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Q : 2015년 11월, 두 번째 도전 끝에 이룬 총장 취임 이후 3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 이후의 계획과 그 소회가 궁금합니다.

대학과 기업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 국가경쟁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대학을 기업가형 체제로 혁신하여 고도화된 선도모형 확립과 성과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고용확대, 산학협력 기반 기술개발(R&BD)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 중입니다.

A : 우리 대학교는 2012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한 후 대학 내 행정시스템, 교육지원시스템, 연구 환경 조성 등의 내실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과기대의 대표적인 특성화와 교육·연구력 향상 방안, 학생중심의 다양한 융합교육과정을 위한 학사관리제도 개선, 특히 대학원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산학협력 환경 조성 과 창업환경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님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일심동체 하여 저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학보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목적보다는 학교 발전에 욕심이 있어 총장이 되었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 먼저 1학년이 강한 기초과학과 인문학의 내실화 및 융합교육과정의 구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1학년이 강한 대학을 이루기 위해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물리, 수학, 화학 등 기초교과목의 실력향상으로 전공과목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4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학문간 융합, 연계 융합과정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운영(대학교육혁신원 신설, 메이커스칼리지 신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중심대학에 버금가는 대학원 활성화 체제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학원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대폭 확충, 학·석사연계과정 확대, 대학원의 정책 결정

을 대학본부로 이관하고 학사행정의 전산화와 대학원간의 자율경쟁체제 구축, 미래 핵심 기술의 선제적 연구비 지원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 창업 환경의 구축도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창업활동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창업관련 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단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해외대학 신규 협정체결을 매년 확대하여 2015년 35개교, 2016년 44개교, 2017년 40개교 등 현재 총 236개교, 8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의 증대 또한 확대했습니다.

Q :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표대학'의 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산학 협력에 대한 '신념'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A : 산학협력이란 대학과 기업체가 연구,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 관공서까지 외연을 확대하여 산·학·연·관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중이며, 대학과 기업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 국가경쟁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대학을 기업가형 체제로 혁신하여 고도화된 선도모형 확립과 성과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고용확대, 산학협력 기반 기술개발(R&BD)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자립형 산학협력 R&D BIZ-Campus 구현'이라는 산학협력 비전을 토대로,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3대 목표를 '기업맞



춤형 인재양성', '캠퍼스 창업 활성화', '재정수익성 확대'로 잡고, 향후 5년 동안 산학협력연계 1,000명 취업, 창업고용창출 1,000명, 산학협력수익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 취업률 전국 1위 달성과 졸업생 창업활동 전국 4위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취업률 75%대 진입과 학생 및 교수의 창업 활성화로 취·창업 대표대학 위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2016년 베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캡스톤디자인은 SeoulTech Capstone BIZ-College를 통한 선도브랜드의 특성화 및 고도화라 하겠습니다.

3년 연속 기업관점 산학협력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수요 관점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상생발전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학교육 페스티벌 올해의 대학(대상, 은상) 수상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계 수요 맞춤형과 디자인·공학 융합형 인재양성을 이룬 결과입니다.

Q : <제16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대회와 관련하여 조직위원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A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작품의 공모를 통한 심사가 아닌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개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 국내 유일한 대회입니다. 이러한 경진대회를 통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산업 간의 협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어를 획득함은 물론, 미래의 잠재인력 조기 발굴 및 인력양성으로 산업계 인력공급 채널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적 문제해결 능력 및 컴퓨터 활용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글로벌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Q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대학 평생 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관련 사업 개요와 현황은?

A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이 2016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기존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합, 개편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했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령기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선 취업, 후 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첫해부터 3년 연속 선정되어 총 56.7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을 설립한 후 새로운 학사제도인 온·오프라인 수

업방식인 'TBL(Trippl Blended Learning)* 수업방식', 4학기제 운영, 재학 연한 완화, 학업이수 능력 평가제, 집중학기제 등을 도입하였고, 지원 받은 사업비로 TBL 수업방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튜디오 및 TBL 전용강의실과 교육지원시스템(LMS) 등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TBL(Trippl Blended Learning) 수업방식이란?**

- 한 교과를 3종의 수업방식으로 행하는 혼합수업
- 3주 단위로 진행
- ☞ Online(VOD or AOD): 사전 지식전달(1방향)
- ☞ 실시간 화상강의(Screen Casting): 출석허용(1.5 방향 소통)
- ☞ 출석수업: 실험, 실습, 팀워크, 토론식(양방향)

Q : 2019년도 미래융합대학 내 '공학계열학과 학부제 개편 신입생 모집'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우리 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는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헬스케어학과, 영미문화

학과, 문화예술학과, 벤처경영학과의 6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 융합기계공학과와 건설환경융합공학과를 통합하여 융합공학부로 영미문화학과를 영어과로 개편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특히 융합공학부는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24명,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를 86명 등 총 110명을 선발합니다. 입학 시 희망전공을 기입한 후 1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만 30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성화고졸 재직자의 경우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 졸업생, 일반고 직업교육훈련 위탁과정 이수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이수자로서 산업체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차는 서류심사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차는 면접심사로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전공적합성, 대입준비 성실도, 계속교육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 2인 1조의 다대일 면접을 진행하여 평가한 후 1차 서류심사 60%, 2차 면접심사 4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Q : “대학도 뭉쳐야 산대”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유기술 중소기업 이전'과 '창업 활성화'를 실현할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동북부 산학연 협력과 연구 클러스터 형성>을 서울과학기술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 관련 대학 조직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총장제를 도입하여 연구·산학부총장이 연구자의 연구와 지식기반 산·학·연협력 지원을 위한 연구 기획의 조정, 연구관리 및 성과 확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획기적인 연구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R&D 재원 확보를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 차원의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R&D 활성화 방안, 신성장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수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 기술경영촉진사업 선정 및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선도대학, 연구마을사업 선정, 특허청 지식재산선도대학사업 등 산학협력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하는 등 산학협력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으로 참여하는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을 통해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법령 개정 등의 문제로 무산되고, 2018년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단독형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지주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서울 동북부 산학협력 거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산학협력단과 창업지원단의 협력 체계를 통한 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지원, 정부사업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 역량 강화 등 공공기술 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리/서혜윤 · 사진/이재훈(모달리아니)



김종호 총장 Profile
 서울대학교 공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현)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현)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현) 서울테크노파크 이사장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협의회 교무학생분과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장
 지식경제부 전략기술개발사업 기술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장
 한국중합기계주식회사 기술부 대리

한국의 **궁** 宮

조선왕조 법궁

경복궁

■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곳으로, 조선 왕조의 법궁이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종묘, 성곽과 사대문, 궁궐 등을 짓기 시작하는데 1394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1395년에 경복궁을 완성했다.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을 가진 '경복(景福)'이라는 이름은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왕자의 난 등이 일어나면서 다시 개경으로 천도하는 등 조선 초기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경복궁은 궁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가 세종 때에 이르러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비로소 이곳이 조선 왕조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된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이 나 무너지게 되는데 조선 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지휘 아래 새로 지어진다. 경복궁 중건을 통해 조선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건청궁에서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이곳을 떠나 러시아공사관으로 가게 되니, 단청의 색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빈집이 되어 버리는 비운을 겪는다. 일제강점기 때 '중앙청'이라 불렀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내에 만들었으며 조선 왕조의 상징을 훼손하고 조선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으며, 정문인 광화문 또한 해체해 지금의 건춘문 자리 근처로 옮겨버렸다. 광화문은 이후 1968년 복원되는데 당시 남아 있던 중앙청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 원래 경복궁 건물들이 이루고 있는 선상에서 벗어나 삐뚤게 놓이게 되었다. 현재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복원 공사를 마치고 광복 65년을 맞은 2010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경복궁의 중심인 근정전을 만난다. 2층 월대 위에 장엄하게 서 있는 건물로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자 공식 행사나 조회 등에 사용한 건물이다. 근정전 월대 난간에는 주작, 백호, 현무, 청룡이 각 방위에 따라 새겨져 건물을 지키고 있다. 근정전 뒤로는 임금의 사무실이라 할 수 있는 사정전과 침실인 강녕전, 왕비가 거처하였던 교태전이 이어진다. 근정전을 바라보고 왼편으로 나가면 연희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경회루를 보게 된다. 인공 연못 위로 지어진 2층 누각 건물로,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 크기로도 또 아름답기로도 손에 꼽히는 건물이다. 경복궁에서 빠뜨리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이 교태전 아미산과 자경전 장생 굴



사진/임혜영





뜰으로, 굴뚝 원래의 기능적인 역할에 더하여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미학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한 작품이다.

광화문과 해치

광화문(光化門)은 경복궁의 정문이다. 지금은 그 앞으로 세종로가 뻗어 있어 정면에서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한때는 국왕과 문무대신이 수도 없이 드나들어 정문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했던 곳이다. 광화문이란 이름은 경복궁이 창건될 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1395년(태조 4) 태조는 정도전에게 완성된 경복궁의 사대문 이름을 지어 올리라고 명한다. 이에 따라 동문을 건춘, 서문을 영추, 북문을 신무, 그리고 남문, 즉 정문을 오문(午門)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그리 오래 사용되지 못하고 세종 때 광화문이라 바뀌어 오늘날까지 줄곧 그렇게 불리고 있다. 광화문은 세 개의 홍예문을 낸 높은 석축 위에 문루를 올렸는데, 조선시대의 궁궐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것은 광화문이 유일하다.

근정전

경복궁의 법전인 근정전(勤政殿)은 동서가 짧고 남북이 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방의 회랑 중간에는 문이 하나씩 있어서 정전으로 향하는 통로 구실을 한다. 남쪽의 근정문(勤政門) 북쪽의 사정문(思政門) 동쪽의 응문루(隆文樓) 서쪽의 응무루(隆武樓)가 바로 이들이다. 그중 근정문은 근정전의 정면 남쪽에 위치한 법전의 주 출입문으로 근정전의 정문이 된다. 1395년 경복궁이 창건될 때 함께 세워졌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것을 고종 4년(1867)에 중건하였다. 근정문은 근정전과 더불어 왕위 즉위식을 비롯한 왕실의 행사가 치

러지던 곳으로, 왕이 승하하면 왕세자는 근정문에서 즉위식을 하고 근정전의 옥좌에 오르곤 했다. 근정문에서 즉위식을 치른 역대 국왕으로는 단종(1452), 성종(1469), 명종(1545)이 있다.

사정전

임금이 평소 일상 업무를 보던 공간이다. 사정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집이다. 벽체를 흙벽으로 막지 않고 사방의 칸마다 네 짝 분합문이나 창을 달아 처리한 점이 눈에 띈다. 보온에는 불리하겠지만 냉방에는 효과적이었겠고, 창호지에 걸려진 빛이 사방에서 비쳐들어 내부는 언제나 명랑했을 듯싶다. 사정전 내부에는 사방 모두 창을 달아 항상 밝은 빛이 들어온다. 내부 중앙 고주 상벽에는 왕을 상징하는 운룡도가 그려져 있다. 바닥에는 온돌이 아닌 우물마루가 깔려 있다. 이로 보아 사정전은 사철 언제나 사용하던 공간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사정전의 부속건물인 동쪽의 만춘전(萬春殿)과 서쪽의 천추전(千秋殿)에는 구들이 놓이고 온돌이 깔려 있는 것을 통해 겨울에는 이곳에서 집무를 보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두 건물은 중앙에 대청이 있고 좌우로 방이 있는 구조로, 이 좌우의 방을 덥히기 위해 구들을 놓은 것이다. 두 건물의 동서쪽 기단에 뚫린 구멍이 바로 아궁이이고 굴뚝은 뒤편 처마 끝에 바짝 붙어 있다. 이로써 천추전과 만춘전이 사정전과 연결되어 왕의 일상적인 집무실인 편전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회루

국왕이 사신을 접대하거나 공신을 위한 연회 장소로 사용한 일종의

영빈관이었다. 경회루는 조선 초기에도 몇 차례의 수리가 있었다. 세종 11년(1429)에는 경회루의 창건에 가까운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성종 6년(1475)에는 경회루 돌기둥에 용을 조각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토록 화려하고 장대했던 경회루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가 고종 4년(1867)에 중건돼 오늘에 이른다. 궁궐의 주요 건물의 구조와 배치가 그러하듯 경회루 또한 동양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주역과 음양오행의 원리로 구성돼 있다. 경회루는 남북 113m 동서 128m의 연못 속에 세워진 2층 누각으로 정면 7칸 측면 5칸, 총 35칸 규모이다. 2층에는 마루를 깔았는데 바닥은 높이가 다른 3단으로 나뉘어 있다. 중앙의 3칸이 가장 높고 이를 둘러싼 12칸이 그 다음이며 외곽의 20칸이 제일 낮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임금의 자리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단계에 따라 신분과 지위에 맞게 참석자들의 자리가 정해진다. 높이가 달라지는 경계 구역에는 한 번 짚어서 들어올리는 분합문을 달았는데 문짝을 모두 들어올리면 특정한 하나의 공간이 되고 그 공간은 자연에까지 확장된다. 개방과 폐쇄가 자유로운 구조일 뿐더러 분합문을 설치해 필요에 따라 공간을 분할해 활용하는 공간 효율을 높였다.

경회루에는 열른 눈에 띄지는 않으나 음미해볼 만한 것이 적잖다. 다락 아래 우물반자를 수놓은 꽃단청을 올려다보면 그 아름다운 되풀이에 잠시 현기증이 인다. 누각 외진주의 가장자리와 창방을 장식한 낙양각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롭게 주변 경치를 네모진 틀 속에 고정시켜주는 살아 있는 액자이다. 또 돌다리와 돌난간 엄지기둥 위의 동물 조각은 근정전 월대의 서수들과 닮아 어진 심성이 은근하다. 물에 뿌리를 내린 기단의 서쪽에는 배를 타기 위한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경회루 연못에 배를 띄웠다는 사실이 긴가민가하던 궁금증을 풀어준다. 지금 걸려 있는 경회루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 제자 가운데

뚝으로 꼽히는 위당 신헌의 작품이다. 경회루 서북쪽 연못가에 육각의 하향정(荷香亭)이 있다. 이승만이 대통령 시절에 낚시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던 곳이라고 한다. 경회루는 국보 제224호이다.

강녕전

국왕의 처소로 쓰이던 건물로, 강녕전 앞 월대는 왕실 가족이나 측근 관료들과 함께 사적인 행사 시 사용되었을 것이다. 강녕전은 태조 4년(1395) 경복궁을 창건할 때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고종 2년(1865)에 중건된 강녕전은 1876년(고종 13)에 또다시 소실되어 1888년(고종 25)에 재차 복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때의 강녕전도 1917년에 불타버린 창덕궁 내전을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1918년 일본인에 의해 월려 창덕궁의 회정당을 짓는 데 쓰이고 말았다. 현재의 건물은 1996년에 복원된 것이다.

교태전과 아미산

강녕전을 돌아들면 동서로 긴 행각을 거느린 양의문(兩儀門)이 있다. '兩儀'는 동양에서 우주 운행의 기본 원리라고 믿어온 음(陰)과 양(陽)을 가리킨다. 이 문을 들어서면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交泰殿)이다. 교태전은 궁궐 안에서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왕비가 머무는 곳일 뿐 아니라 왕비의 고유 업무인 내명부(內命婦)를 다스리는 일을 비롯해 궁궐 안의 여성문제를 총괄하고 왕실의 각종 업무를 주관하는 집무 공간이기도 하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이면서 내명부를 비롯해 왕실의 각종 업무를 주관하는 공간이다. 교태전은 세종 22년(1440) 무렵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고종의 경복궁 재건 당시에 중건되



었다. 하지만 이때의 교태전도 1917년의 화재로 소진된 창덕궁의 내전 전각을 중건한다는 구실로 헐려 창덕궁 대조전의 부재로 쓰였다. 현재의 교태전은 1994년에 복원한 것이다.

강녕전과 비교해볼 때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 점은 서로 같지만 교태전에는 월대 대신 정면 가운데 세 곳에 계단을 시설한 것이 다르다. 또 부속건물도 강녕전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교태전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뒤로 이어져 있어 공간 활용이 강녕전보다 훨씬 내밀한 점이 사뭇 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점은 교태전에만 있는 여성 전용 공간-뒤뜰의 화계(花階)인 아미산(娥眉山)의 존재일 것이다.

교태전 뒤뜰에 나지막하게 자리한 아미산은 산이라고는 하지만 경회루 연못을 파면서 나온 흙을 이용해 쌓은 인공시설로 사실은 작은 둔덕에 불과하다. 규모로만 보자면 전혀 이름과 어울리지 않지만 이 작은 동산에 담은 옛 사람의 뜻을 음미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백두산에서 뿔내린 백두대간의 줄기가 한복정맥으로 이어져 마지막 막으로 북한산에 닿고, 그 아래 백악으로 연결되어 신령한 정기가 여기 아미산에 앉는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모에 상관없이 아미산의 의미는 사뭇 깊고 크다.

향원정

경회루가 국왕의 공식 연회 장소라면 향원정은 휴식이나 풍류를 즐기던 사적인 공간이었다. 섬의 남쪽으로는 취향교(醉香橋)가 놓여 있다. 돌로 만든 교각 위에 가설돼 있는 나무다리이다. 원래는 섬의 북쪽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1953년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지금도 섬 북쪽 가장자리에는 예전 다리의 석축이 남아 있다. 취향교가 북쪽으로 연결되었던 이유는 향원지 북쪽에 건청궁이 있었기 때문이다. 취향교는 원래 건청궁의 침전인 장안당(長安堂) 일곽에 속해 있었다.

향원정은 임금이 휴식과 풍류를 즐기거나 신하들과 간소한 시회를 즐기던 곳이다. 1층에는 구들을 들어 난방이 가능하고 2층은 마루를 깔았으며 아래위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온돌의 흔적으로 1층 서쪽에 작은 아궁이가 남아 있다. 2층 천장에는 주작을 그려넣어 작지만 화려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1층과 2층 난간의 구조가 다른데 특히 2층의 난간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면마다 네 짝씩 원자살창을 달아 멋을 내었으며, 모지방 건물에 흔히

그렇듯이 추녀마루가 모이는 지붕 꼭대기에는 절병통을 얹어 치장하였다.

건청궁

경복궁 안에 있는 궁궐로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곳이다. 1873년 고종이 사비를 들여 짓기 시작하여 1884년부터 기거하였다. 1887년 국내 최초로 전기가 가설되었으며, 1909년 완전히 헐렸다가 2007년 복원되었다. 1873년 고종이 경복궁 중건을 마무리하면서 국가 재정이 아닌 내탕금(왕의 사비)을 들여 궁궐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짓기 시작하였다. 이 해에 고종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종식하고 친정을 선언하였는데, 이 때문에 건청궁 건립은 고종이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되기도 한다. 고종은 1884년부터 이곳에서 기거하면서 정무를 처리하였다.

고종의 서재로 쓰인 집옥재(集玉齋)는 전통 한옥이 아닌 중국식 벽돌로 지어졌으며, 집옥재 옆에는 전통 시계인 자격루 대신 서양식 시계탑이 들어섰다. 또 장안당 뒤쪽의 관문각은 외국 외교관들을 접대하

는 장소로 활용되었는데, 완전한 서양식 건물로 지어져 양관(洋官)이라고도 불렸다. 1887년에는 조선 최초로 전등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궁정 설비보다 2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건청궁은 이처럼 신문물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도모한 산실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근대화 의지가 외세에 의하여 꺾인 곳이기도 하다. 1895년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 건청궁 안의 곤녕합(坤寧閣)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명성황후의 시신은 옥호루(玉壺樓)에 잠시 안치되었다가 건청궁의 뒷산인 녹산에서 불태워졌다. 고종은 아관파천 후 건청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주인을 잃은 건청궁은 1909년 완전히 헐렸다.

광복 후 건청궁 자리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워졌고, 동쪽에 명성황후가 난을 당한 곳이라는 뜻의 '명성황후조난지(明成皇后遭難之地)'라는 표석과 함께 당시의 참상을 그린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다가 2007년 복원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사진/임혜영



한국IBM 장화진 대표이사

세계 IT의 역사. 미래기술의 보고. IBM

■ 지난해 한국IBM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7년 우리 정부가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해 국내 최초의 컴퓨터인 IBM 1401을 들여온 이래 한국 IT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다. IBM 컴퓨터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최초 가동된 이후 국가적 대형 이벤트에는 언제나 IBM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은 IT와 동일한 의미였다.

IBM은 과거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이었다. 1911년 창업했으니 올해로 107년의 역사를 지닌다. 그들도 한때는 '전세계 컴퓨터는 5대로 족하다'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고객을 따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현재를 개혁하면서 IT산업의 중심에 섰다. 근래 IBM의 활약상은 이제 그 자신이 미래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미 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의 최첨단에 있으니 말이다. IBM은 1990년대 이후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려 솔루션과 서비스에 집중해왔다. 그리고 2000년대 전세계 top 10 IT 서비스 컨설팅 비즈니스기업 중 하나로 변모하였다.

최근 한국IBM은 코그니티브(cognitive)와 클라우드 기반 기술에 그 변화의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한국IBM 최초로 외부경영인을 영입하여 다가 올 50년의 출발을 알렸다. 4차 산업혁명 진입이라는 전환점에서 한국IBM을 이끌어갈 장화진 대표이사 사장을 여의도의 IFC에 위치한 본사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IBM 역사상 최연소 CEO이기도 하다.

Q : 한국IBM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더불어 최신 소식도 궁금합니다.

A : IBM은 2년 전부터 클라우드와 코그니티브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장 최근엔 블록체인 기술을 B2B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각도로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우선, 인공지능의 경우 작년 9월에 한국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현대카드 챗봇, 롯데백화점 쇼핑 어드바이저와 같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한국어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인공지능 B2B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진행했습니다. 2년 전 알파고 열풍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

해도나 관심이 높아져서 문의가 급증했고, 프로젝트 금융 및 법조계는 물론 많은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변화가 아직 많지는 않아요. 정책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이 둘을 엮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ICP(IBM Cloud Private)라는 관련 솔루션을 따로 출시를 했죠. 이게 인기가 많아요. 프라이빗클라우드환경에서 다른 어떤 클라우드와도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B2B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IBM은 2년 전부터 클라우드와 코그니티브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장 최근엔 블록체인 기술을 B2B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각도로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우선, 인공지능의 경우 작년 9월에 한국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인데, IBM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프라이빗 또는 퍼미션드(Permissioned)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누군가 블록체인을 만들면 동의나 초청의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들끼리 이용하는 기업용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물류라든지 유통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면 암호화폐(Cryptocurrency) 없이도 원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전세계적으로 6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비록 많은 부분이 POC였지만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져 네트워크를 이룬 사례도 많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IBM만큼 경험이 많은 회사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세계 1위이고 그 역량으로 국내에서는 코스콤,



KEB하나은행 등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유통, 물류, 금융 등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죠. 심지어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실제 적용사례가 있습니다.

Q : 인공지능에 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왓슨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A : 저는 무한대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의료계나 금융업계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률, 세무뿐만이 아니라 음악, 요리, 패션디자인, 영화에도 왓슨이 사용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미 쓰이고 있

고 점점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IBM이 차별화되는 게 왓슨 솔루션과 구축 컨설팅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컨설팅, IT서비스, 파이낸싱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응용프로그램처럼 설치 개념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의 개념이에요. 인공지능 구축 컨설팅은 GBS(Global Business Service)라는 IBM 컨설팅 조직에서 주도하는데 저희는 인공지능 개발을 B2B 관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산업적 경험을 글로벌하게 많이 축적해 놓았고, 한국IBM도 필요하면 글로벌 인력과 협력해서 한 팀으로 프로젝

트를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IBM의 역량이고 우위에 선점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장화진 대표가 기억하는 IBM은 어릴 적 커서와 함께 깜빡이던 PC였다. 정작 그 자신도 한국IBM의 대표이사 사장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많으며 놀라워했다. IBM이 저울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다. 저울로 잰 무게로 물건의 가격을 알 수 있게 자동화 하는 기술적 혁신을 이루는 것을 시작으로 셀렉트릭타자기(Selectric : 과거 전세계 사무직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 일대 변혁을 일으킴)에서 골프 공, 플로피디스크, 바코드에 이르기까지 IBM은 인류를 위한 기술 발전을 견인해왔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해 온 IBM에 대해서 장화진 대표는 말한다. “이미 잘하는 사업이라도 그 사이클이 다 했다고 여기면 과감히 버리고, 미래의 비즈니스를 준비합니다. 현재와 동시에 사업의 미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IBM은 인공지능에서 지난 50년 동안 연구와 투자를 해왔습니다. 알파고 이전에 IBM의 ‘딥블루(Deep Blue)’가 1997년 체스대회에서 승리했던 건 역사적 사건이었죠. 물론 이때 사용된 슈퍼컴퓨터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 규칙을 프로그래밍 한 것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건 2011년 <제퍼디(Jeopardy!)> 퀴즈쇼에서였다. IBM은 이 퀴즈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이해하고 학습하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면서 다음에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고 한다.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 그것은 바로 ‘암 연구’였다. 2013년도에 ‘왓슨 포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라는 솔루션을 발표했는데 국내에는 2016년 12월 길병원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전국 11개 병원에서 도입하여 암 진단에



활용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가운데 ‘다음(Next)’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BM이 생각하는 ‘다음’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클라우드, 코그너티브, 블록체인으로 4차 산업의 변곡점에 이미 와있어요.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IBM은 당장 4~5년 내에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ing)를 꼽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알려진 바는 많지 않아요. 저희랑 구글 정도가 선두주자인데 IBM이 작년 11월에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시범 운영했고 지금은 20큐비트 정도의 상업용 ‘IBM Q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세계 여러 대표기업을 모아 그 가능성을 실험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기술을 만들어내고 기술이 또 인재를 낳는다. “IBM은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미래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 포트폴리오는 계속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큐비트’는 양자컴퓨터 정보의 기본단위예요. 양자비트죠. 양자컴퓨팅은 퀴텀을 써서 모든 것을 병렬 처리하는 만큼 어떤 분야에 있어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되게 빠릅니다. 현재 방식을 뒤집어놓는 거죠. 속도 면에서 엄청 빨라서 지금의 모든 암호화 키들을 양자컴퓨터로 쓰게 되면 몇 시간 만에 다 풀 수가 있어요. 시대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으로 보는데 이미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독일 다임러가 자율주행차 소재와 제조방법으로 연구 중이고, 전혀 다른 분야인 JP 모건은 금융 포트폴리오나 리스크 관리관점에서 연구 중이에요. 또 재료화학, 제약업종도 양자컴퓨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건 사실 블록체인이나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격변을 가져올 겁니다.”

Q : 장화진 사장님은 지난 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감사합니다. 과거 IBM을 떠올리면 몸집 큰 IT 공룡이다 싶었는데 지금은 안에 들어와서 보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양자컴퓨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온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50년 전부터 연구해온 것처럼 양자컴퓨팅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연구해오다 이제 현실화 단계에 오른 겁니다.

IBM은 기술회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고객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고 선도기술을 소개하며 좋은 가치들을 전달하면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IBM의 기술력이 너무 좋고 그 기술을 국내기업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재미있고 즐거워요.

Q : 어떤 경영인이 되고 싶으세요?

A : 저는 모든 일들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재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인, 경영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 IBM에 들어서 인사관리 관련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 문은 늘 열려있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언제든지 할 얘기가 있으면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직원들과 격의 없이 식사도 합니다. ‘Andrew’s BOBB’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여기에 사용된 ‘BOBB’이 ‘밥’이라는 고유의 의미도 있지만 IBM 컬러가 푸른색이라 ‘Band Of Big Blue’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과 같이 점심, 저녁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피드백을 듣고 그래요.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건, 항상 배울게 있다는 거죠. 직원들과 기업의 방향성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직원들 격려도 하며 자랑스러운 IBM인으로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사업도 잘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Q : 5년이 아니라 그 이후 IBM이 생각하는 미래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요새 IBM에서 리서치를 활발하게 하는 '트루노스칩(True North Chip)'이라는 인간의 신경조직을 모델링 해서 만든 칩이 있습니다. 인간처럼 저전력으로, 가령 작은 보청기 수준인 20와트 정도로 작동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답블루'는 사실 작은 도시를 돌릴만한 전력이 필요했거든요. 또 소금 알갱이 크기인데 486컴퓨터 성능을 제공하는 소형컴퓨터 라던지, IoT 기술을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를 관리하는 기술을 제약회사 화이자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등 많은 미래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IBM의 특징이 연구개발 투자와 원천기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저희처럼 나오겠어요? 이윤추구를 목적으

로 하는 기업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나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IBM 이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개발 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신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언젠가 저희가 사업에 활용할 대안이 되고 고객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퀀텀컴퓨팅, 트루노스칩, 이런 겁니다.

Q : 한때 한국IBM에 몸담았던 분들이 국내 IT 분야 각계에 계십니다. 인재사관학교였다는 평가도 있어요. 최고경영자(CEO)급만 250여 명에 이른다는데,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에 관하여 자유로운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A :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협력사나 고객사에 한국IBM 출신 인사들이 많이 계세요. CEO도 계시고 CIO도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한국IBM 역

사가 50년이 넘으니까 그동안 배출된 분들이 그 자리까지 오르는 데에는 IBM의 문화와 교육체계가 많이 기여한 것 같습니다. IBM은 굉장히 열려 있는 문화예요. 어떤 한 분야에 입사했다고 해서 그것만 해야 하는 건 아니예요. 본인 관심사에 따라 다른 분야로 옮길 수가 있고, 해외에서 역량을 키울 수도 있어요. 또 IBM이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경력을 쌓으면서 분야를 옮긴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각 분야 경험을 고루 갖췄기 때문에 IT업계에 나가면 기업의 CEO 자리에 오를 역량이 되는 거지요. 온·오프라인 사내교육도 체계화가 되어 있어 나중에 한국IBM을 떠나더라도 충분히 다른 기업의 CEO 역량을 갖추는 것 같아요.

Q : 대표님 글 중에서 '뉴 칼라'에 대한 언급을 봤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 미래인재는 어떤 방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 4차 산업시대로 진입한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비롯하여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인재들을 블루칼라, 화이트칼라가 아니라 '뉴칼라'라고 부릅니다. 디지털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그런 인재가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IBM이 주도하여 설립한 6년제 '피테크학교(P-TECH School)'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IT, 기술, 과학, 수학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졸업할 때쯤이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됐다 싶어 IBM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인재들이 4년제 대학 학위가 없이도 4차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피테크학교는 지금 모로코, 호주, 타이완에도 설립했고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에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정부와 논의 중입니다.

장화진 대표는 삼성SDS에서 글로벌사업본부장, 두바이 주재 EMEAI(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지역총괄, 스마트타운사업부, 분석 IoT사업팀 총괄 등을 역임했다. 학창시절에는 수영과 사이클링, 스쿼시를 즐겼던 만능스포츠맨이었는데, 특히

프린스턴대학교 항공우주와 기계공학을 전공한 인재답게 경비행기 운전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지금은 금지된 뉴욕 맨하튼 하늘을 날았던 적도 있다. 최근에는 골프가 좋아졌다면서 연습에 몰두 중이라고 한다.

IBM은 올 하반기 서울에 블록체인 개라지(Garage)를 오픈한다는 소식이다. 전세계 9개 도시에 이와 같은 시설을 갖고 있으며 서울이 10번째가 될 전망이다. IBM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발자 관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IBM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BM은 한국을 중요한 IT시장으로 인지하고 있다.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보면 한국IBM의 매출은 그리 크지 않지만 한국 고객들은 요구사항과 기대수준이 높고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장화진 대표는 말한다. "한국 고객들은 기술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 이해도도 높습니다. 한국 고객과 프로젝트를 하면 전세계 어딜 가도 프로젝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IBM의 미래를 '기술력과 사람'이라고 본다. 인재가 기술을 만들어내고 기술이 또 인재를 낳는다. "IBM은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미래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 포트폴리오는 계속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6월의 어느 여름날 우리 모두는 다가올 미래를 만나고 왔다.

정리/이매자 · 사진/모델리아니



장화진 대표이사 Profile
 프린스턴대학교 항공우주, 기계공학과학사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기계공학석사

현) 한국IBM 대표이사
 전) 애지일소프트웨어 아시아 태평양 총괄부사장
 삼성SDS 글로벌사업본부본부장, 상무
 삼성SDS 유럽중동아프리카인도(EMEA)지역총괄 전무
 삼성SDS 스마트헬스케어사업팀팀장, 전무
 삼성SDS 스마트타운사업부사업부장, 전무
 삼성SDS 분석IoT사업팀팀장, 전무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이사

日日新又日新,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세상을 열다

어느 분야든 '1호' 타이틀은 그 의미가 남다르기 마련이다. 최초, 시도, 의지, 도전, 신념 그것을 얻지 못한 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조차 생겨난다. 물론 때로 껍데기뿐 일 때도 있지만 말이다. 여기 '1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업이 있다. 헬스케어 전문회사 비트컴퓨터가 그 주인공이다. 병·의원 솔루션에서부터 약국 솔루션, 디지털헬스케어와 공공보건에 이르기까지 의료 정보 분야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컴퓨터는 1983년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조현정 회장이 직원 2명과 호텔 객실에서 창업한 회사다. 당시만 해도 여느 사무실은 냉난방이 문제였고 밤늦게까지 일할 환경도 못됐기 때문에 호텔 창업은 일종의 자구책이었다. 그렇게 벤처기업 1호이자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1호, 의료정보회사 1호인 비트컴퓨터가 역사적 첫 발을 내디뎠다.

“한 분야에 매진하여 30년 이상 지속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벤처, 또 중소기업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 길은 넘보지도 않고 정도 경영을 고수해 온 것에 기업인으로서 큰 자부심도 느낍니다. 저희는 지금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인드입니다. 이것은 후배들,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작은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기업 환경과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지속가

능한 경영도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 됐지만요. 하지만 그보다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에 몰려 안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척과 도전'의 생각으로 역동적인 힘을 지닌 젊은 세대가 창업 마인드를 확산해간다면 개인에게도 기회가 생기고 국가적으로도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강남역 인근 마천루의 위용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 사이로 푸른 유리 외관의 비트빌이 서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층이지만 안정감 있는 외형과 투명함이 비트컴퓨터의 시간과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승강기에서 내려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주전자 그림 속 한 남성이 방문자를 응시한다. 순간 예서의 초현실적 왜곡을 떠올렸지만 전혀 닮지 않았다.

사무실 곳곳에는 크고 작은 유화들, 조형물들이 갤러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벽면과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그 그림 속 컬러들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사무실을 밝게 만들어 주었다. 외부로 난 창이 초록을 들여놓고 있는 대형 회의실에서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이사를 만났다.

비트컴퓨터의 주력사업은 자체적으로 네 부문으로 정의한다. 먼저 헬스케어 영역에서 의료정보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부문 그리고 두 부문을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사업부문으로 나눈다. 여기에 상업 활동과는 무관하게 사회공헌 차원의 IT 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이 비트컴퓨터를 여느 IT기



업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해외 진출현황은 가장 오래된 태국을 비롯하여 13개국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태국의 36개 병원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 주로 분포해있다.

사업적 측면에서 비트컴퓨터는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Bitnix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에 주력해오던 것에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EMR인 '클레머(CLEMR)' 제품을 2017년 하반기에 출시하여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제품 중에는 특히 '비트 U Chart'가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외 의료정보 솔루션 '메디전트'와 '드럭인포(Druginfo)'는 시장 점유율이 70%를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문에서는 'BITCare Plus'라고 원격진료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솔루션 BITCare Station은 부스형 원격진료 시스템으로 시범사업 중이며 최전방 부대처럼 인프라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설치해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할수록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즉, U-헬스케어는 원격진료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원격 만성질환 관리, 건강관리 등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 선진화 할수록 의료분야 투자는 많아지고 관심도 높아질 겁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이동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찍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이런 요구들에 비해 아직 시작 단계다. 업계와 의료계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요구는 선진화하는데 의료 서비스 상용화와 활성화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비트컴퓨터는 현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의료 서비스와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지난해 말 기준 870여 곳에 레퍼런스를 구축하였다. U-헬스케어 의

료 서비스 시장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국내에서 가장 준비가 잘된 기업으로 자신하는 이유다.

비트컴퓨터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은 사회적 공헌 부분이다. 회사의 주력사업 가운데 교육부문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1990년 설립한 비트교육센터는 상위 1%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을 목표로 높은 레벨의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한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입학 또한 까다로우며 28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배출해왔다. 컴퓨터 공학이

비트컴퓨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EMR인 '클레머(CLEMR)' 제품을 2017년 하반기에 출시하여 시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비트 U Chart'가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외 의료정보 솔루션 '메디전트'와 '드럭인포(Druginfo)'는 시장 점유율이 70%를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나 전산을 전공한 대학생,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고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배출된 인력이 전문가 과정만 8천 7백여 명에 달하고, 국내만 해도 IT 관련 기업 곳곳에 비트교육센터 출신의 인재들이 포진하여 그 실력을 발휘 중이라고 한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의 대표이사도 비트교육센터 출신이라는 점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Q : IT 교육센터 등 사회적으로 남다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에 대한 기업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 비트교육센터는 설립 이후 28년 동안 22년 적자를 내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도 '일개 중소기업이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인력을 양성해야 하느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요, 교육은 이해타산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업에게는 사회적 역할이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필요한 IT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비트 컴퓨터가 하자고 했고 여기까지 온 거죠. IT교육을 통해서 업계와 산업이 발전하고 또 그것으로 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Q : 우리 ICT기술 경쟁력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종종 듣습니다. ICT기술 경쟁력을 위한 방향성, 변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A :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 현재를 개선하려는 혹은 미래를 개척하려는 절박함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우리 규모나 여건, 인력조건들을 봤을 때 ICT 산업 전 분야를 경쟁 대상화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ICT산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요. 특히 선진국을 예로 들면서 그들 분야마다 비교하는 건 곤란합니다. 독일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 잘 적용된 산업구조죠. '인더스트리 4.0' 안을 들여다

보면 독일이 모든 분야에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의 강점은 '역동성'이었어요. 전 세계의 '테스트베드'로써 새 기술이 가장 빨리 도착하고 보급되고 확산되는 매력 있는 구조였지요. 그런 풍토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AI등 산업 내 기술 투입이 원활할 있도록 규제의 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비트 컴퓨터의 경영철학은 정도경영입니다. 기업의 모토에 더하여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경영철학, 기업정신은 무엇입니까?

A :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만, 저희는 정도경영을 강조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 기업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이런 정신을 이어가기 쉽지는

않지만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매번 긴장하면서 채찍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Q : 앞으로 10년 기업의 로드맵을 소개해주세요. 더불어 기업의 미래 비전은 무엇입니까?

A : 미래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다각화로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의료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바라보는 길이 있을 텐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우리 솔루션과 전문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발전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또 저희가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것이 10년, 20년 후의 비전입니다.

Q : 최근 남북한이 평화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과거 '북한 IT교류 협력업체 1호'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 한 때 북한 관련 이슈는 금기였죠. 최근에는 평화 분위기로 전환되고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협력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창업주 조현정 회장이 2001년 2월 인민대학습당에서 북한 IT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IT혁명과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죠. 그 인연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 교류를 재개한다면 그 발전 가능성과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A : 북한과는 사업 협력적인 면에서 우리 본연의 두 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는 먼저 북한 주민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인프라는 좀 부족하겠지만 I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IT기술이란 것이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잖아요? 기술로써 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계층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 북한 의료를 한 발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



니다. 그리고 저희가 쌓아 왔던 의료정보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면 북한의 의료 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IT교육과 인력 양성입니다. 북한은 예상컨대 응용 기술에서 굉장히 취약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초기반 기술은 일정 수준을 갖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본적인 알고리즘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IT경험과 지식을 배경으로 북한 개발자들과 함께한다면 아주 좋은 협력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같은 언

어를 쓴다는 건 큰 장점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 교육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역할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컴퓨터는 창업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선도벤처사업의 일환으로 헬스케어나 IT관련 신생기업들의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여 멘토로서 창업을 돕고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본사 건물 지하에는 '비타임'이라고 스타트업들이

교육은 이해타산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업에게는 사회적 역할이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필요한 IT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비트컴퓨터가 하라고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협력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동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다. 강남이라는 지역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자금력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은 걸 감안해 비트컴퓨터 측에서 마련한 공간이다. 기업 간의 상생과 네트워크가 그 목표다. 전진욱 대표는 군대 시절 보았던 '점을 찾아 선을 잇는'이라는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다. 스스로 점으로 여기고 '앞과 뒤'를 잇는 중간자의 역할이 바로 자신의 소명이라는 설명이다. 설명을 듣자니 비트컴퓨터라는 기업 그리고 전진욱이라는 경영인이 서로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지점이었다.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루는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어요.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어제 보다 낮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행복하려면 내일을 위한 희생도 하고 참고 견디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하고 실수가 있었다면 자기 습성들을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 낮게 새로워질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만나는 사람 모두가 롤 모델이다. 그들로부터 영향 받고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즐겁다. 그는 또 평소에 걷기를 즐겨 해서 두 정거장 정도는 거뜬히 걸어 다니고 등산으로 건강도 챙긴다. 독서량이 상당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 가운데 좋아하는 책이 있는 지 물었다. 본인은 “필요에 의한 책읽기라 알릴만한 건 없다”면서도 특별히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과 <책은 도끼다>를 추천해주었다.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좋은 영감을 줬던 책이라는 설명을 곁들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펼쳐보고 싶은 호기심이 든다. 매일 새롭고 가치 있는 역사를 쌓아가는 비트컴퓨터, 그 홍보 문구처럼 '비트컴퓨터의 1호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남이었다.

정리/이매자 · 사진/이재훈(모델리아니)



전진욱 대표이사 Profile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학부 학사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정보시스템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 박사

현)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KOHEA) 이사
현) (주)비트컴퓨터 대표이사 사장
현) (사)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전) (주)비트컴퓨터 기술연구소장 상무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시간컴퓨팅연구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소프트웨어공학연구실장
미국 NTEC 연구소(위촉연구원)

한국HPE 함기호 대표이사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

■ 오전 9시 정각 인터뷰 약속을 잡아 한국HPE 본사가 입주해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여의도의 한 건물을 찾았다. 세련된 인테리어에 넓은 공간이 인상적인 한국HPE로 들어가자 로비 입구에서 정장 차림의 누군가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마트한 외모인 그는 바로 함기호 대표이사였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약속이 생겨서 인터뷰 시간을 30분 앞당겼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그와의 인터뷰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다. 그것을 30분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부터 사과하던 함 대표이사는 로비로부터 ‘한참 밖’의 거리에 자리한 회의실로 안내를 했다. 이때 잠깐의 만남에서 그의 타인에 대한 깎듯함과 배려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일행을 기다리면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던 자리에는 미리 보내진 질의서가 놓여 있었다. 질의서의 질문마다에는 깨알같이 정리된 글귀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술, 네 좋아합니다. 술자리도 좋아하고요. 영업상의 이유가 아니어도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마셔도 한자리에서만 하고, 담배는 절대로 피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모든 종목을 다 좋아합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요즘은 골프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걷는 것으로 모든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등산이 아니라 트래킹입니다.”

1961년 생으로 이순을 바라보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그는 40대 초반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비결을 ‘소식’과 ‘차(次) 순을 변경하면서 마시지 않는 절제된 술버릇’에 두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나니 그의 절제력이 놀라웠다.

“좌우명 혹은 자주 인용하는 명언이나 글귀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기보다는 즐기면서 하라’, 입니다. 글썬요, 제가 <논어> 이런 고전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乐之者(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일을 즐기는 자는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만약 한 달 간의 휴가가 주어지고 그때 딱 한 권만을 가지고 갈 책을 고르라면?”

“초등학교 때 재미있게 본 책이 <대망>입니다. 이 후부터 저는 심독보다는 속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련 전문 서적이거나 새로 나온 책들도 속독을 하는 편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을 권하라면 웅진 윤석금 사장님의 <사람이 힘>을 선택하겠어요. 세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이거든요. 저 역시 비즈니스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업무 외에 즐기는 것이 있다면?”

“그냥 멍 때리는 것입니다.”

“그냥 멍 때리는 것입니까?”

“네,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순간은 충전의 시간도 되고, 새로운 계획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추구하는 경영철학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세 가지로 구분해보면 첫째, 회사는 단거리 경주를 하는 곳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하는 장소로 여기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는 지구전이 필요해서 코스마다, 구간마다 전략도 다르게 세우고 때에 따라서는 페이스메이커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일을 단거리 경주라 생각하면 순간순간 비참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둘째는, 저의 전임으로 영국HP 사장을 지낸 분에게 배운 것인데 ‘실적은 원인부터 이해하고 결과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는 전 사원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인 임원을 잘 뽑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직 그리고 적응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편안함 보다는 교육과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기호 대표는 많은 젊은이들의 롤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함 대표의 롤 모델은 누구인지요?”

“롤 모델이라기보다는 ‘멘토’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HP영국 사장 출신인 저의 전임 사장님입니다. 제가 2007년부터 한국HP 차기 대표로 경영수업을 받아 대표 자리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무렵 한국HP 대표로 오신 분입니다. 이 분은 한국에 오면서 ‘2년 내 물러날 것이며 한국 사람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HP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분이고 실제로 배울 것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약속을 지켰고 저는 2011년에 대표로 부



임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일과 저의 아들 생일이 똑같아서 때마다 카드도 보내고, 작은 선물도 챙기면서 여전히 조언도 받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제 인생 멘토가 계십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지내신 김형석 선생님입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 또 아직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국의 외국계 기업의 대표 모임인 KCMC에 초청강사로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건강, 행복, 지식, 그리고 낭만까지 골고루 다 갖춘 분으로 제가 본받을만한 분으로 주저 없이 꼽습니다.”

함 대표는 올해로 한국HPE 대표이사 8년 차에 들었다.

현재 HPE는 ‘세상은 바뀐다, 아이디어 이코노미다!’라는 슬로건 아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조직 혁신 프로그램인 ‘HPE Next’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HPE가 경쟁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체질 변화를 3단계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CEO를 8년씩이나 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에 놀랄 일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함 대표와 가진 1시간 30분 정도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그는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도 아쉬움이 남았는지, 혹은 시간을 앞당긴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회사 곳곳을 소개하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다음 약속시간 때문에 떠나야 할 순간이 목에까지 차올라 비서진의 애를 바짝 태우면서까지.



Q : 2011년 한국HP, 2015년 한국HPE의 CEO를 맡은 지난 8년간에는 ‘전 세계 HP 최우수국’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CEO로서의 소회와 주요 성과를 함 대표 스스로 꼽아본다면?

A : 저희는 회계연도가 11월입니다. 2011년 5월에 대표이사로 부임을 했으니 올해로 CEO 8년 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관한 소회가 없을 수 없겠지요. 저는 1997년에 한국HP에 입사를 해서 2007년까지는 세일즈와 마케팅을 총괄하면서 전략기획과 홍보 업무까지 관장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EO 부임 이전 4~5년 동안은 차기 CEO로서의 준비를 했고, 전체 영업을 총괄하면서 철저한 경영수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2년은 HP내 규모가 엄청난 영국 HP 지사장에서 한국HP 지사장으로 부임해온 분을 통한 내공 다지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 분이 파견되었을 때 CEO로서의 내 꿈이 사라졌다고 여겨 향후 진로를 변경할 결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2년 내에 한국 사람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떠날 것”이라 공언을 했어요. 이에 저는 HP 내에 영향력이 상당한 그 분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여겨 학습 기회로 삼

자고 마음을 바꿨어요. 실제로 그 분은 2년 후 저에게 한국HP 지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 숫자관리를 잘하는 것, 고객과 직원 그리고 협력사와 노조 간의 원활한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CEO로 부임한 2년 동안은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은 오로지 숫자로 대답하기를 원하는 미국 본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3년은 그동안의 경험과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데 주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8년차 CEO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지속가능한 시스템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에 진력할 것입니다.

Q : 4차 산업시대를 미리 준비해온 한국HPE의 놀랄만한 ‘비밀병기’가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HPE의 미래 주력사업 방향과 주력 제품, 그리고 선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 저희 글로벌 HP 본사는 2015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변화는 2011년부터 5년 기간의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으로 진행하겠다는 선언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HP를 지휘하던 맥 휘트먼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HP를 HPE와 HP INC 두 개의 회사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HPE는 기업 고객에게 서버·스토리지·네트워킹·장비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HP INC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PC와 프린터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본사의 이런 결정은 당연히 한국HP에도 영향을 미쳤고 2015년에 한국HPE와 HP코리아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리 후 한국HPE 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재 HPE는 '세상은 바뀐다, 아이디어 이코노미다!'라는 슬로건 아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조직 혁신 프로그램인 'HPE Next'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HPE가 경쟁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체질 변화를 3단계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단순화입니다. 판매 제품 종류를 40% 가량 줄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있던 생산 공장 17개를 7개로 줄이고 인수

합병 때마다 이리저리 붙었던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도 통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축적시킨 데이터들도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지요.

두 번째는 '효율성과 실행력 강화'입니다. 우선 의사결정 과정부터 줄였습니다. 기존의 3개 지역본부 체제를 폐지하고 대신 본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11개 지역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본사와 지역 말단사원 사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과정을 8단계에서 4단계로 절반이나 줄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160여 개에 달했던 지사를 절반 이하인 76개로 축소시켰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혁신입니다. 앞의 조치로 절감한 비용을 인력과 기술, 제품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HPE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변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기업 IT 인프라도 빠르게 대응해줘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IT는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IT 자산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IT 서비스와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연한 IT 인프라 구축방법이지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스토리

HPE는 컴퓨팅 하드웨어의 강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어떤 요소도 컴퓨팅 기술 없이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HPE의 역할이 커진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HPE는 이런 변화를 파악하고 컴퓨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찍부터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160 테라바이트(노트북 2만 대 처리 용량에 해당)인 일종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지나 서버를 최적화시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HPE는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 조직 '포인트 넥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만5000명에 달하는 전 세계 HPE 기술서비스 인력들이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IT 인프라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HPE에서는 총 인력 700여 명 중 10%인 70여 명이 포인트 넥스트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디지털화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넥스트는 다양한 기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는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SAP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아이디어 이코노미(Idea Economy)'라는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맥락입니다. 칼리 피오리나 전 HP 회장이 한 말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이 기업 IT 인프라의 핵심 역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디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IT 인프라를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하드웨어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이런 이면에는 컴퓨팅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물인

터넷 영역이 넓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컴퓨팅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문제는 업계의 고민입니다. HPE는 컴퓨팅 하드웨어의 강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어떤 요소도 컴퓨팅 기술 없이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HPE의 역할이 커진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HPE는 이런 변화를 파악하고 컴퓨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찍부터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저장 공간이 160 테라바이트(노트북 2만 대 처리 용량에 해당)인 일종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를 간단히 '더 머신(The Machine)'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5월에 이 머신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인간의 뇌처럼 빠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둘 사이의 연결은 신경세포가 담당합니다. 더 머신은 큰 메모리 풀(pool) 안에 CPU들을 에워싸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CPU 사이의 연결은 '포토닉 링크'를 사용합니다. 포토닉 링크는 HPE가 개발한 일종의 광전송 기술로 이미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호를 빛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구리선을 이용한 전송 속도보다 최대 10만 배 빠릅니다. 더 머신은 기존 컴퓨터보다 처리속도가 1만 배 이상은 빨라질 겁니다.

HPE 연구진은 미래화성탐사에 더 머신이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제품 개발을 지속해서 2020년까지는 더 머신을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Q : 2017년에 지금의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회사 속성상 해외 법인용 건물은 매입하지 않는데도 '고려파이낸스빌딩'을 달러로 결제하면서 매입을 하여 대단한 화제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지금의 여의도 한국HPE 본사 건물이 갖는 의



미는 어떤 것입니까?

A : 글썽요 아무래도 직원들 사이에 상실감 같은 것이 있었지요. 하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그 상실감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에 부동산 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회사 건물 소유 여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회의실이나 휴식 공간 확보 등을 통해 한국HPE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쾌적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Q : 외국계 회사 CEO 입장에서 작금의 4차 산업시대에 한국이 가장 선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 진단하시는지요?

A : 정부가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지나친 규제는 풀고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실적보다도 제도상의 지원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Q : 작년 3월에 임기 2년인 사단법인 (KCMC) 회장으로 피선되어 잦은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 펼치고 있습니다. KCMC, 어떤 단체이며, 회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가치를 두고 이후에 펼칠 역점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한국인 최고경영자 모임'인 <KCMC(Korean CEO's Associ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업 이슈를 갖고 정부와 협상을 하는 압력단체가 아닙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자원을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 나누고 한국 산업발전에 공헌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한 단체입니다. 회원들에게 걷은 연회비로만 운영되는 사단법인이고요.

1989년 외국계 기업 한국인 대표 7명이 만든 KRA(Korean Representatives Association)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IT, 금융, 자동차, 소비재, 헬스케어,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CEO 1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장 임기는 2년이고 저는 17대입니다.

KCMC는 글로벌 경제 현황과 경영 이슈에 대해 국내 기업 경영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학술활동이나 출판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글로벌 시각을 넓히는 일도 하고 있고요. 한국 음식과 문화, 예술을 발굴해 외국 VIP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는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와인동호회, 문화예술동호회, 지식나눔 동호회, 골프동호회, 사진동호회 등 회원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임원진 조찬모임도 따로 갖고 있습니다.

KCMC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익힌 회원들의 역량과 노하우를 한국기업·경영인과 나누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리/문정현 · 사진/모델리아니



함기호 대표이사 Profile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입학
 미국 USC 기계공학과 학사 편입
 카네기멜론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현) KCMC 회장
 현) 한국HPE 대표이사
 전) 한국HP 대표이사
 한국FP 마케팅부서장
 삼익악기 계열사 대표이사
 LG산전 연구소 입사



Journal of ICT Leaders

정기 구독 안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디지털 기술 전문기업과 사용자 기업에 종사하는 ICT 리더들이 걸어온 길, 성공 비결,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연간 구독료**/50,000원(연 4회)
(권당가격 : 15,000원)

■ **계좌번호**/신한은행 110-098-574781

■ **문의**/미오미디어(02-2261-1113)

*지면 위치에 따른 광고료 차등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원사는 30% 할인)

KT IT기획실 신수정 부사장

‘앞아 있는 IT’에서 ‘움직이는 IT’로의 변혁을 이루다!

■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한참 무르익어가는 날 광화문 종로구청 앞에 자리한 KT 사옥을 찾아 최근 부사장으로 승진한 KT의 CIO 신수정 부사장을 찾았다. 그의 집무실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사옥 곳곳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KT의 IT기획 및 기업보안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신 부사장의 자리는 녹음이 지천인 경북궁과 청와대가 한눈에 펼쳐진 곳에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마저 느껴지는 넓은 유리창으로 인왕산, 북한산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마천루 도심 속의 경북궁은 현대적인 KT사옥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모양새였다.

신 부사장은 미리 주어진 질의서 곳곳에 메모와 주요 표시를 해놓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는 주어진 질문마다에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답변을 쏟아냈다. 그는 이미 <보안으로 혁신하라>같은 저서를 여러 권이나 낸 저술가이기도 하고, 삼성·SK 등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를 한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CEO로 회사를 경영한 경험도 지녔다. 탄탄한 체격, 논리적인 외양,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배어있는 그의 말투는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무장해제부터 시켜 유쾌함마저 느끼도록 만들었다. 헤르만 헷세의 <유리알 유희>를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KT 건물에서 만난 매력적인 IT인(人) 신수정 부사장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Q : 먼저 지난 연말의 부사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번 승진은 2014년, 최고보안책임자로 부임한 이래 ‘KT의 IT기획 및 기업보안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세평에 대한 반영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신 부사장이 KT에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와 CIO로서 향후 KT의 정보보안 분야 및 기술 발전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A : 대표적인 성과 부문을 먼저 살펴보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CISO로서 2014년에 KT그룹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의 오명에서 벗어나 국내 최고로 튼튼한 정보보안체계를 수립한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에서 통합 프레임워크에 의한 사전 예방을 이룬 것입니다. 정보보안 활동은 4대 보안 위협 요소 중심으로 통합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행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4대 보안 위협 요소 관리’는 ‘해커의 외부 공격’, ‘APT 공격’, ‘내부자의 정보 유출’, ‘협력업체 등 외부 업체로 인한 유출’을 말합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유무선 통합 비즈니스지원시스템(KOS : KT One System)을 성공적으로 오픈한 것을 두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차세대 프로젝트가 중단 선언된 후, 이를 리빌딩하고, KT그룹 IT 자체 역량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셋째는 IT조직이 노하우를 통한 B2B 대외 사업 수주 5,500억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내 시스템 운영/개발의 역할에서 벗어나 IT조직의 노하우를 활용한 차별화된 컨설팅 역량과 자체 개발 솔루션으로 대외 수주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지원 조직도 체계화하고, 컨설팅 및 솔루션 패키지 구축 등을 이루었습니다. 넷째는 황창규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IT 솔루션을 직접 발굴하고 개발하여 대외 사업에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KT의 IT개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신규 IT솔루션을 발굴하여 전사 효율화와 대외 사업 핵심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내부 생산성 제고에 영향을 주어 '앉아 있는 IT에서 움직이는 IT'로 변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는 'IT Solution Day'를 개최하여 80여종의 자체 발굴 IT솔루션을 사내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으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Q : 향후 기업 정보화의 변화 방향과 미래 진단, '최고

기술 책임자(CIO)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1 : 기업 정보화의 변화 방향은 글로벌하게 IT 조직은 4단계로 변화하고 있어요. 1단계는 전통적인 전산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백오피스 개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부서 요구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IT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구조적 비용 효율화를 위해 거버넌스 역할이 강조되는데 2단계 초기에는 비용혁신을 위한 IT아웃소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IT조직은 자체 개발, 운영은 최소화하고, 효율화, 기획, 관리 기능이 강조됩니다. 2단계 이후에는 Proactive한 IT지원, 컨설팅 등이 강조됩니다. 사업 지원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중점을 두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IT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혁신(핵심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포함)입니다. 비즈니스와 같이 IT가 근본적으로 업무 변환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핵심역량이 되는 SW를 자체 개발, 운영하고, 비즈니스와 기술을 아우르는 아키텍처 역량이 핵심이 됩니다. 이 3단계는 4차 산업시대에 든 최

사이버보안센터는 아시아 최초의 네트워크보안 통합관제 센터로 대내외 많은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T를 포함한 국내외 유관 기관 과 긴밀한 상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IT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IT가 그 역량을 기반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곧 IT입니다.

3, 4단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3단계는 기존의 사업을 IT로 전환하는 것이고, 4단계는 아예 IT로 사업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KT의 IT조직은 2단계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현재 3단계 역할로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T 신사업 경쟁력의 핵심 역량이자 사업 경쟁력으로 IT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CIO로서의 역할은 백 오피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실의 수장이 아닌 전사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도자이자, IT가 비즈니스화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끄는 Chief Innovation Office입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것인지에 대해 비즈니스 조직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기술과 비즈니스를 각각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동시에 이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Q : 부임 이전에 근무한 한국HP, 삼성SDS, SK인포섹 등은 모두 'KT의 주요 경쟁사'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KT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점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A : 기존의 KT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외부에서 보면 일부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대외 여러 업체와 공유/협력 관계를 확대시켜나가고 있고, 외부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이러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방/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Q : 최고 수준이라는 KT의 '사이버보안센터'와 관련된 질문으로 '개관 스토리' 'IT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먼저 개관 스토리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통신 산업은 국가 중요 기간산업으로써 당연히 보안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며, 무선 및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대량의 가입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보안의 경우, DDoS 공격 등을 신속히 방어함으로써, 서비스망의 안정성 및 품질이 향상되며, IT보안의 경우 IT서비스 및 가입자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함으로써 고객의 신뢰 및 서비스 안정성 강화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을 통합 관리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센터는 아시아 최초의 네트워크보안 통합관제 센터로 대내외 많은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

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T를 포함한 국내외 유관 기관 과 긴밀한 상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이러한 대외 협력 체계가 있었기에 전 세계를 위협한 ‘윌니크라이 랜섬웨어’에 대해 완벽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파트너사들의 제품을 수시로 제품 개발 테스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보안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Q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KT는 도드라진 활약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의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소개할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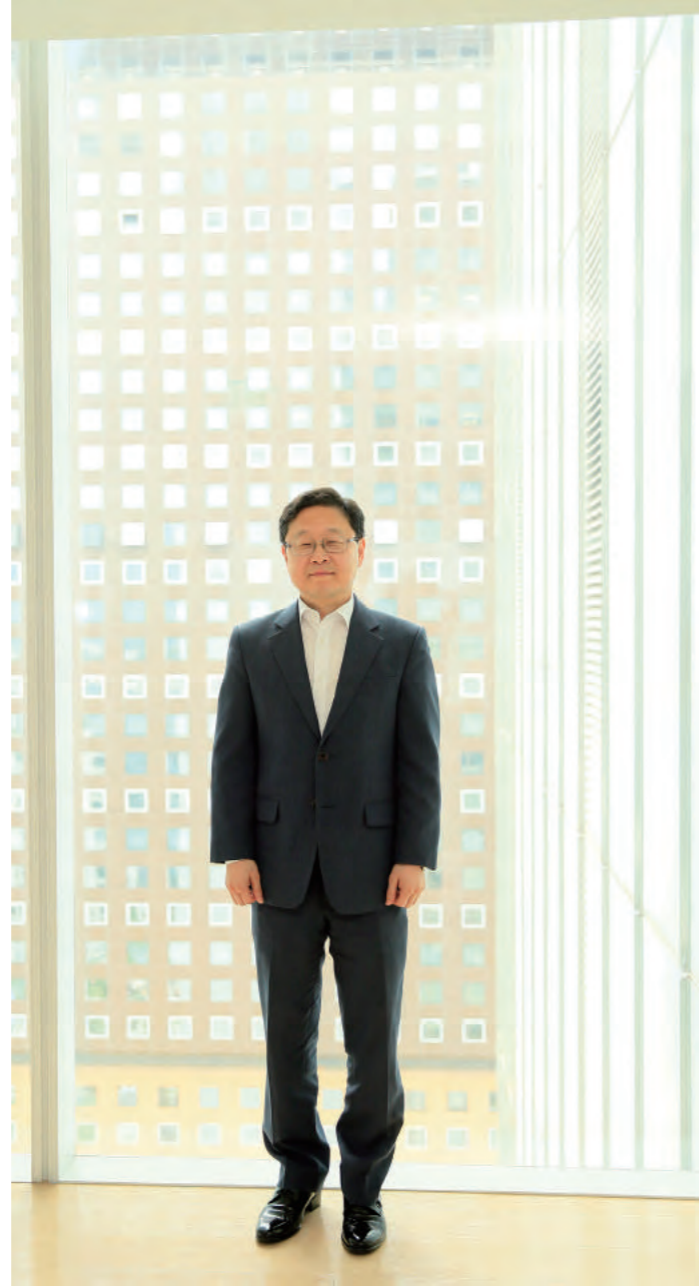
A : 평창올림픽은 IT만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G와 관련한 다양한 신기술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싱크뷰(Sync View)’ 같은 것이지요. 경기 결과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하여 화제와 좋은 성과를 낸 봅슬레이의 경우 5G 카메라를 장착해야 했는데 선수들은 그 시도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장비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간을 다투는 봅슬레이의 경우 자그마한 구멍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 회사의 평창동계올림픽추진단의 담당자들이 조직위를 1년간 설득을 하고 또 했습니다. 결국은 5G 카메라를 부착해 멋진 장면을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가슴 뛰게 합니다.

Q :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최근 읽고 계신 책은?

A : 일주일에 1~2권은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 내용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립니다. 이를 읽은 분들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종종 사의를 표해오기도 합니다. ‘文史哲’보다는 경제·경영, 심리 분야 책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Q-1 : 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A-1 :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



적입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저자의 경험과 시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Q-2 : 최근에 읽었고 의미가 있었던 책은?

A-2 :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라는 책과 <플랫폼 제국의 미래>입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Q-3 : 삶의 지표로 삼는 명언이 있다면?

A-3 ‘과거는 과거다. 과거는 내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내 머리에 추억으로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억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뇌는 축약해서 스토리만 만드는데 심지어는 ‘팩트’도 아닙니다. 과거에 초연하고, 현재와 미래에 충

실하지는 의미에서 이 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앨런 머스크도 좋아하는 이 말은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말고, 만들면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Q : 한 15년 쯤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요?

A : 아마도 글을 쓰거나, 코칭을 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기업 봉사 같은 것이지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수단은 글이나 상담 활동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질의서 내용에 의한 인터뷰 말미에 신수정 부사장의 개인적인 사항을 묻다가 그가 품고 있는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에 대해 놀랐다. 책은 문학이나 철학 예술보다는 경영이나 경제, 심리학 관련 서적을 주로 본다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이어진 취미에 관한 질문에 주어진 답은 문화·예술 분야에 상당한 조예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런 조건 없이 1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가장 하고 싶은가요?”

“미국에서 6개월 정도는 제 미래에 관련된 코칭, 심리학 관련 단기 코스를 교육받고 싶어요. 그리고 한 2~3개월은 트래킹에 빠져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트래킹은 ‘등산’이 아닌 ‘걷기’의 개념입니다.”

“취미나 건강관리법은?”

“취미는 영화·독서·공연관람을 들 수 있어요.”

“최근에 본 영화 중 좋았던 것은?”

“<당갈>이란 인도 영화입니다. 인도의 한 아버지가 두 딸에게 레슬링 선수를 시키는 영화인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물론 인도영화 특징답게 정통 신파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이 인상 깊었거든요. ‘니가 여자라고 해서 그냥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개개인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어서 제게는 참 감명 깊었습니다.”



IT전공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SF영화에 관심이 많고 즐기기 때문에 <당갈>에 대한 언급은 의외였다. 이 의외는 다음 공연관람 부문에서는 경외로 변했다.

“제일 기억이 남는 공연은?”

“공연 중에서도 뮤지컬을 좋아합니다. 특히 프랑 스혁명을 다룬 빅토르 위고 원작의 <레미제라블>을 영국에서 본 것이 좋았어요. 영화로 제작이 된 것도 좋았고요. 글썄요, 제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다른 놀이보다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오리지널 공연 말입니다.”

“나만의 건강법은?”

“건강법은 걷는 것입니다. 저는 퇴근할 때, 버스 정류장 4곳 전에 내려서 집까지 40분~50분 정도를 걷습니다. 아마 이것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적게 마십니다. 그것은 저의 기본 체력을 단련시켜준 것 같습니다.”

정리/이영근 · 사진/모델리아니



신수정 부사장 Profile
 서울대학교 동 대학원 기계설계학 학사
 서강대 경영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Computer Aided Engineering)
 현) KT IT기획실장(OO)
 전) KT 정보보안단장(CSO,CPO), 전무
 SK인포섹 대표이사
 SK인포섹 상무/전무
 삼성SDS 책임컨설턴트
 한국 HP



ICT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재양성

지난 3월 28일 역삼동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센터 회의실에서 ICT, SW산업계 전문가 6인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재양성, 그리고 기업 및 대학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요구사항 및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이사, 토마토시스템 이상돈 대표이사, 데브구루 송지호 대표이사, 숙명여대 윤용익 교수, 인하대 권장우 교수가 참석했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박우건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기업이 바라는 소프트웨어 인재의 조건

박우건 상근부회장 :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하소연 속에서 기업과 대학들이 바라는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은 요즘 업계의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 트렌드가 예전과 견주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전진옥 대표 : 요즘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졸업자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대학이 양성하도록 기업이 요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이 졸업생

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이에에는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외국과 한국 기업의 차이는 IT전공자들에게 필요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IT회사에서는 우선 문제 해결 능력, 둘째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 셋째로 전문 기술능력을 신입사원 선발 주요 능력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 조건은 '전문지식과 폭넓은 교양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지식 습득만을 앞세우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할 것입니다.

송지호 대표 : 저희는 2002년에 창립하여 16년이 된 회사로 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 중 3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은 학문을 닦는 곳이라 생각하고, 기업에서 당장 업무에 투입시킬 직원만

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는 기업에게 잘못이 있다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신입사원이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하려면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있는 업무까지를 수행하려면 3년 정도를 숙련시켜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처럼 맨파워로 움직이는 중소기업에서 3년을 기다려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불행히도 채용할 직원이 업무 경험을 이미 갖고 있어서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경우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우건 상근부회장 :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 졸업생 중에 “코딩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을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트렌드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진옥 대표 : 기업의 입장에서 신입사원이 소프트웨어 전공자라면 기본적인 코딩 능력 정도는 갖춰주길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기 외에 다른 한 편으로 갖춰야 할 키워드 세 가지는 창의적인 인재, 융합적인 사고력 겸비, 아키텍처 인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키워드는 금방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코딩 능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의 소유자'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폭넓은 지식과 함께 인성적인 측면을 고루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지호 대표 : 기업 입장에서 '언어 소통'은 최소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업에서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 선발을 해놓고 교육을 시켜놓은 뒤에 나

가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가 크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2.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박우건 상근부회장 : 인재 채용 트렌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의 애로사항에 관해 교수님들을 통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권장우 교수 : 저는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재양성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 재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학은 좋은 교수, 좋은 환경,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새로운 학문을 접한 훌륭한 교수를 초빙하는 게 어렵고 교수 1명이 40~5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한 태생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프트웨어 실습(프로젝트)과 조교(TA)가 필요하고 이는 곧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을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라는 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점제'가 아니라 '인증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윤용익 교수 : 앞서 말씀하신 내용의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요즘 제가 진행하는 자바 프로그램 수업은 70명이나 수업을 받고 있어서 모든 수강생이 고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30%는 수업을 잘 따라오지만 나머지 70%는 그렇지 못합니다. 참고로 지난 계절학기 때는 12명이 수강하였는데 이때는 학생들의 호응뿐 아니라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가 좋지 않은 주요 원인은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악기



를 다루는 음대의 경우는 일대일 수업이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 대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관계부처에서 기존의 제도 때문에 인문계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학점제 평가제도도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협업이 절대적인데 학생들에게는 절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협업정신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을 앞둔 4학년들을 산학협력 ICT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한이음 과정(www.hanium.org)에 참여시켰습니다.

박우건 상근부회장 : 저희 협회에서 주관하는 한이음 제도 같은 경진대회가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장우 교수 : 대학도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TA 부족, 소프트웨어 학습에 부적합한 학점 평가제도 등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를 해결할 재원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윤용의 교수 : 학생들은 전임교수로부터 직접 코

딩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코딩 실습은 대부분 전임이 아닌 대학원생이 합니다. 학생들에게 코딩교육 자체보다도 비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장우 교수 :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임 교원 교육보다는 기업의 노련한 경험자들을 수혈하는 방법 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로 학습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3, 4학년과 심지어 대학원생까지 팀으로 묶어 경진대회를 목표로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은 배우고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이음 멘토링 같은 제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3.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재 관리

박우건 상근부회장 : 한이음 멘토링 제도에 참여하

는 멘토가 약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들과 대학 간의 다양한 교류와 융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군요. 지금부터는 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인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송지호 대표 : 인재를 구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의 경우 인재를 구하기 어렵지만 주변의 소개, 입사한 직원의 후배 소개 등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직원들의 대학 동아리 후배들이 선배의 추천과 타인의 소개를 받아 회사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잘되는 학교 일수록 후배와의 연락, 정보 공유도 잘 되고 있어 저희 같은 중소기업 일지라도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개발자 대부분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이직률이 적은 편이고 실제로 대학 동아리와의 교류가 인재 채용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건 상근부회장 : 소프트웨어 인재의 수준을 보통 초급, 중급, 고급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인재의 수준이 현장

에 계신 여러분이 볼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한다고 보시는지요?

전진욱 대표 : 현실적으로 2016년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27만 7000명, 이 중 15년을 근무한 개발자는 1.4%, 9년을 근무한 개발자는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9년 정도 일하고 다른 분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직 사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열악한 환경도 문제이지만, 선배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문제는 동기 부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입직원도 중요하지만 보고 배워야 할 선배의 모습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실용주의 교육으로 캐리어 패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재직자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직자 과정 같은 제도 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OECD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의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은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퍼져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 IT분야로 갑니다. 산업경쟁력 향상의 본질은 타 분야를 받아들여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을 이루어내는데 있는데 IT분야로만 진출을 하면 제조, 금융,

교육, 공공, 서비스 같은 타 산업과의 융합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우건 상근부회장 :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중에 “전공분야 외에도 영업 업무를 경험했기에 은행의 CIO가 될 수 있었다”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각 협회별, 산업별로 IT가 아닌 다른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타 제조업체와 IT업계의 융합 작업도 시행하고 있어서 타 분야와의 융합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더 다가옵니다.

전진욱 대표 : 지금까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관한 기본적인 역량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것과 인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 하겠습니다. 경력직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경력직은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곧 나의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졸업생을 신입사원으로 기업에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재직자 과정에 관한 커리큘럼 등을 만들어서 다양한 산업체와 융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돈 대표 :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은 대부분 입사 직후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관련 업무 교육을 6개월 정도 미리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원을 선발합니다. 그래도 입사 후 1년은 지나야 그 직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업무능력을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선정되고부터는 입사 후에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문제는 그동안 인턴 신분의 학생이어서 50~8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직원으로 양성을 했는데 이제는 정규 신입사원 수준의 급료를 요구하고 더 높은 급료를 주는 곳으로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윤용익 교수 : 대학이 당장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실무능력을 키워주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에 앞서 학생의 숨겨져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보통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먼저 6개월 정도는 관련 업무를 인지하고 그와 연계된 코딩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돈 대표 :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질 있는 직원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무능력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기본을 키워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윤용익 교수 :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6개월에서 1년 간 50~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참여 학생 15~20% 정도는 자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취업을 하여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됩니다. 학점도 연계되어 있어 학생들의 참여도와 관심이 높은 제도여서 이런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처 간의 벽이 있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어서 안타깝습니다.

4.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인력의 커리어 관리

박우건 상근부회장 : 기업에서는 그동안 키워온 인재가 타 기업으로의 여러 가지 이직현상에 따른 애로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개발자 혹은 경영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인력 커리어 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송지호 대표 : 저희 회사는 창업 후 장기 근속 개발 인력들에게 회사의 비전 제시에 한계가 있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계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더 공부하려는 분과 자격증 비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

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보다 더 좋은 이름 높은 곳으로 이직한 경우가 꽤 있는데 그분들은 그곳에서 저희 회사와 일로 연결을 이루어 주는 나름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직의 선순환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도 플러스 요인이지만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돈 대표 : 키워놓으면 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력회사로의 이직은 괜찮지만,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전진욱 대표 : 수입의 증가가 전부가 아니라, 자기개발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직이 필요합니다.

윤용익 교수 : 저는 신입직원들에게 대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35세까지 살아남으려 애쓰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성에 호소하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우 교수 : 요즘 학생들은 기업문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월화수목금금금이 싫은 것이지요. 따라서 근무 문화와 함께 근무시간 외에 여가시간이나 개발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중소기업에도 만들어져야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돈 대표 : 똑같은 사안일지라도 대기업에서는 참고 견디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은 소프트웨어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용역 사업만 존재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의 고착화를 해결해야 우리 기업이,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에 더 큰 비전이 생겨납니다.

박우건 상근부회장 : 지금까지 여러 고견과 방향 제시를 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사진/모델리아니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송정희** 특훈교수

여성 IT인의 도전 “더 나은 세상이 있다 찾을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 이른 아침에 열리는 CIO포럼 5월 조찬 모임을 마치고 인터컨티넨탈호텔의 회의실에서 마주한 송정희 교수는 격렬한 과정의 사냥을 막 끝내고 돌아와 휴먼지를 툭툭 털어내면서 원래의 자리에 편안하게 앉은 사자를 연상시켰다. 그동안 CIO포럼의 각종 행사장에서 만난 그는 항상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으며 부드러움도 느끼게 했었다. 하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선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함도 함께였다.

그로부터 전해지는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요소들과 마주하면 피하지 않고 맞서서 변화를 추구해왔던 결과, 또 유리천장을 깨뜨리며 쌓아온 가시적 성과물 때문에 생긴 것일까. 아니다. 아마 그 두 가지 모두가 작용한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오늘 인터뷰와 사진 촬영이 있지만 맨 얼굴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인터뷰 장소에 들어서면서 웃으며 던지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대한 그의 걱정은 그 두 가지를 뒷받침해주는 듯 싶었다.

경기여고를 나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유일한 여

학생’이었던 그는 졸업 후에는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다시 서울대 최초의 여성 전자공학박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당시에는 여성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학교로 돌아와 교수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는 그 당연함을 넘어서 학교 대신 기업을 택했다. 1989년 삼성의 미래기술을 연구하는 삼성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이 되었다.

그가 삼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룬 성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당시 연구원의 팀장급인 남성박사들은 작업복을 입었다. 반면에 역시 박사로 팀장급인 그는 고졸 여직원이 입는 스커트 유니폼을 착용해야했다. 그리고 2년 뒤, 그가 삼성전자 전략기획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유니폼 투쟁을 시작했다. 남성 직원들은 정장차림이었고, 여성 직원은 여전히 유니폼 차림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탁월한 업무 능력을 검증받은 그의 타당성 있는 요구에 회사는 수긍을 해 정장 차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그는 ‘홍일점’ 혹은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에 무게를 더해갔다.

그는 대학 시절 전자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획일화된 사회 시스템에서 여성 기업가에 대한 편견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마초사회에 순종해야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용납하면 안됩니다. '인 노조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자공학을 선택하면 나중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전자공학과가 다시 전기전자공학부로 통합되었는데 당시에 저는 여러 공학 분야들 중에 최첨단인 것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전자공학을 전공하면 나중에 바이오메디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길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컴퓨터 공학과는 없었기에 전자공학이 가장 최신 학문이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대학시절이었지만 그는 공부가 좋았다. 1981년 대학을 졸업하고는 미국으로 가서 텍사스 오스틴대학교에서 석사,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를 마치고 전술한 ‘서울대 최초의 여성 전자공학박사’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하여 삼성에서 10년을 일하고 전략기획실 부장이던 1999년에 사표를 냈다. 다음에 택한 일은 서강대학교 미디어공학과 교수로 가는 것이었다. 그의 ‘도장 깨기’가 시작된 것이다.

주어진 인터뷰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 미리 주어진 질의서에 의한 송정희 교수의 답변내용과 기 발표된 기사 내용을 정리했다.

Q : 교수님의 이력은 참으로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기업, 연구소, KT, 정부 지자체 등등 이런 경력 쌓기 사례는 드물고,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어려움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A : 회사를 나온 직후에는 저도 쉽지 않았어요. 환경이 완전하게 바뀌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렸지요. 하지만 회사를 나오는 것에 두려움 같은 것은 없었어요. ‘더 나은 세상이 있다, 나는 찾을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 이후 다양한 경험을 하고 경력을 쌓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 대학교 교수로 입문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A : 저는 공부하고 회사 다니느라 결혼을 늦게 했고 그래서 회사생활 이후의 또 다른 활동영역으로 학교를 택했습니다. 신생학과지만 미디어공학과 학과장으로 부임을 했지요. IT와 신문방송과 같은 문화 분야를 융합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디어공학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어디나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여성과 외부에서 온 인사에 대한 텃세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신산업을 통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 끈기있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Q : 가르치는 일이 천직은 아니었던 가 봅니다. 교수직을 떠나 교육 벤처회사 <텔리젠>을 직접 설립, 대표이사로 운영했으니 말입니다. 그에 관한 감회와 창업을 꿈꾸는 청년, 특히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A : 한창 창업 붐이 일 때에 소프트컴퍼니를 창업해서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대기업의 여성 근무환경은 폐쇄적이었지만 벤처 문화



에 적응하는 것 역시 어려웠어요. ‘기수문화’라는 것이 대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 역시 썩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여기기 전에 빨리 창업하고 실패도 빨리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세 번 정도의 실패 경험은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획일화된 사회 시스템에서 여성 기업가에 대한 편견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마초사회에 순종해야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용납하면 안됩니다. '인 노조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벤처라는 것이 사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 몇 년간은 사장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이 따르기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터넷과 IT기술 분야의 경우, 앞서간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혁신적으로 소

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품기획을 했으나, 당시 시장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Q : 현재 재임하고 계신 한양대학교 '특훈교수'에 관해 소개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대학에서 임기를 다 마치고 초빙된 명예교수는 석좌교수라 하고, 기업이나 공직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며 업적을 쌓은 분들은 특훈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에 한양대에 초빙되어 학교발전계획에도 참여하고 소프트웨어가 전 학부에 융합되어 스며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교가 따로 없어서 모든 일을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서 만족합니다.

Q : 지금까지 경험한 다양한 경력을 통틀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전력을 다하셨는지요?

A : '다양한 경력이란 곧 한 분야에서 깊이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은 정년퇴임까지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래된 조직들은 조직구성원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인식이 강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회사가 변혁을 일으키고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회사 운영이 IT친화적으로 바뀌어야 지속가능하다고요. 저는 직업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돕는 일을 할 때가 어려움도 많았지만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을 할 때 조직변동이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 있을 때는 IT 839 프로젝트를 통해 R&D 체계를 바꾸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의 양이 조직의 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KT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할 때 강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10분, 30분 단위로 끊어서 일을 했으니까요.

Q : 서울시 등 정부 부처와 공공 부문에서 일하면서 이룬 의미 있는 성과를 꼽는다면?

A : 제가 만지면 모두 바꿀 수 있어 계획대로 재미있게 다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할 때는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IT 조직을 체계화 했으며, IT를 시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유시티과'를 신설했습니다. 보안관계 통합센터도 만들었고, 상암동에 'IT Complex'도 만들었습니다. 또 WeGO라고 해서 'World e Government Organization'을 UN 산하기구로 만들어 3년 동안 20~40개 도시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리더십을 갖고 전자정부 관련하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IT프로젝트들을 다른 나라에 많이 소개해서 우리나라 IT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도움을 많이 도울 수 있어 보람도 컸습니다.

Q : 이공대 출신 경력단절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 펼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경우를 빌려 해결방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는 고용주나 고용인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사회와 제도가 어려운



것을 주문합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직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들게 됩니다. 엔지니어는 3년만 지나면 세상이 다 바뀌어 틀, 업무, 프로젝트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 중에서도 코스트가 큰 것부터 세분화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사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 여직원 스스로 지역 테크노파크 프로그램, 공식적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일반 분야와 다르게 진입장벽

이 높게 존재합니다. 엔지니어는 해외로 진출하거나 경력을 쌓아 100% 단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법에 의한 파트타임 일이라도 시도해서 흐름에서 떨어져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회사와 고용인이 서로 양보해서 제로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회사를 다시 가보면 몇 년 쉬었다는 것이 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여유를 갖고 찾아보면 자신이 필요한 분야나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다시 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 CIO포럼 여성 IT인 모임인 여성 CIO+ 모임의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은?

A : 포럼 내의 오픈 모임으로 회원들 간의 '중요한 친구 데리고 오기'와 'IT업계 시스터십'을 강조하는 모임입니다. 영업 관계로도 고객사와 공급사 간의 유사문제와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디테일을 챙기는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교류를 하고, IT분야 신기술과 기존조직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논할 상대가 되자는 것입니다.

Q : 선배로서 여성 IT인재들과 공대 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 '꼼꼼해서 스타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헝그리정신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은 인원이 적을 때 적용됩니다. 이런 비판은 인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 임계치는 모임에 여성이 아예 없거나, 그룹을 이룰 만큼 많으면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을 뚫을 강력한 비법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성을 잃지 말고, 자매에 즉 '시스터십'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도전의식과 리더십을 갖추고 솔선수범 하라'는 것입니다.

Q : 평소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자녀나 후배들에게 그리고 권하고 싶은 책 한 권은?



A :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했습니다. <비호> 같은 무협소설에서부터 전문 과학서적까지 가리지 않고 읽었고요. 하지만 저는 어려운 이론서나 철학서적보다는 쉽게 읽히는 책을 좋아합니다.

특별하게 권하고 싶은 책은 IT 비즈니스 업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비즈니스와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우리의 삶과 경제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니콜라스 카의 <빅 스위치>라는 책입니다.

Q :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실까요?

A :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재능기부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정리/신호선 · 사진/이재훈(모델리아니)



송정희 교수 Profile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텍사스 오스틴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석사
 케네디켄넬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특훈교수
 전) KT 부사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삼성중합기술원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미디어공학과 교수
 텔리젠 대표이사
 정통부 IT정책지원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단장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이사

‘혼자 빠르게’가 아니라, ‘함께 멀리’를 지향하며

■ 솔트룩스는 인류의 지식 소통(Communication Knowledge)을 돕겠다는 사명 아래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의 모든 임직원은 언제 어디서나 ‘올곧게’ 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혁신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공헌합니다. 자신과 동료의 전인격적 성장과 행복 추구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솔트룩스 ‘룩시안(Luxian)’들의 핵심 가치관은 고객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정신 모델이자 행동 철학입니다. 또한 솔트룩스의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 이경일 대표이사의 인사말 중에서

강남의 언주로에 자리한 빌딩의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솔트룩스에 들어서는 순간 ‘상당히 다르다’라는 느낌부터 받았다. 대표이사 집무실은 5층에 있었다.

5층에 들어서면서 느낀 것은 ‘일정한 궤도, 라인 안에서의 자유로움’이었다. 입구에서부터 탁자 7~8개와 의자 40여 개, 그리고 자유롭게 음료수를 선택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한 유희 공간과 마주한 것 때문이었다. 직원들이나 외부 손님은 이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으며, 토론도 나누었다.

자유로운 공간은 ‘경회루’, ‘규장각’, ‘교태전’ 같은 이름표를 단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방들로 에워싸여 있었다. 그 이름의 공통점은 ‘전각’이었다. 휴게실 공간을 둘러싼 방들 안쪽에는 비밀스러웠지

만 이경일 대표이사의 방을 비롯한 솔트룩스의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경일 대표이사의 방에는 ‘해우소’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었다. 절간에서 ‘걱정을 해소하는 곳’이라는 그 해우소 말이다.

“‘빛과 소금’이라는 회사명과 관련한 질문과 약사 회사 현황 등은 자료에 근거하겠습니다.”

“밖에서 저희 회사를 농담 삼아 ‘짹짹하게 빛이 나는 회사’라고들 한답니다.”

이경일 대표이사가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다”고 공언하는 솔트룩스는 ‘SALT(소금)’ 과 ‘LUX(빛)’의 합성어로 새로운 지식기반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기업 철학을 내포한다고 한다. ‘봉급’ 즉 샐러리의 어원인 ‘소금’은 변하지 않는 도덕적 가치와 성실한 봉사의 정신 그리고 통화와 자본으로 가장 오래된 화폐 기능 등 문화적 이미지를 상징하고, ‘빛’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의 문명적 이미지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솔트룩스’는 1979년에 설립한 ‘모비코인터내셔널’이 모태로 2003년에 제가 세운 자연어 처리 전문 기업 ‘시스메타’와 합병을 하면서 태어난 회사입니다. 솔트룩스라는 이름은 2005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대표로 운영하던 회사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지요. 회사명을 지을 때 전문회사로부터 300여 개의 이름을 추천받아 5개로 압축한 것을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방문마다에 걸려 있는 전각 이름도 직원들에게 상품을 걸고 공모하여 결정했습니다. 전에는



〈ADAMS〉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인간처럼 학습 및 추론을 할 수 있는 지식엔진입니다.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식학습과 추론기술이 결합되어 사용자 질문과 상황 정보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심층 질의응답 부문을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하고 추천/예측, 전문분야 질의응답 및 의사결정, 비대면 상담 서비스 부문을 시장차별화 요소로 강화 발전시킵니다.

몰디브, 발리 같은 유명 휴양지가 걸려 있었는데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꿔 걸어보자는 의견이 팽배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교태전’은 여직원들의 휴게소로 이름으로 그 방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게 공간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성대한 파티가 열립니다. 직원 130여 명 중에 그 달에 생일인 이들을 위한 파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를 닮은 만큼의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해다미’ 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 ‘해다미’라는 용어는 서울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14년 전 회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회사 0.5% + 직원 0.5% = 1% 나눔 운동’을 펼치던 솔트룩스는 그동안 국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한의 어린이, 미혼모, 결식아동 등 소외된 이들을 도왔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서울시복지재단의 추천을 받아 서울지역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미니도서관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해다미는 방과 후, 방학 때 갈 곳이 없는 아이 등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헌을 한 증거이기도 하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인 미니도서관 한 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약 2000만 원 정도이다. 현재 솔트룩스의 지원으로 서울시에 만들어진 도서관은 8개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은 도서관을 기증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

우리나리로 마흔여덟.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그는 계속해서 ‘어리다’는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름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는 ‘동안임이 분명했다. 족히 180cm는 넘어 보이는 키, 신뢰감이 느껴지는 말썬씨에 맑은 목소리 그리고 논리성으로 무장한 그가 그동안 걸어오면서 남긴 자취는 결코 젊은 것이 아니다.

‘잠수함의 토끼’로 비견되는 그가 한국 AI업계,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업계, IT업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내디딘 발걸음은 예상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일 대표이사과 2시간 동안 가진 질의와 응답을 정리했다.

Q : 다양한 제품을 내놓은 솔트룩스이지만 그래도 대표작이라 할 만한 제품을 꼽아보면?

A : 스테디셀러라 할 수 있는 ‘DISCOVERY’ ‘STORM’ ‘TORNADO’ 등이 속한 빅 데이터 플랫폼 〈BIGO〉와, 인공지능 플랫폼 〈ADAMS〉를 들 수 있습니다.

〈BIGO〉는 솔트룩스의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자연어처리(NLP)와 기계학습, 분석병렬처리와 같은 핵심 기반 기술과 100여 건 이상의 소셜 및 공공 빅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제품은 정형 빅 데이터와 비정형 빅 데이터의 융합 분석에 탁월한 성능과 분석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ISCOVERY’ ‘STORM’ 같은 기업 및 공공 빅 데이터에 대한 시맨틱 검색/분



석, 지능화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IoT 센서와 생산 및 운영시스템 로그와 같은 스트림 빅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분석, 예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트룩스는 자사의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자연어처리 엔진 LEA를 빅 데이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과 융합, 최적화함으로써 탁월한 공통 분석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BIGO 공통 플랫폼은 20년간 축적된 솔트룩스의 강력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반 상용분석 엔진들과 경제적이며 확장성이 큰 빅 데이터 프레임워크들을 연계 통합함으로써 탁월한 안정성과 가용성, 강력하고 차별화된 기능과 분석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AMS〉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인간처럼 학습 및 추론을 할 수 있는 지식엔진입니다.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식학습과 추론기술이 결합되어 사용자 질문과 상황 정보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심층 질의응답 부문을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하고 추천/예측, 전문분야 질의응답 및 의사

결정, 비대면 상담 서비스 부문을 시장차별화 요소로 강화 발전시킵니다.

Q :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솔트룩스의 해외 진출 전략과 지사 현황은?

A : 10여 년 전에 베트남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어요. 14년 전쯤에 대기업과 공무원을 선호하는 우리 풍토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지식노동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외국에 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는데 물리적인 거리와 시차의 간극이 크고 그에 따른 회의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문화적인 차이 또한 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이고 반도 국가이자 분단국가 경험을 지녀서 유사한 문화도 많습니다. 2005년에 베트남 공장을 모색하여 2006년

에서 2008년 사이에 개발센터 설립을 완성했습니다. 저희 개발 인력이 모두 95명인데 베트남에 그 20% 수준인 27~8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천기술도 개발 연구하는 우수한 인력들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법인을 설립했다가 여러 이유로 5년 만에 철수를 하고 대신에 미국으로 눈을 돌려 미주 지역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음성 인식 인공지능 업체인 사운드하운드와 기술 제휴도 맺었습니다. 사운드하운드 제품에 솔트룩스 기술을 탑재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지요, 그 때문에 요즘도 분기마다 미국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솔트룩스의 1년 매출은 150억 원 정도인데 15% 수준인 20억 원은 해외에서 내고 있습니다.

Q : 가장 최근에 나온 솔트룩스 관련 뉴스 중에 '교육 행정에 AI 기술과 챗봇(Chatbot·상담로봇)서비스 접목 방안 추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 대학 교육·행정에 AI 기술과 챗봇 서비스를 접목하여 교육산업 혁신과 대학 행정 지능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솔트룩스가 개발한 AI 상담 시스템은 심층 질의응답과 사용자 질문 및 상황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줍니다. 이미 국내 주요 금융권과 공공 서비스, 해외 금융, 항공 고객 상담 업무에 도입되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들은 이미 학생 수 감소 위기 극복의 방편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AI로 학생 개개인의 점수를 예측하고 중재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알아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역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진도에 맞춘 피드백을 2006년부터 제공하며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넬대는 교내 설문조사 등에 챗봇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이런 변화를 국내 대학과 공유하기 위한 기술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능형 학사상담, 교육관리 시스템 등에 AI 서비스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 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챗봇을 활용하는 것은 미래 대학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Q : 솔트룩스의 수입 구조와, 이경일 대표이사가 A분야가 지옥의 레이스를 거치고 '열매를 맺을 것'으로 주목한 바 있는 2025년, 2026년까지의 향후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A :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의 기술사이클(하이프사이클)은 모든 신기술은 처음에 등장해 각광을 받아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이후 정점을 찍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합니다. 버블은 사그라

사람의 생, 회사, 산업, 사회 어느 곳이든 변곡점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변곡점은 도드라진 꼭짓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완만하게 가는 평지와 같은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 변곡점의 시간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지고 망하는 회사가 속출합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는 죽음의 계곡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계곡을 넘는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인터넷도 이미 이런 사이클을 거쳤습니다. 아마존이 1997년에 상장을 했고 2000년에 인터넷산업 피크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부터 인터넷산업이 거꾸러졌고 2003년에 거품의 절반 이상이 꺼졌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기업만이 성장한 것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알파고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기대가 거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부터는 거꾸러지는 기업이 나올 것(여기서 이날 보도된 왓슨의 IBM 의료진단 시스템과 관련 인력 감축 이야기를 꺼냈다)이고 2020년이나 2021년쯤에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저는 AI분야에서 열매를 수확할 시기는 2025년이나 2026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재무건전성이 아주 양호하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운영자금 역시 향후 5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그 힘을 바탕으로 시장 검증에 집중하고, 사안마다에 공격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1~2년 내에 M&A를 적극 시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미국 법인회사 설립 역시 그 일환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대 빅뱅'은 아닐지라도 '소 빅뱅' 정도는 이를 것이라 자신합니다.

Q : 대학 재학 시 창업을 했고, 회사를 거쳐 다시 창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을 들면...

A : 사람의 생, 회사, 산업, 사회 어느 곳이든 변곡점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변곡점은 도드라진 꼭짓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완만하게 가는 평지와 같은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 변곡점의 시간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새로운 목표를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그들을 설득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로 2007년~2009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Q : 이 대표는 구글 같은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 AI 수준 격차는 '물리적으로 5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보다 뒤진 우리나라 A분야에 필요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 봅니까?

A : 데이터 축적과 인재 확보, 그리고 정부와 학계의 공동 지원과 각종 규제 개선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AI 강국이 되려면 인프라와 데이터, 인력, 축적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프라는 대규모 장비와 장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통하는 것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바이두 같은 중국기업이 해당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이 부족하네 네이버와 카카오, 통신회사 등이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AI는 껍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얼굴인식회사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로부터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주요 고객은 중국 국방부인데 최근 '전 인민의 주민등록 얼굴 사진'을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듯 데이터에도 양과 질이 존재합니다. 양으로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로 승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분야 데이터를 파격적으로 개방을 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이 결단을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방을 해야 합니다. 헬스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률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재부 산하기관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력 역시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 수는 미국의 2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중국, 인도에 비교하면 더 적은 30분의 1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의 상위 2~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우리나라 전체 소프트웨어 인력과 비슷한 수준이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베트남 지사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것은 “품질이 낮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일하는 방식과 품질 인식 등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다릅니다. 하드웨어는 설계도만 던져주면 만들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야말로 축적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었습니다. 그때 해외 나가면 “너희는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된다는데 진짜냐? 휴대폰으로 TV를

볼 수 있느냐?”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야후 등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요. 지금은 철수를 했지만 그래도 당시의 인력들이 국내 기업에 들어가 국내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AI도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AI는 산업과 기술이 밀착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AI 시장은 미국, 중국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나라로 3등분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나머지 몇 개 나라에 속해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중국 같은 AI 강국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 10대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AI는 승자독식이 강한 분야이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영역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바로 ‘제조업’으로 우리가 상당히 잘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AI는 산업과 기술이 밀착되어있고 이 둘을 결합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바로 산업에서 나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산업에 강한 세계적인 제조 강국인 것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LG전자를 예로 들면 이 기업은 전장 분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이는 바로 임베디드를 하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5G와 임베디드를 엮고 여기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진격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Q : 이 대표는 AI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려 자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데이터’라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A : ‘뒤쳐진 것은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내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살자고 도망을 하면 죽을 것이고, 죽자고 싸운다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외통수’ 자리에 서 있다는 각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희 솔트룩스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대학 때 이미 창업을 시도한 바 있을 만큼 일에 몰두해왔습니다. 일 외에 좋아하는 것(취미)은 무엇이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학창시절에 ‘판따라’였습니다. —웃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아카펠라 활동에 미치도록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하지만 재능은 부족하다고 여겨 업을 삼는 것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든 합창이든 중창이든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은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수입니다. 제가 기독교 인이고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목수는 인류 최초의 직업이고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애’입니다. 물론 지금 아내와의 연애입니다. 아내는 제 첫사랑이기도 합니다. 컴퓨터에만 빠져 며칠씩 밤을 새는 일을 다반사로 하던 제가 창업을 모색하여 돈을 벌 궁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아내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면 돈이 든

다는 것을 그때 깨우친 것이지요. 하지만 연애다운 연애를 제대로 못했고, 로맨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점이 후회되어 다시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있나요?”

“〈경영의 실제〉의 피터 드러커를 좋아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롤 모델이라기보다는 ‘코치’ 같은 존재이고, 〈경영의 마음가짐〉이란 책을 쓴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닮고 싶은 경영자로 꼽습니다. 그는 ‘산업과 직업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희 솔트룩스의 기업 핵심 문화인 ‘올곧게 일함’, ‘혁신을 통한 공헌’, ‘성장과 행복추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지키려는 노력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고 끝까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올곧음’의 정수라는 것에 제 생각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인터뷰는 어느덧 4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경일 대표이사는 독일에서 온 손님을 ‘달고’ 왔었다. 그리고 인터뷰 후에는 모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 끊이지 않았다.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를 바탕에 깔고 외통수 정신으로 글로벌 ‘지식엔진’을 보유한 세계 10대 지식 서비스 기업을 실천하고 있는 그의 존재가 다시 한 번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가 그저 잠수함의 토끼나 새가 아니라, 잠수함 자체를 이끌고 항해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해다미 공간을 나왔다.

정리/전규주 · 사진/이재훈(모달리아니)



이경일 대표이사 Profile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재료공학과 학사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학 석사
 현) (주)솔트룩스 대표이사, 사장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특임교수
 현) 인공지능산업협회의 회장
 현) 지능정보산업협회 부회장
 현) 엑스브레인/EN-LARKO와 연구책임자
 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대자율과 리더십, 신뢰와 박수!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 키르케고르

딱 잘라 '자율의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시작하고 싶었지만 리더십이란 명제는 여하간 리더가 '이끄는' 힘, 방법이라 볼 때 자율과 리더십을 함께 묶어 쓰기 어려웠다. 대한민국 재벌 1세대인 정주영(현대), 이병철(삼성), 구인회(LG), 최종현(SK) 등은 각각 차이가 있으나 강력한 카리스마, 상명하복, 불도저적 경영이라는 공통된 방법론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방법론에 향수를 느끼거나 아직도 기업 현장에는 이런 방법론이 '긍정적 마인드'라는 외피를 입고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과 리더십이란 양립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고 수많은 리더십의 방법론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자율이란 방법론으로 성공과 실패한 사례가 있으니 그것부터 살펴보자

하나, 히틀러의 카리스마가 실패한 경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경제와 정치 상황 모두 혼돈 그 자체였다. 패전국으로서 국민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혔고, 거기에는 막대한 전쟁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것을 뚫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섰으니 그가 바로 히틀러다. 히틀러의 카리스마와 정치행위는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탁월한 외교를 펼쳐 승전국으로부터 전쟁보상금을 탕감 받았고, 그가 주도한 혁신적인 경제정책은 독일을 단번에 신흥 공업국가 반열로 올라하게 하였다. 그가 벌이는 모든 정책은 곧 마이더스의 손이었고, 독일국민은 그의 카리스마에 열렬히 박수를 쳤다. 히틀러가 새로운 꿈을 꾸는 건 독일의 부흥만이 아니었다. 세계정복, 이른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 초기부터 독일은 군사작전에서 승승장구하였다. 적어도 전쟁 발발 후 1942년까지는, 폴란드 침공과 프랑스 정복은 세계 전쟁사에서 새로운 이정표였다. 빠르고 효과적이었다. 더구나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독일 군사작전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그 태생은 19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졌다.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속칭 '임무형 지휘 체계'. 쉽게 풀자면 수단의 사용과 행동에 있어서는 일선에 완벽하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군 조직은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편성된다. 또한 명령체계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된다. 여기서 독일의 군사전략 상식적인 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달랐다. 먼저 사단장이 아래 연대에 언제까지 목표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연대장은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사단장의 방법론은 사라지고 오로지 '독자행동', 사단장이 오른쪽으로 공격하라고 했지만 현장 상황 판단으로 왼쪽이 좋으면 그쪽으로 간다. 끝까지 방어하라고 했지만 일시적으로 후퇴가 옳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후퇴한다. 무조건 이기면 되었고, 결과가 중요시되었다. 이런 연대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아래 대대, 중대, 소대까지 이어졌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원칙은 말단 소대까지 이어졌다는 말이다. 효과는 대단했다.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이 없어졌다. 더구나 전쟁은 시간이 생명인데 그 기간이 놀랄 만큼 줄어들었다. 상황판단이 빠르니 상대편 적군의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자율을 보장받은 만큼 책임은 혹독했다. 소규모건 대규모건 결과가 실패하면 현장 책임자는 즉시 문책되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책임자에게 똑같은 '자율'이 부과된다. 이런 체계가 미리부터 준비되었으니 누구도 대장이 되면 자기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처럼 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군의 군사작전이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은 '일선 최우선', '스스로 작전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 즉 자율이었다.

이런 성공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히틀러의 카리스마가 관여하면 서부터이다. 전쟁 초기 히틀러는 군부의 협조를 받으려고 그들과 타협했다. 당시 군대는 정치적이라기보다 전통을 중요시 했으니까. 문제는 1940년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히틀러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정복으로 독일국민들은 히틀러에게 더욱 열광했고 그는 역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판단 착오가 시작된다. 히틀러는 1941년 스스로 전쟁 일선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독일 육군 총사령관에 오른다.

유럽 전쟁사에서 유명한 사건은 러시아 침공이다. 이미 나폴레옹이 실패했다.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히틀러의 야망이었고, 독일군대는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죽을 각오로 버티는 소련 군대에게 독일은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전쟁 일선에서는 '우리'라는 보기가 올라왔지만 히틀러는 모스크바 점령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지휘관들을 경질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군부를 자기 휘하에 복종하도록 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는다. 그리고 일선 기갑부대까지 직접 통제하였다.

그 다음 결과? 독일군의 하향곡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은 대참패한다. 히틀러는 끝까지 사수 하라고 명령하지만 일선 친위장갑군단장 하우저는 무의미한 패배보다는 후퇴를 택했다. 일선의 항명이었다. 그러나 하우저는 승리에 도취한 스탈린의 소련 군대를 곧바로 역습해서 엄청난 승리를 얻는다. 물론 하우저 휘하 연대, 대대, 중대, 소대도 현장에서 독자적 작전 수행을 한 결과였다. 독일군 전통방식을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히틀러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독일은 이때부터 2차 세계대전에서 쇠락하기 시작한다. 독일군대 승리의 원동력은 '자율'이었던 것이다. 일선 장군들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효과적일까'보다 '어떻게 해야 히틀러의 질타를 피할까'를 고민하면서 패배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것이다.

둘, 허정무의 독선이 변했다

한국 축구사에 허정무 만큼 칭찬과 욕이 난무한 지도자가 있을까. 그의 별명은 '진돗개'다. 진돗개란 다른 개와 달리 유달리 주인에게 충성도가 높다. 그 점은 다른 뜻으로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이기면 진





뚝개, 지면 뚝개. 허정무는 일선 감독으로서 이 말 만큼 풍파가 심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고집불통이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았다. 좋게 말해 소신이 뚜렷했지만 편견도 심하다는 말이다.

2008년 9월 10일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 축구. 언론이 수비 불안과 골 결정력 부족을 탓하자 속칭 '웃기지 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에 휩싸였다. 이때 허정무의 환경은 일대 전환기였다. 실패와 비난의 연속이었으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축구감독 때 2승 1패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8강 진출에 실패했다. 같은 해 열린 아시안컵은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해 감독직을 사퇴했다. 이후 국가대표팀은 허딩크 등 외국인 감독을 택한다. 2008년 다시 취임한 감독직. 어쩌면 감독직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런데 불안한 출발. 더구나 북한과의 경기가 지리멸렬했다. 허정무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런 그가 한 달 후 변했다.

2008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아시아 최종경기 때 주장 김남일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을 때 박지성에게 주장 완장을 맡기며 '자율'을 얘기했다.

"경기장에서 네가 감독이다. 감독이 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장이 이끌어야 한다"

사실 허정무는 감독을 맡으면서 대표팀을 자율과 화합의 장으로 변화시켜왔다. 선후배의 위계질서, 감독과 코치의 권위 등은 당시 대한민국 축구팀의 강력한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허정무의 대표팀은 달랐다. 선수들은 박지성을 '아빠', 고민을 들어주던 이영표는 '엄마', 늘 파이팅을 외치는 김남일을 '삼촌'이라 불렀다. 팀 분위기가 선수들끼리 자율적 환경이었다는 것. 물론 그 뒤에서 이런 분위기를 유도한 건 허정무다. 그는 카리스마 대신 부드러움을 택했다.

2009년 2월 동아시아선수권 대회.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게 패했다. 다시 언론은 난리났고, 선수들의 분위기도 한없이 다운됐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식당에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흘러 나왔다.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던 선수들은 "음악 좋지? 모두 잊자"는 허 감독의 말에 깔깔 웃었다. 사흘 뒤 한일전은 3:1 완승으로 끝났다.

허정무의 자율 백서

1. 강압보다 자율 중시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 상사와 동료 간 끈끈한 믿음

말 한마디가 천 냥이다.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습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라. 자연스럽게 신뢰로 이어진다.

3. 된다고 말하고 후한 점수를 주라

상사의 업무 지시에 그게 왜 안 되는 일인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하직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 고민하는 부하 직원에게 과감하게 상을 주라.

박지성의 자율백서

1. 업무 지시만 내린다고?

업무 지시 요란한 상사에게 존경은 남의 나라 얘기다. 먼저 움직이고 솔선수범해야 모두 산다.

2. 감히 어딜? 끈대 되지 말자

"내가 신입일 땐..." "막내란 말이야..." 등의 발언은 고리타분한 구세대다. 나부터 변화하자.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부른다. 부하직원들이 비웃지만 이미 그들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한다.

3. 입보다 귀가 땡

후배 말 경청하자. 이런 자세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각인된다. 후배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배려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된다. 다음날 후배는 알아서 일한다.

셋, 자율은 신뢰에서 시작한다.

언론에서 한화 이글스 야구가 연일 화제다. 만년 꼴찌 한화는 어느덧 가을야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 화제의 중심은 한용덕 감독.

"제가 한 게 있어야죠. 선수들이 잘 한 거지."

한용덕이 언론 인터뷰에서 항상 하는 말이다. 어떻게 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화가 어떤 팀인가. 일명 '삼김'이 감독으로 있었던 팀이다. 김인식, 김용룡, 김성근이 사령탑을 지냈던 팀. 모두 한국 야구사에서 독보적인 금지탑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2008년부터 5위를 시작으로 2017년 작년까지 10년째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다. 더구나 꼴찌는 5번. 최악이었다.

그런 한화가 달라졌다. 지는 게임보다 이기는 게임이 더 많아진 것. 그 중 놀라운 점은 역전승이다. 5회까지 밀렸지만 9회에는 이긴 결과를 만들어냈다. 7회까지 밀린 경기에서도 역전승이 타구단보다 가장 많다.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다.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 한용덕은 선수의 공으로 돌린다.



글/강병현(극작가·연출가)

그 이전 감독들은 어땠을까. 가장 가까운 김성근 감독의 경우 경기 중 모든 지시가 감독에게서 시작되고 끝났다. 1루 코치, 3루 코치, 심지어 일선 사령관이랄 수 있는 포수에게 세세한 지시가 떨어졌다. 선수와 코치는 현장상황 판단보다는 감독의 사인이 우선되었다. 그런데 계속 꼴찌였다. 지는 경기가 끝나면 질책성 훈련이 따로 남았다. 선수들은 진 경기에 침울했고, 질책성 훈련에 몸이 쉴 틈도 없이 망가졌다. 그리고 다음날 또 졌다. 결국 김성근 감독은 경질되었다.

한화 이글스에 한용덕 감독이 취임한 후 선수단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는 경기에도 감독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저 수고했다고 선수의 어깨를 툭 쳐줬다. 다음날 경기가 6시에 시작되면 보통의 경우 투수는 바짝 긴장하여 최소한 2시 이전에 야구장에 나온다. 빠르면 12시에도 나왔다. 그런데 한용덕은 달랐다. 투수는 야구 시작 전 2시간 전에 나오면 되었다. 어깨가 생명인 투수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리고 알아서 하지 따로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한용덕은 선수들을 믿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하는 선수 한 명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기는 경기를 살펴보면 각 요소마다 잘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제 몫을 해준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몇몇 선수들에게 치중된 것이 아니기에 더 의미가 있다"

한 명이 아니라 선수를 모두 각각 믿는다는 것이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파악하고 제 각각 환경에 맞춰 믿어주는 것. 당연하고 쉽게 보이지만 사실 감독으로서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는 경기나 이기는 경기나 한용덕은 박수를 많이 친다.

"기존 몇몇 선수들 중심으로 가면 이렇게 팀이 좋게 굴러가지 못한다. 각자 제 몫을 해주기에 지금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것 같다. 감독인 저는 박수만 칠 따름이다"

믿어주고 박수를 친다. 한국야구에서는 드문 일이다. 야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자율'과 '리더십'. 섞이기 힘든 두 단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카리스마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고, 자율이 성공한 예도 있었다. 카리스마와 자율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당신을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강력하건 부드럽건 많은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쉬운 방법이고 효과적이니까. 하지만 당신이 자율의 리더십을 택한다면 가장 먼저 신뢰라는 단어를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란 말이 있다. 그런데 그 칭찬 이전에 신뢰라는 단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신뢰명언'

1. 사람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것이다. 그들을 위대한 사람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보여줄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미국 시인이자 사상가)
2. 독불장군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자신을 낮추면 낮추수록 견고하게 되는 법이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러시아 소설가)
3.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다.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앙리 프레데리크 아미엘 (스위스 철학자)

4. 선(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미국 철학자·시인·수필가)
5. 사람마다 감정은행계좌라는 것이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행계좌에 잔고가 충분하다면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동계좌라면 사소한 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스티븐 코비 (미국 기업인이자 컨설턴트)

WORLD TRAVEL

동유럽

체코와 오스트리아

프라하의 봄, <장미의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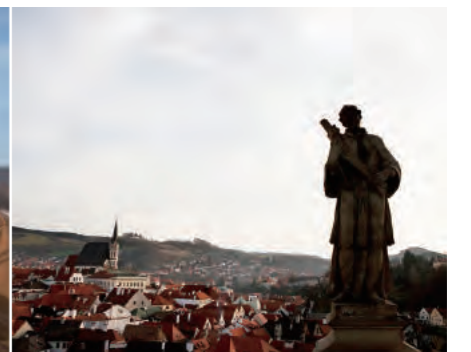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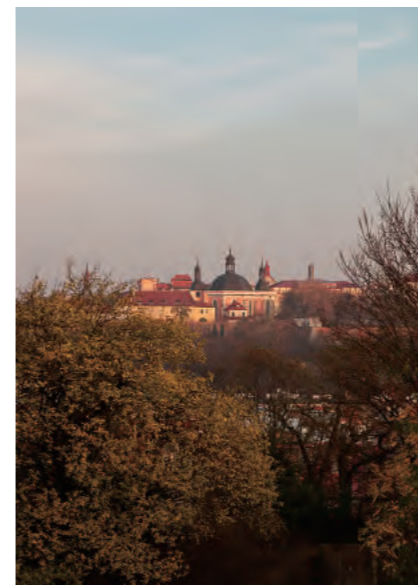


체코, 프라하의 봄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 체코슬로바키아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요구하게 된다. 개혁의 바람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소련은 이들에게 총부리를 겨눈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에 저항하던 많은 체코 국민들이 희생되거나 외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1988년 고르바초프에 의해 소련의 개혁이 시작되고, 체코의 민주화 개혁 요구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공산정권이 퇴진한다. 진정한 프라하의 봄은 찾아온다.

이러한 역사는 몰다우(Moldau) 강물이 되어 흘러갔다. 그리고 강물을 가로질러 카를교(chales Bridge)가 놓여 있다.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 현존하는 유럽 최고의 다리로 손꼽힌다. 프라하의 기독교 순교 성자인 네포무크의 조각상 등이 세워져 있다. 그 조각상 가운데 독특한 모양의 부조 위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은 자유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스키 크롬노프(Cesky Krumlov)는 남부 보헤미아의 숲으로 뒤덮인 평원에 자리잡고 있다. 어느 대지주가 S자를 그리며 흐르는 몰다우 강변에 고딕 양식의 성곽을 건설하여 7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붉은기와자붕이 잇달아 있는 중세풍의 건물들이 동화 속의 성곽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망토의 다리를 통과해야 이 성곽과 만나게 된다. 마치 체코의 비극적인 현대사와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이 다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자연이 곧 예술이다

비엔나의 헨부른 궁전. 아름다운 분수가 있는 궁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베르사유 궁전에 견주어서 만들어진 화려한 왕궁이다. 한편 이 궁전은 그녀의 딸 마리아 앙뜨와네트가 15세까지 지내던 곳으로 유명하다.

궁전 건물을 지나면 약 1.7km에 달하는 아름다운 바로크 왕궁 정원이 나온다. 잘 손질된 정원수, 화단의 기하학적인 분수, 조각상 등이 한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연에 창조적인 손길이 닿으면 예술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가 마을 할슈타트(Hallstatt), 팔츠카머구트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마을이다. 프란츠 조세프 1세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부른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바위소금을 채굴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알프스 산맥의 거친 암반으로 이뤄진 산과 깨끗한 호수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자연 경관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예술일 수밖에 없었다.

바로크 양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멜크 수도원,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찾아가고 싶은 곳이었다. 중세의 생활상과 세계관, 이단논쟁과 종교재판, 수도원의 장서관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종교적 독선과 편견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던 유럽의 암울한 역사를 펼쳐 보인 소설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움베르트 에코의 추리소설 <장미의 이름>이 그것이다. 장미의 이름이란 과거의 찬란하고 영원불멸할 것 같던 존재들이 덧없는 기억으로만 남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무상한 인생, 천재적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예술이 된다.



장기주(시인·사진가)



숙명여대 ICT융합공학부 **윤용익** 교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소통, IT교육 발전의 비결”

■ 졸업 앨범 사진 촬영을 위한 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을 생동감 있게 물들이는 5월 중순의 오후에 윤용익 교수를 찾았다. ICT융합공학부가 자리한 ‘새힘관’은 대학 캠퍼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고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생기 가득한 교정의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새힘관 내부의 강의실과 연구실은 차분하게 정돈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교수의 연구실은 역동적인 분위기가 넘쳤다.

“제 방은 정돈이 안 되어서 항상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대학은 물론 목멱산과 남산타워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마치 정원처럼 감상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때마침 윤용익 교수의 연구실 창으로는 신록이 짙어진 숙명여대 캠퍼스와 청파동, 남영동, 후암동 그리고 남산이 손에 잡힐 듯 들어와 있었다. 연구실 복도는 넓었고, 곳곳에 꽃과 아기자기한 장식 물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어 발걸음을 잡았다. 연구실 방문과 안내판 마다에는 학생들의 재치 넘치는 글귀가 붙여져 있었다.

“우리 학과 연구실 문은 항상 열려있어요. 정숙함을 요하는 타 학과 연구실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할 수 있어요. 교수를 찾아오는 학생들로 항상 북적이고 거리낌 없이 대화도 나눕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학과 경쟁력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익 교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다가 만난

한 학생이 올린 상담내용과 책장 곳곳마다 놓인 그와 학생들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 겹쳐져 참 따뜻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한이음 ICT멘토링>의 소문난 멘토이기도 한 그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는 것’으로 유명할 만큼 학생들과 연구를 위해, 그리고 대외활동을 위해 시간을 모범적으로 쪼개 쓰고 있다. 그와의 1시간 40분간 인터뷰를 통해 IT교육 전반에 걸친 유익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때마침 ‘스승의 날’ 부근이어서 요즘 일고 있는 여러 상황이 그의 연구실 책장을 채우고 있는 미소를 유발하게 만드는 사진-학생들과의 격의 없는 다정한 모습-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쉬움은 덤으로 느껴졌다.

Q : 숙명여대 ICT융합공학부 ‘IT공학전공’에 관련한 약사,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1997년 전산학과로 처음 부임하였고, 1999년 정보과학부 멀티미디어학과를 신설하여 새로운 학문분야 교수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16년에 숙명여대에 공대가 설립되면서 ICT공학부, IT공학전공으로 새롭게 도약하였습니다. 저희 학과는 생활 속에 IT 기기가 공존하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추어 더욱 발전된 IT 신기술과 여성 친화적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의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자체의 핵심 코어의 기술 개발 인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Q : 'IT공학전공'이 2017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신인 '멀티미디어학과' 때부터 교내 취업률 최상위 학과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A :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소통'이 학과 발전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하지만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산업분야별로 필요한 핵심역량·교과목 등과 대학 교육과정의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산업수요 및 맞춤형 교육체제를 갖추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IT공학전공이 소프트웨어 분야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것은 산업계 출신 교수들을 통해 경쟁력과 연구비수주 비율을 높여 각종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게 된 것을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실적과 특허실적 등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산업계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업계 출신 교수들은 기업과의 연계를 높이는데 도움을 크게 주는 것은 물론 산학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수행해냅니다.

교수들의 대외활동은 학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 또한 높여줍니다. 산업계 교수들의 4차 산업의 첨단 프로젝트 경험, 양질의 현장 실무 경력은 학생들에게 신속하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최근에 40대 초반의 산업계 경험이 풍부한 세 분을 교수로 선발해서 교수진을 보강했습니다. 물론 연구 수주 능력을 산업계 관점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 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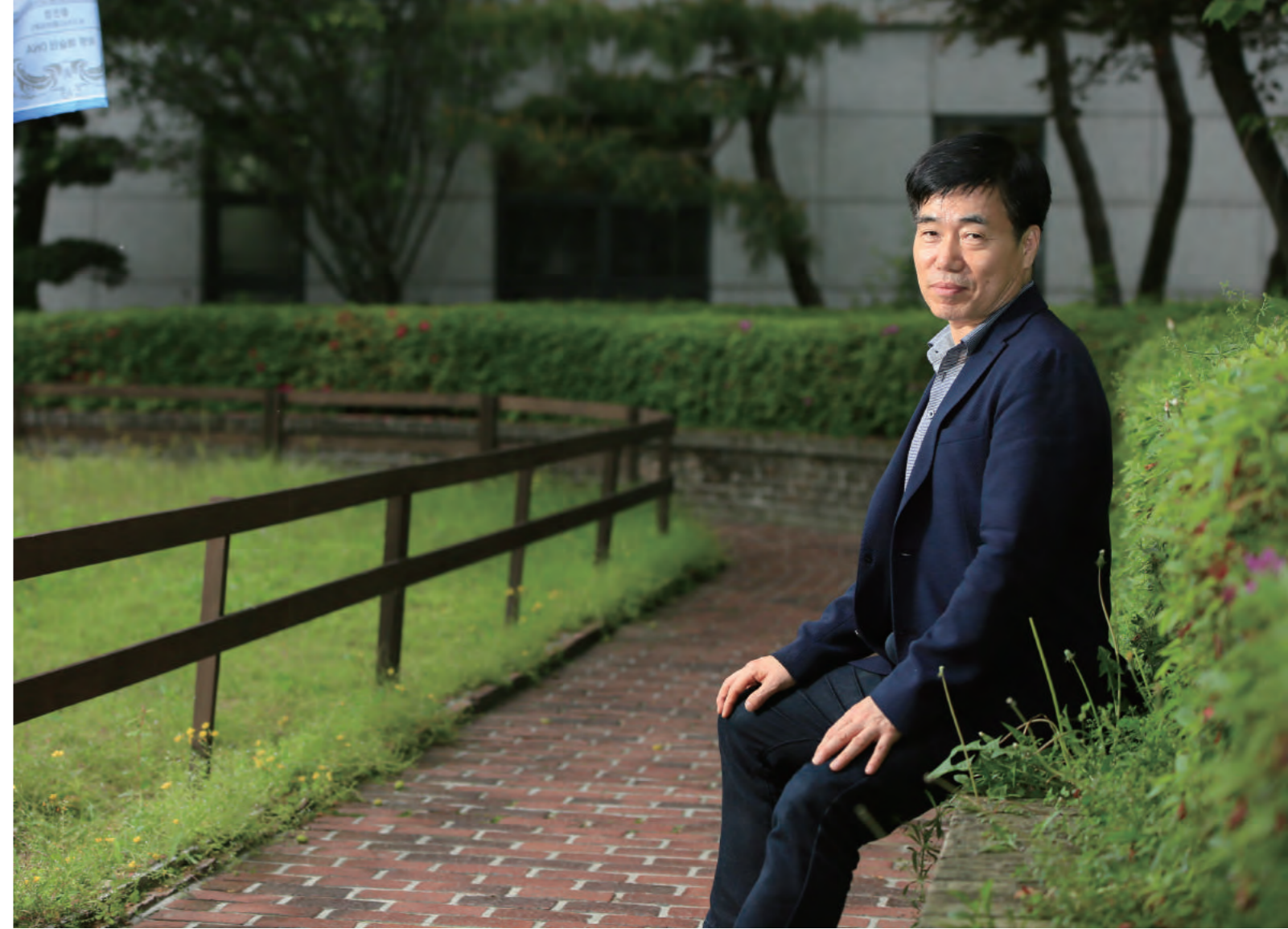
저희 대학에서는 미래 신성장 산업과 IT 융합 분야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가지 트랙으로 특성화했습니다. 모바일과 웨

어러블 장치 등 각종 스마트 기기의 솔루션 트랙, 데이터의 수집 관리부터 분석 활용을 위한 기법을 다루는 데이터공학 트랙, 인체의 특징과 감성을 소프트웨어 및 지능형 IT 기기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감성 컴퓨팅 트랙으로 나누어 집중 교육합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학문을 배움으로써, 최근 융합화 시대가 요구하는 통섭적인 차세대 IT 리더를 양성하는 3가지 트랙 방식 교육법 또한 주요 가산점 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Q : 숙대 IT공학 전공을 포함하여 국내 전체 IT교육을 위해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A : 전체적으로 기반소프트웨어 기술이 약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어서, 응용소프트웨어 기술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의 핵심 기술인 '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과 4차 산업에서 부각되는 인공지능 등의 핵심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반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하지만 응용소프트웨어 기술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 분야에서의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 소스 등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추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 시대에서 요구하는 신 가치 창출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의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자체의 핵심 코어의 기술 개발 인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ICBM 분야도 모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새롭게 발전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IoT도 지능형 IoT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중의 분산 저장시스템은 뜨거운 감자라 하겠습니다. 국내에 이 분야를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블록체인을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인력이 매우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요소는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너도나도 덩벼드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보안기술과 함께 분산 저장 처리기술 연구를 제고할 때라 생각합니다. 운영체제(OS), 분산 파일 시스템, 가상화 등의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만드는 책임자는 아주 적습니다. 기반기술의 저변이 적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IT 발전을 위해 기반기술과 활용기술의 인

력양성 교육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가 기술력 축적에 따른 이익창출도 극대화 됩니다. 저 역시 작금의 기반기술을 등한하게 한 결과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기반기술은 외국의 것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응용과 활용기술만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뼈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Q :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IT정신, 특히 '여성과 IT'를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가치를 찾고 있는지요?

A : 저는 창의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틀에 매이기 보다는 역발상을 통한 새로운 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역발상은 모방과 그 모방을 통한 새로운 창조물의 도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권합니다. 단순한 생각보다는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 그동안 섭렵한 정보, 문

화, 경험을 통해 자기 독창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IT 분야는 그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의 다양한 융합과 응용, 활동 곧 적용 분야는 곧 경험에서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영화를 경험 수업의 교재로 자주 활용합니다. SF영화일 때도 있고, 일반 드라마일 때도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구체적인 IT기술 적용법 찾기, 개선점 찾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화를 통해 법(法) 알기를 지도합니다. 여기서 법은 곧 각종 규제를 말합니다. 저 영화에서는 이것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데 현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등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성들은 데이터 분석을 잘합니다. 이점에 주목해서 숙대는 전교생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소프트웨어 마인드' 교과목을 설치해서 자기 분야의 소프트웨어 적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의 마인드에 융합 전공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성들은 IT분야에서 소비자, 홍보, 광고, 디자인, 문학, 예술 분야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학교적으로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IT를 접목시키는 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여성이 가야할 자기 분야마다에 IT를 접목시켜 시너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 활용을 어떻게 하는 가, 즉 도메인 알리기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IT는 약방의 감초와도 같아서 안 쓰는 것을 찾아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비전공자, 즉 자신의 영역의 지식을 갖고 비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코딩을 배우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 광고, 미디어, 디자인, 음악(피아노, 성악, 작곡), 체육 전공자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IT기술을 기발하게 접목시키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현재 120명을 수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보람은 큼니다.

Q :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시행하는 한이음 ICT멘토링 사업인 <한이음>경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어떻게 <한이음>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경험 상 장려해야 될 부분과 보완해야 할 사항은?

A :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이음과 연계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1학기 학점에 2학기를 투자해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학생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의 관심과 의욕이 높아진 때문에 수업과 연계해서 끌고 갈 예정입니다. 현재 5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즉 취업의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

IT는 약방의 감초와도 같아서 안 쓰는 것을 찾아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비전공자, 즉 자신의 영역의 지식을 갖고 비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코딩을 배우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멘토는 물론 대기업의 인사팀과도 연계해서 실무위주로 판을 벌일 수 있도록 주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람회와 경우처럼 취업 담당자인 인사책임자와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 두 분야 책임자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Q : 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14년 넘게 근무하면서 TDX-10 교환기 개발사업, 이동통신 개발사업, ATM 교환기 개발 사업을 한 이력 등을 갖고 계십니다. 대학에서는 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기도 했지요. 실제로 여학생들의 벤처 창업에 대한 생각은?

A :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창업을 먼저 권합니다. 물론 창업에는 벤처와 실패 양면이 존재합니다. 젊어서의 창업 경험은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벤처 창업 성공률은 1%에 불과합니다. 제가 창업을 돕던 두 팀 중 한 팀은 아주 훌륭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의 스카우트 제의에 분열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창업의 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을 때 합병 등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 창업에 있어,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에 정신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성이기에 남성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야한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교육 말입니다.

Q : 1997년 전산학과 교수로 부임, 평일 대부분은 학교에서 지내는 교수, 퇴근시간이 따로 없는 교수로 유명합니다. 교수님이 그동안 숙대에서 이론 대표적인 성과 두 가지만 꼽는다면?

A : 글썬요, 어찌 보면 평범한 일인데... 그저 열



심히 했어요. 덕분에 20년 동안 연구 봉사 실적이 최상위를 유지해왔고요. 학회, 기관 자문에 등의 봉사하는 대외활동 또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과의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녁 8시 이후에 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퇴근시간이 자연 12시가 된 것이지요.

Q : 대학 교육, 특히 IT 및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하여 이 점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A : 한숨(윤 교수는 이 질문에 한숨을 먼저 내쉬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실무교육 위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적다는 것이고요. IT 분야는 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여건은 대학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실습 중심의 교육을 위한 환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의 여건 상, 분반의 규모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습 과목을 정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30명 이내의 규모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 특히 소프트웨어 실습교육은 학생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실습 중심의 교육은 절대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반대로 만약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A ; 저는 '백년 코딩맨'으로 남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 중 잘하는 분야라 할 기획과 코딩을 융합해서 벤처 기술고문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전문지식, IT 분야가 아닌 수학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수학을 배경으로 하고 IT는 도구로 삼아서 이루고 싶은 분야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욕심을 더 낸다면 심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싶어요. 미래는 사람을 대하는 인지 과학의 시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속에서는 학생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 평소 생각입니다. 이러한 학과 분위기 안에서 4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만 있다면 미래 IT인재로서의 자질은 저절로 길러지는 곳이 바로 우리 학과라 자신합니다.”

“10년, 20년 뒤에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코딩을 하

는 백년 코딩맨”이 될 것이라는 윤용익 교수에게서는 현장을 향한 허기가 전해진다. 코딩에 전념하지 못하는 여건과 미래 과학에 쓰일 학문적 배고픔이 아직도 온몸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 철칙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여가 찾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그 방법으로 저는 메이저리그 경기나 NBA 경기를 통합니다. 나만의 팀을 만들어 운동을 하고요. 주말에는 자전거를 탑니다. 실내 자전거입니다. 아웃도어는 위험하기에 중단했습니다. 보통 약간의 부하를 걸어 2~3시간 정도 탑니다. 그럼 30~50 km 정도입니다. 또한, 주말에 아령으로 근력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20kg 아령을 총 500회 정도 듭니다. 저, 개인만의 만족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하하하! (웃음)”

“평소 어떤 책을 즐겨 읽습니까?”

“예전에 도서관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던 만큼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때는 문학에 뜻을 둔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문학서적보다는 <성경의 힘>과 겸손, 양보하는 마음을 일러주는 정요진의 <행복한 경영학>을 들겠습니다.

예정된 인터뷰 시간 1시간 40분을 화살처럼 쏘아 보내고 멋진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앨범사진을 촬영한 졸업 학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꽃이 비밀의 화원처럼 피어있는 교정으로 나섰다. 저녁 약속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 보이는 윤용익 교수였지만 자신이 택한 촬영 장소의 배경을 자랑하며 씩씩스러운 포즈도 마다하지 않았다. 5월의 속명여대 교정은 싱그러웠다.

정리/진술아 · 사진/모델리아니



윤용익 교수 Profile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박사
 (현) 숙명여대 교수
 전) ATM 교환기 개발사업 (실시간 DBMS 개발)
 이동통신 개발사업 (HLR 개발)
 TDX-10 교환기 개발 사업 (실시간 OS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교환기시스템 개발 환경 연구 사업

한이음 ICT멘토링 지도 멘토 모집



신청자격

산업체 ICT관련 직무에 재직 중인 관련 직종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ICT전문가
 * ICT관련 분야 석사학위자 경력 1년 인정, 박사학위자 경력 2년, ICT기술사 경력 5년 인정
 * ICT관련 부서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ICT관련 직무 수행여부를 기술하여 경력인정

신청절차



* 신청서류	현재직증명서, 現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증빙 불가한 경우 제출)
* 경력증빙가능 서류	해당 산업체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www.el.go.kr)에서 출력가능 석·박사 학위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 ICT기술사 자격증
* 서류 제출처	우편 : [03925]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8층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멘토링사업팀 한이음멘토 담당자 이메일 : hanium@fkii.org
* 신청기간	상시

지원사항

- 멘토지원**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지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 지원 (주멘토 1명만 지급)
 - 지급기준 : 11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멘토당 최대 5건까지 지급
 - ① 기본활동수당 : 월 15만원 이내/건×수행기간
프로젝트별 오프라인미팅 2회 이상 진행 요망
 - ② 심화활동수당 : 10만원/회×오프라인미팅횟수
오프라인미팅 2회를 초과한 1회당 10만원 지급(최대 5회)
 - 지급시기 : 매년 12월 말 일괄지급
 - 지급방법 : 멘토 본인명의 계좌에 일괄 이체함(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당해연도 프로젝트 지도 멘토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 수여**
- 팀지원** 실습환경 : 실습장비, 오프라인미팅 회의실·교통비, 클라우드서버
성과지원 : 특허출원수수료, 논문게재료, 프로그램/앱 등록비
- 기타** 인력양성유공자 표창 (우수멘토 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올해의 멘토 선정 및 시상 (우수멘토 10명,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상)
우수작 상장 및 부상 (지도팀이 대상 수상 시 해당팀에게 상금 500만원 수여 및 미국 해외연수 기회제공)



문의

- 한이음사이트(www.hanium.or.kr) 질문게시판
- 02-2132-0712~6
- hanium@fkii.org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멘토링사업팀

NDS솔루션 김남교 대표이사

디지털 사이니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꿈꾸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공간정보를 서비스하는 ‘큐-웨이파인더(Q-Wayfinder)’가 소프트웨어상품대상 멀티미디어&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문 4월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에 필요로 했던 플래시나 3D맥스(MAX), 스케치업을 다루는 디자이너나 별도의 엔지니어 없이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제품을 개발한 NDS솔루션은 올해로 10주년을 맞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기업이다.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실 있는 기업 운영으로 업계 선두이자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기업명 역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에 네트워크(Network)를 더한 의미여서 한 분야에 전념해 온 기업의 정체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연 20조 규모로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는 35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태다. 시장은 벌써부터 대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NDS솔루션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한발 한발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NDS솔루션은 길 안내 콘텐츠 저작 툴인 ‘큐-웨이파인더’, 사이니지 매니저 프로그램 ‘큐-사인(Q-Sing)’ 소프트웨어와 미리 형을 비롯한 다양한 키오스크 제품을 제작한다.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여개 나라에 걸쳐 다양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NDS솔루션의 김남교 대표이사를 눈부신 5월 본사가 위치한 용인에서 만났다.

Q : 대표님께서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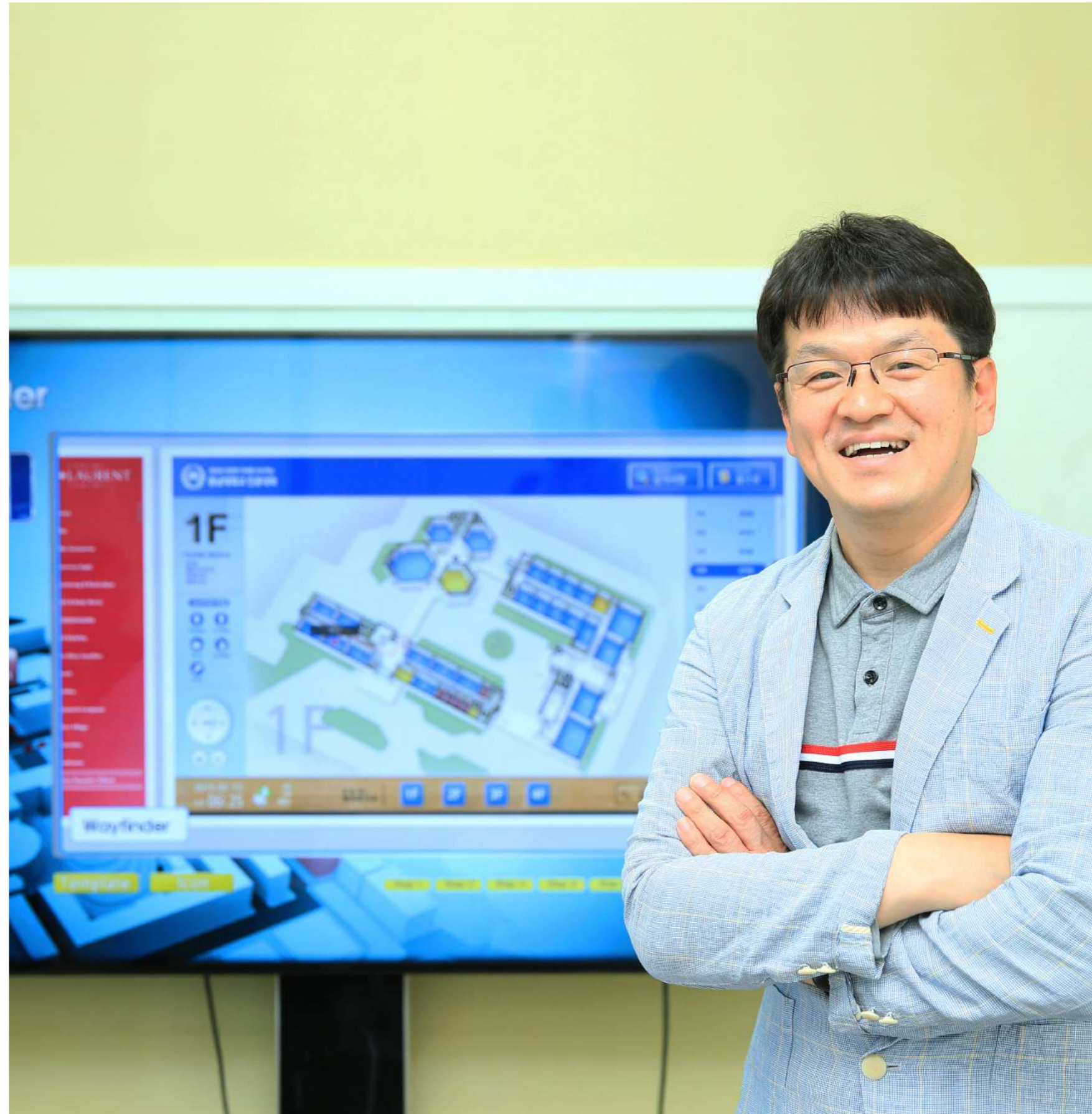
A : 사이니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업 이전에 지속적으로 국내외 마케팅 영업을 해왔고 온라인 기업과 협업도 하며 벤처기업에서 네트워크, 씬클라이언트, IP셋톱박스 분야도 경험해 보았죠. 마지막 직장이 디스플레이 회사였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경험에 콘텐츠를 양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다면 창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패한다고 해도 동네 가게에 스크린 걸어주고 광고 송출하고 직접 영업하면 굶어죽지는 않겠다(웃음)하고는 동료 개발자들처럼 창업을 했습니다.

Q : 당시만 해도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시절 아닌가요?

A : 그랬죠. 하지만 세계 어디든 광고판들이 곧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뀔 거라고 예측했고, 적당한 솔루션만 보유한다면 시장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사이니지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Q : 큐-웨이파인더(Q-wayfinder)의 개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 어떤 서비스, 어떤 제품이든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 콘텐츠 소프트웨어로 영상과 자막, 이미지를 스케줄링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관리하는 정도였어요. 개발자들이 6개월 만에 만들어서 시장 선점하고 영업해왔는데 사이니지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국내는 물론



앞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큐-웨이파인더(Q-Wayfinder)'의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사이니지 전문 저작도구를 클라우드 버전으로 라이선스화해서 해외 파트너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지요.

해외에서도 저희를 따라하는 업체도 많아졌고 기술이나 서비스 면에서 접근이 쉬워진 거예요. 그 즈음이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대구나!' 싶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만 개발한다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양한 산업에 융합될 수 있는 잠재력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영화 티켓팅, 메뉴 오더기도 다뤘는데 시스템통합(SI) 부분들이 본 업무보다 많아지고 커지니까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길 안내 콘텐츠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큐-웨이파인더는 콘텐츠 저작도구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때마침 용인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연구지원 프로그램 '해외시장을 개척할 좋은 아이디어'에 선정되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연구 개발이 가능했다. 제품은 이미 GS(Good Software)인증 2건, 관련 특허 2건 등 기술 재산권 확보는 물론이고 품질 인증도 마친 상태다.

큐-웨이파인더는 기술력은 물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통 길 안내 프로그램을 제작을 위해 팀을 구성하게 되면 최소 시작 단가가 1천만 원 이상이라는데 큐-웨이파인더라면 2D 디자이너 한 명이면 족하다. 저작 툴과 기본 템플릿으로 제작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단순한 광고 홍보에서부터 길안내, 층간 검색 등 프로젝트 성격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쉽다. 덕분에 해외 시장에서 레퍼런스 구축도 비교 우위에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공간에 참여가 늘어나 의뢰도 다양해지고 입찰 성공률도

90% 이상이라고 전했다.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큰 분야에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와 네트워크 관리 툴, 일정 수준 이상의 바이어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때문에 큐-웨이파인더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배경이 없었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고 해도 제 경험상 어려웠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요.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와 접근성, 그동안 쌓아온 시장 노하우와 신뢰가 종합적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니까요.”

NDS솔루션은 국내 관공서, 병원, 영화관, 해외 다수의 국가 지역에 실내외 제품 설치 사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한양대학교 캠퍼스 안내 키오스크 70대 설치, 판교 테크노밸리 7개 상가 건물 안내 키오스크, 그 외 강원랜드에 조성되는 워터파크 사이니지가 최근 설치 사례 중 대표적이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무인화 환경 작업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 작업도 진행 중인데,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래 사이니지 업계가 3, 4, 5월은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비수기이지만 NDS솔루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Q : 큐-웨이파인더의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A : 저작도구를 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싶어요. 해외 업체들은 저희가 레퍼런스도 많고 기술도 좋고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해서 구매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서비스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이란 게 '양날의 검'이죠. 일종의 기획서고 또 기술 카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클라우드입니다. 사이니지 전문 저작도구를 클라우드 버전으로 라이선스화 해서 해외 파트너들에게 판매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Q : NDS솔루션은 다양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이니지 전문기업'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해외 수출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 저희는 일단 전시 위주의 마케팅을 했어요. 지금도 해외 전시를 연 4~6회 나갑니다. 10년이니까 경험이 많이 축적 됐겠죠(웃음)? 전시는 지역 마케팅입니다. 관련 산업이 세분화되면서 많은 전시회와 박람회가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유럽 세빗(CeBIT)이나 이파(IFA), MWC 정도였지만 지금은 각 나라별 정도통신 전시회와 디지털 사이니지 엑스포(DSE), 인포콤(InfoComm) 등 그 분야와 규모 면에서도 다양합니다. 초창기에는 종합 IT전시회를 선호합니다만

크게 소득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랬고요. 그래도 AV기기를 다루는 인포콤(InfoComm) 전시는 추천할 만하죠.

시각을 달리해서 아날로그 싸인 전시회도 좋습니다. 프린팅이나 외관 사인보드 전시회는 트레이디셔널한 기자재 전시회라 규모도 크고 회사 결정권자들이 주요 참관자로 와요. 그 사람들은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저희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죠. 실제로 매칭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규모 유명 전시회나 박람회 한번 참가해보고 성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전시회에서 접촉한 업체에 이메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져요.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소규모 벤처 기업에게는 부담이고 소모적인 일이니까요. 그보다는 직접 만나서 일단락 지어야 합니다.

NDS솔루션은 설립 초창기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다. 10년 동안 전시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발을 넓히다보니 자연스럽게 현지 파트너가 생겼고 협업 프로젝트 진행도 잦아졌다.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로서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고 업체 인력을 트레이닝하면서 업체 오너들로부터 신뢰가 쌓였다. 지금은 해외의 웬만한 디지털 사이니지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김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김남교 대표는 출장 일정이 잡히면 동선부터 짜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계약이 성사되면 그 주변국까지 돌아보고 업체를 만나고 경유해서 오가면서 최대한 많은 업체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렇게 연중 삼분의 일을 해외에 체류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못 다닌다는 푸념이지만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Q : 대표님께서 평소 생각하신 국내 IT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A : IT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뉜다고 봐요. 요즘 IT 생태계는, 예를 들어 골목상권 종사자들이 대형 마트 하나 들



김남교 대표는 사업 외적으로 호기심도 강하고 미지에 대한 탐험가적 기질 덕분에 해외 현지 문화 체험과 사회 경제를 들여다보는 것을 즐긴다. 개인적인 목표는 한국에서 100억이 아니라 해외 거점을 두고 각 지역별로 10억씩 매출을 올려 100억 버는 회사, 디지털 사이니즈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역사에 관심 있다는 그의 롤 모델은 줄리어스 시저(Gaius Julius Caesar)다. 정복자로서의 시저가 아닌 법률, 행정, 문화, 다분야로 박식하고 합리적이었던 전인적 인간됨을 손꼽았다. 바라건대 NDS 솔루션의 수장으로서 그 옛날 시저의 기세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꿈을 이루기를! 더불어 그가 감동해마지 않는다는 로마의 유구한 역사처럼 기업의 미래도 오래도록 번영하기를 응원한다.

어오면 고용인이 되는 것처럼 IT도 비슷해지고 있어요. 빅 데이터나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것들은 작은 회사에서 벌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파이가 큰 놈부터 없어진다고 하죠. 큰 것을 욕심내기보다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개발 같은 분야에서 내실을 다진다면 제 분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또 국내 IT업계 토양을 탄탄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해요. 저희도 하나의 서버로 수백에서 수천 개의 매장을 컨트롤 하는 방식은 타겟 마켓이 아니에요. 백화점, 대학교, 호텔, 병원 등 자체 서버로 통합 관리하고 터치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이죠. 시장은 계속 커질 테지만 작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큰 기업에서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저희가 저작도구를 서비스하면 그 툴을 쓰는 사람이 지역에서 5명 이하로 직원을 두고 소규모로 업체 운영이 가능할 테니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웃음).

김남교 대표는 고전 읽기에도 취미가 있다. <삼국지>, <손자병법>, <초한지> 같은 책 속에서 지혜를 얻고 생각이 깊어졌다면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와 함께 읽기를 권했다. <험릿>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주목했다. '파도가 밀려온다면 바위 뒤에 숨기보다 맞서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며 호불호를 넘어선 삶의 경험들에 큰 가치를 뒀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웨이파인더 클라우드 버전이 완성되면 웬만한 월급쟁이처럼 죽기 전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농담 섞인 진담을 건넸다. 큰 욕심 없이 시작했던 그 때처럼 지금도 그 겸허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고전의 지혜로 상생을 꾀하는 경영인, 세계를 탐험하고 파도 앞에 행동하는 용기로 그가 그려낼 NDS솔루션의 미래를 지켜보고 싶어졌다.

정리/최진혁 · 사진/이재훈

NDS솔루션은 김남교 대표를 포함해 현재 총 11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있다. 작은 규모이지만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하여서는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까지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정예 멤버다. 2018년에는 해외에서 4~5억 원, 국내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7, 8년 전까지는 해외 매출이 전체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그동안 국내의 환경이 많이 달라져 최근에는 국내 매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남교 대표이사 Profile
동국대학교 영문학 석사

현) 엔디에스솔루션㈜ 창업 및 대표 이사 재직 중
전) 나래 이동 통신 회사 입사 및 엠아이넷 등 IT 회사 해외 사업부 팀장

수상내역
지역SW산업진흥 공로자 포상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우수과제 선정
K-ICT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멀티미디어 & 서비스SW부문 입상



4차 산업혁명을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함께 이끌어갈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건의 및 개선 지원

주관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할인 (최대 30%)

회원 정례 간담회를 통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한국CIO포럼 등 각종 산하기구 활동 초청

대학-기업간 우수 인재 매칭 서비스 제공

ICT멘토링, 인턴쉽 등 우수 인재 채용 기회 제공

CES, MWC 등 주요 해외전시회 참관단 운영

국내외 주요 시상 프로그램 추천 및 수상 지원

회원가입 안내

· 연회비 : 기업 매출 및 자본금에 따라 차등 / · 문의 전화 : 02-2132-0721, 0722 / · 이메일 : fkii@fkii.org



모어이즈모어 **곽재경** 대표이사

“More is Morethings”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이템!

■ 모어이즈모어는 2015년 12월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이제 3년차 벤처기업으로 법인명 모어이즈모어와 함께 브랜드명으로 모어핑스(Morethings)를 사용하고 있다. 모어핑스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이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 곧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이슈가 생겼을 때 기술적 역량으로 신속하게 접근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회사라고. 이런 콘셉트라면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어핑스에 알아보라’는 얘기가 일상이 되지 않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모어이즈모어는 ‘워킹분석매트’로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이 제품은 사용자 보행 패턴을 분석하여 보행 습관을 자각하도록 도와준다. 자체 압력 센서를 기반으로 워킹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어이즈모어의 곽재경 대표를 용인 흥덕 IT밸리 본사에서 만났다. 사무실은 마치 한창 작업 중의 공방처럼, 연구소처럼 전자 부품들과 모듈들, 각종 관련 재료와 공구들이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직원들은 ‘프론트 앤 백’의 개념 없이 크로스 될 수 있게 개개인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획과 컨설팅까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특정 기술이 아니라 공통 기반 기술과 각자가 지닌 기술력으로 필요한 제품을 ‘똑딱똑딱’ 만들어내서 판매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Q :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IoT 자세교정 측정 솔루션 ‘모어매트’를 소개해주세요.

A : 먼저 저희는 플렉시블 타입의 ‘3D 포스 터치 센서(3D Force Touch Sensor)’ 제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센서 자체에 대한 R&D를 2년 정도 진행했고 원천 기술로 다양한 제품군 피봇팅을 시켰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은 전통 시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요가매트, 깔창, 방석, 스탠딩 데스크 매트 등 IoT기술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 다시 말해서 ‘레저시 제품’과의 융합을 통한 IoT 제품이에요. ‘모어매트(moreMat)’는 그 제품군 가운데 하나고 게이즈 랩(GAZE LAB)과 협업한 스탠딩 데스크 매트와 스마트 스피커 로봇이 킥 스타터에 곧 런칭될 예정입니다.

이 로봇에는 지로 봇(Girro BOT)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아마존 알렉사가 연결되어서 음성인식과 음악재생이 가능하고 LED 눈에 아홉 가지 이미지로 감정이 나타나죠. 어른과 어린이용 두 가지 버전인데 자세교정 매트에 앉으면 사용자의 자세를 로봇이 따라합니다. 다리를 꼬고 있으면 다리 꼬고 앉았다고 알려도 주고요. 매트와 로봇 제품은 따로 구매도 가능해요, 매트 기능은 모바일을 통해서 그대로 쓸 수 있죠.

저희는 모든 제품이 위치(Location)와 압력(Pressure)을 추출할 수 있어요. 소비자에게는 밸런스(Balance)와 얼라인먼트(Alignment)로 도출을 하고 UX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이익을 얻을 수

저희는 플렉시블 타입의 '3D 포스 터치 센서(3D Force Touch Sensor)' 제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센서 자체에 대한 R&D를 2년 정도 진행했고 원천 기술로 다양한 제품군 피봇팅을 시켰죠.



있게 제공합니다.

Q : 이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 성과라면 무엇이 있나요?

A : 저희가 사용자 워킹분석을 할 수 있는 인솔이 있어요. 이걸 글로벌 제약회사 바이엘에서 센서만 구매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해 와서 POC 테스트 중입니다. 또 다이치(DAICHI)라고 국내 카시트 MS 1위 업체인데, 유아 카시트에 체적과 호흡률을 쫓 수 있는 센서 임베딩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과 같이 신S/W 상품대상을 받은 보행측정 '워킹분석매트'가 있어요. 이 제품은 메디컬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이 웰니스와 메디컬로 나뉘는데 이걸 병원에 납품하려고 품목허가를 받고 있어요. 워킹분석매트는 Good Software 인증과 임상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임상완료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수면측정베드예요. 수면측정베드는 수면, 호흡, 심박 측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워킹분석매트는 작년에 국내 신발매장 30곳에 워킹분석솔루션 키오스크 형태로 납품됐고 사용 중입니다. 그 기능은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를 알 수 있고, 서 있을 때 발의 유형, 걸음걸이를 분석해서

보행습관을 알려줘요. 이 레퍼런스를 병원용으로 최적화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상은 국내 재활병원이에요. 전국 3000곳에 이르는 병원 가운데 재활병원은 1800곳입니다. 신S/W 선정대상 경력과 품목허가를 이용하면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이 되면 일정 수량 확보가 되니까 안정적이죠. 워킹분석매트의 경우 해외 제품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단가가 높는데 국산화 제품은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병원에 납품하려는 겁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하니까 가격이 2천만 원대로 내려가고 그만큼 병원이나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겠죠. 제품은 가격경쟁력, 성능 모든 부문에서 저희가 앞서있습니다. 해상도는 물론 프레임 레인, 분석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우위에 있어요.

Q : 박람회와 컨퍼런스에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국내외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A : 저희가 R&D하는 동안에는 외부에 소개한 적도, 소개된 적도 없었는데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계신 관계자 분들이 먼저 찾아오실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덕분에 제품군별로 업체와 매칭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저희 자체유통망 보유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로 붓 협업을 게이즈 랩과 함께 한 이유도 유통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25개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인천공항에도 입점해 있는 등 전자마켓에서는 가장 '핫'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Q : 그럼 매출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A : 당장은 기관 품목허가 여부에 달렸지만 매트 의 경우 처음에는 B2C로 소개해서 제품을 먼저 알리는 게 목표예요. 지로 붓은 B2B사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AI스피커가 음성 인식이 기능



의 전부라면 저희 제품은 자세 묘사에 관한 특화를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AI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매출 부문에서는 메디컬용 재활치료 품목을 기대 중입니다. 현실화 될 경우 국내 매출만 360억 정도 되거든요. 활용하면 10배 정도 더 커지고요. 기업 경영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그걸 기반으로 더 많은 레거시들과 협업 하려고 합니다.

Q : 세계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A : 워킹분석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국내 병원에 납품이 되면 완성도도 높아질 거고 다양한 이슈 사항을 거친 다음에 해외 거점지사를 확보하고 판매에 나서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노령화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 센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크죠. 마침 일

주일 전에 저희가 소프트뱅크 IoT 파트너로 등록이 됐어요. 관계자가 직접 와서 요청을 했고 등록이 된 상황이에요. 일단 일본 경험이 없으니까 소프트뱅크와 같이 진출하면 큰 도움이 되죠. 또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협업할 때도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검증을 원하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Q : 모어이즈모어의 창업 동기와 대표님의 이전 경력이 궁금합니다.

A : 저는 삼성전자 DMC연구소 헬스케어 랩 출신입니다. 수면 알고리즘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해왔는데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엔지니어로서 내가 만든 걸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해외 제품처럼 또 지속적인 발전이 있는 거고요. 고민을 좀 하다가 소비자를 만나자 결정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Q : 회사 설립 3년째인데 어느 정도 오신 거 같아요?

A : 지난 2년 동안은 저희도 외부에 보여줄 건 없었죠. 국내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O2O라든지 모바일 서비스 등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국내 제조업이 죽었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업체는 중국으로 가 있지만 국내에 여전히 많은 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인력이 없고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되는 건데, R&D과정이 길고 좀 고생스러운 측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대신 제조업 분야로 잘 됐을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크거든요. 일부는 중국에서 따라온다고 지레 포기를 하시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기술적인 게 비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껍데기만 만들던 사람들은 몰락하는 게 맞겠죠. 알고리즘이라든지 신호처리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진입장벽을 생성할 수 있어요. 저희 제품을 외부에 오픈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 게 기술 격차가 한 2년 정도 벌어져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따라오면 저희는 더 앞서 있을 거기 때문이죠. 6월 말에도 중국 MWC에 나가게 되는데, 작년 같으면 어리



Q: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지금 해야 한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Q: 앞으로 10년 후 모어이즈모어는 어떻게 성장해있을까요?

A: 국내 플렉시블 센서관련 1위 업체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2, 3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 중 하나는 저희일 것 같고, 이제 막 시작된 기술이라 리더는 아직 없어요. 꽃 피우는 단계라고 할까요.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가야지요(웃음).

석은 생각으로 기술 오픈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지금에서 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죠. 이제는 오히려 오픈을 해서 따라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Q: 벤처기업인으로서 사업 환경에 대한 개선점, 확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스마트 벤처 지원으로 창업을 했어요. 덕분에 잘 해왔던 것 같고, 안 좋은 점은 저희 같은 R&D 기업들은 3, 4년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데 대부분 단 년 지원이 많다는 거죠. 레벨을 구분해서 연차별 룰팀 지원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Q: ICT 종사자로서 사회와 경제계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급 바랍니다.

A: 저희는 ICT 인턴십이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의 혜택을 본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중소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멘토링 된 인재들이 다들 대기업만 가려고 해요. 왜 정부에서 교육시킨 인재를 대기업에서 다 데려가는 그런 구조가 됐는지 그게 좀 안타깝네요. 대기업들은 자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꿈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인데 그게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결국에 나와야 하는데 경력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른 중반 되고 뭔가 하고는 싶은데 가정이 있고 홀로서기는 더 어렵죠. 멘토링 하다보면 빛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 역시 현실에서는 다르지 않죠.

모어이즈모어의 직원은 모두 8명이다. 하드웨어 3명, 소프트웨어 4명이 근무 중이고, 나머지 1명은 주력 제품 특성상 필요한 보건의학 관련업무 담당 인력이다. 이들의 경쟁력은 '기술력을 갖춘 인재'다. 그들이 지난 2년 반 남짓한 시간동안 올린 성과를 생각해보면 벤처의 '어벤저스'라 불려도 무방할 것 같다.

곽재경 대표는 연구소에 있을 때보다 지금의 맨파워가 더 좋다고 했다. 그의 롤 모델은 스티브 잡스. "결심하면 바로 행동하는 결단력과 행동력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자신의 좌우명이라면서 웃었지만 스스로를 노력형 인재라고 여기는 만큼 중요한 지침이 된다.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랜디 포시(Randy Pausch)의 <마지막 강의(The Last Lecture)>에 나온 '첫 번째 펭귄'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곽재경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념을 가진 이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어이즈모어의 도전이 사용자들에게 미래의 즐거움으로 되돌아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정리/김정태 · 사진/이재훈



곽재경 대표이사 Profile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전산학과 석사
전남대학교 의공학과 박사

현) 모어이즈모어 대표이사
전) 삼성전자 DMC연구소

국내 유일무이한 최고의 CIO/CISO 프로그램 CIO 아카데미

Since 2000 FKII CIO Academy

교육일정

35기 2018년 8월 28일(화) ~ 11월 28일(수)

강의시간

주 1회 (수 / 18:30 ~ 21:30, 석식포함), 해외 Workshop 별도일정

교육장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강의실(서울 강남구 소재)

모집정원

현직 CIO/CISO 및 예비 CIO/CISO, IT관련 부서 임직원 30명

- 기업 및 공공기관 : 현직 및 예비 CIO/CISO, IT 관련 부서 임직원, 현업 부서 임직원
- ICT기업 : C-level, 영업 및 마케팅 등 관련 임직원

교육비(VAT포함)

비회원사		회원사	• 해외 워크샵 비용 포함 • 석식, 교재, 간담회, 수수료 등 포함 ※ 회원사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원, CIO포럼 정회원
1인	2인 이상		
440만원	별도문의	385만원	

입금계좌 : 850-910018-05604(KEB 하나은행 예금주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현장 카드 결제 가능 / 교육 참여 후 교육비 반환 불가

문의 및 연락처

교육담당자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서예슬 선임 **전화번호** | 02-2132-0733 **이메일** | sys@fkii.org

정종석 팀장 **전화번호** | 02-2132-0731 **이메일** | jongsuk2@fkii.org

그 '섬'에 가고 싶다

제주도 밖의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 · 가파도

섬 전체가 국가 천연기념물인 국토 최남단, 마라도
또 다른 제주 올레길, 가파도

섬 전체가 국가 천연기념물인 국토 최남단, 마라도

섬 전체가 국가 천연기념물인 마라도는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약 12km, 가파도에서 약 6km 떨어져 있다. 송악산에서는 약 10km 거리의 우리나라의 끝이면서 시작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마라도는 본래 무인도로서 마을 유래에 대한 문헌이나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전설에 의해 추리를 할 수밖에 없다. 마라도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200여 년 전인 1883년부터이며, 당시 대정읍에 거주하던 김씨 성을 지닌 사람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생활의 의욕을 잃자 김씨의 주변 친지들이 고을 원님에게 마라도의 개척을 건의, 제주목사 심현택이 인가하여 김씨가 최초로 입도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고 전한다. 광복 후 행정구역상 대정읍 가파리로 소속되어 오다가 1981년 마라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라도 해안은 오랜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절벽은 거친 파도를 받아 해식동굴이 발달해 있다. 이곳 주변지역은 모래사장이 전혀 없고 옛적에는 나무가 울창하였다 하나 농사를 짓기 위해 산림이 불태워져 사라지고 없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사시사철 몰아치는 해풍으로 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또한 물이 나지 않아서 빗물을 여과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마라도에는 섬 가장자리의 가파른 절벽과 해식동굴, 자연형상적인 장군바위, 대문바위와 마라도 등대 등이 손꼽히는 관광지이다.

최근에는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CF 이후 중식당뿐만 아니라 한식당, 횡집도 여럿 들어섰다. 가격은 모든 메뉴가 육지보다 1천 원 정도 비싸고 맛도 동네 식당 정도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KBS <1박2일> 등의 여행프로그램과 SBS 방송의 <백년손님> 등 예능프로에 제주 해녀 장모와 사위들이 고정 출연하고 있어 예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섬 일주에 사용되던 골프카트는 이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사라지고 극히 일부만 운행되고 있다.

마라도 안내

소재지 :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운진항 기점-마라도 11.8km, 가파도 5.3km)

크기 : 동서길이 500m, 남북길이 1.3km, 섬둘레 4.2km

면적 : 동서길이 0.3km² (약 10만평)

볼거리 : 대한민국 최남단비, 가파른 절벽과 해식동굴, 제주도 남서쪽 해안 전망으로 산방산, 형제섬, 한라산 등이 어우러진 풍경, 장군바위, 대문바위, 애기업개당 등 자연화산 생성물.

보호구역 : 전체 면적의 85%, 천연기념물 제 423호(지정일 2000년 7월)

기타시설물 : 초콜릿박물관, 태양광발전소, 등대, 기원정사, 마라분교 등

마라도 운항시간표

운진항 출발 시간	마라도에서 나오는 시간
09:50	11:45
11:10	13:05
12:30	14:25
13:30	15:55
15:20	17:05(사전 예약 필요)
16:30	왕복 불가





하동포구에서 돌아 나와 그림 골목을 지나면, 노란 담장에 파릇한 잔디 운동장.

돌하르방과 양중맞은 놀이터가 어우러진 가파초등학교가 눈길을 끌고,

학교 옆에 자리한 해수관세음보살상은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이채로운 느낌을 풍긴다.

이 보살상 앞으로는 가파도의 명물 보리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놓인 올레길 10-1코스, 가파도

제주도 본섬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 사이에 놓인 가파도는 마치 큼지막한 가오리 한 마리가 바다에 등등 떠 있는 듯 납작한 모양의 섬이다. 그 어떤 섬도 볼록한 산 하나쯤은 품고 있으면, 시야를 가리는 언덕 하나 없는 가파도는 바다 위의 들판이다. 가파도는 섬 자체가 올레길(10-1코스)이다.

해안 길과 마을 골목길을 요리조리 넘나들며 이어지는 가파도 올레길은 5km. 걸어서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오르막도 내리막도 없는 평평한 산책로는 그야말로 휴식의 길이니 여유를 만끽하며 걷기에 좋다. 올레길의 시작은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도로다.

해안 길엔 드문드문 정자도 놓여 있어 쉬어 가기에 그만이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돌담 길이 이어진다. 요리조리 이어지는 돌담은 높이가 허리쯤에서 어느새 어깨를 넘어 머리위로 훌쩍 높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슬그머니 낮아지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곳곳에 선인장도 수북하게 자라 있으며, 갈림길마다 울레리본이 펼쳐지는 돌담 안에 살포시 들어앉은

집에는 대문조차 없다.

나지막한 양철 지붕 너머 산방산이 보이고, 돌담 사이론 바다가 그림처럼 들어온다. 바닷길은 시원하고, 돌담길은 아기가 기하다.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서면 선사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군락지를 볼 수 있다. 섬 한복판 마을에는 숨씨 좋은 벽화가 줄줄이 이어져 있다.

하동포구에서 돌아 나와 그림 골목을 지나면, 노란 담장에 파릇한 잔디 운동장, 돌하르방과 양중맞은 놀이터가 어우러진 가파초등학교가 눈길을 끌고, 학교 옆에 자리한 해수관세음보살상은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이채로운 느낌을 풍긴다. 이 보살상 앞으로는 가파도의 명물 보리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가파도는 '바람의 섬'이라고 한다. 낮은 지붕의 집들 외에 바람을 막아 줄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에서 세상의 모든 바람을 온몸으로 맞다 보면 그 이유를 절로 알게 된다. 그저 어느 곳에서 서 있어도 가슴이 땡 뚫리는 섬이 바로 가파도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 섬 중 4번째로 크며, 섬 전체가 가오리처럼 뚝뚝 모양이어서 가파도라 부르며 개도 · 개파도 · 가



을파지도·더위섬·더푸섬 등으로도 불린다. 1842년에 국유목장으로 조성되면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최고봉은 약 20m로 구릉이 거의 없이 평탄하며 해안은 대부분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하고 비가 많은 해양성 기후이다. 겨울철에는 보리, 여름철에는 고구마를 주로 생산한다. 특히 고구마는 대부분 대정을 전분공장으로 반출되며, 수확성이 높아 가계소득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가구당 경지면적이 적어 농업보다는 어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다.

연안 일대에는 자리돔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밖에 갈치·소라·성게·오징어·전복·해삼·해조류 등이 철따라 잡힌다. 북쪽에 있는 하동(下洞) 포구는 약 30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조차가 비교적 크고 수심이 얕아서 큰 불편을 겪는다. 특히 주변해역은 파도가 심하여 외항선들의 표류와 파선이 빈번한 곳이기도 하다.

취락은 남쪽과 북쪽 해안에 집중해 있으며 자연촌락을 이룬다. 해안과 섬 중앙을 가로질러 도로가 나 있고, 운진항에서 출발하는 정기여객선이 운항된다.

가파도 안내

소재지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에서 남쪽으로 2.2km 해상)

크기 : 해안선길이 4.2km, 최고점 20.5m

면적 : 동서길이 0.9km²

볼거리

고인돌 : 선사시대 무덤 가파도 56기 확인

선돌 : 고인돌을 표시해주는 묘 표석

짚단집 : 풍어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음력 2월달에 주민 대표가 3박 4일 기거하며 제사를 지내는 곳

고망물 : 제주도 유인도 중 유독 샘물이 샘솟는 곳으로 담수화하기 전까지 주민 식수로 사용했던 곳

체험 : 체험어장 개방(가파리 마을 어장 일부)체험어장 수산물 채취
종류 : 소라, 보말, 거북손, 굴, 미역(채취한 수산물은 가파 어촌계에서 조리하여 줌)

낚시체험 :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뱀어돔, 자리, 돌돔 등 다양한 어류 낚시 체험(2008년 6월 ~ 연중)

가파도 운항시간표

운진항 출발 시간	가파도에서 나오는 시간
09:00	11:20
11:00	14:20
14:00	16:20
16:00	왕복 불가



사진/윤재기



‘늙지 않는 소년’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ICT 아이템의 보고’

〈레디 플레이어 원〉

현실만이 진짜(Reality is real)!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이 일상이 된 2045년. 혼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VR 게임인 오아시스(OASIS)뿐이다.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사람들은 고단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인 오아시스에 접속하며 하루를 보낸다. 빈민촌에 사는 18세 ‘게임덕후’ 웨이드 와츠(타이 웨리던)도 마찬가지다. 그의 하루 일과 역시 자신만의 공간에서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일로 시작된다.

그러던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제임스 도노반 할리데이(마크 라이런스)가 사망한다. 그는 자신이 가상현실 속에 숨겨둔 ‘이스터 에그’를 찾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모든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 그가 남긴 유일한 단서는 그가 사랑했던 1980년대 대중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제임스 할리데이를 선망했던 소년 웨이드 와츠는 그의 힌트를 좇아 미션을 풀기 시작한다. 웨이드의 아바타인 파시발이 첫 번째 수수께끼를 푸는 데 성공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실에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IO라는 거대 기업이 뛰어들어 그의 미션을 방해한다.

제임스 할리데이가 남긴 유언을 좇아 오아시스의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오아시스에서 파시발로 불리는 웨이드는 그곳에서 만난 아르테미스, H, 다이토, 쇼와 함께 팀을 이뤄 IO의 수장인 놀란 소렌토(벤 멘델슨)와 대결한다. 제임스 할리데이는 3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하고 우승한 아바타 파시발에게 가상현실게임인 오아시스를 완전히 폭파할 수 있는 빨간 버튼

의 위치부터 알려준다. 하지만 파시발은 오아시스를 그대로 유지하지도, 완전히 없애지도 않기로 선택한다. 그는 회사 지분을 친구들과 나누고, 공동 설립자인 오르젠 모로우(사이먼 페그)에게 컨설턴트를 맡기는 한편, 화요일과 목요일엔 오아시스를 단기로 결정한다.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속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찾는 최초의 가상현실 블록버스터라 할 수 있다. 세계 영화 역사를 이끈 신화적인 거장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신작으로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는 어드벤처 명작의 탄생을 예고한다. 〈레디 플레이어 원〉의 미션은 게임 속 아이템을 가지고 단계를 클리어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퍼즐을 풀기 위한 열쇠로 게임과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소설 등 전설적인 인기를 끈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바타로 가상세계를 접속하는 미래와 1980년대 대중문화를 접목시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어니스트 클라인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했으며, 직접 각본 작업에도 참여했다.

〈오버워치〉의 트레이서,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 〈툼 레이더〉의 라라 크로프트, 〈메탈 기어〉의 스네크, 〈코난 액자일〉의 코난 더 바바리안, 〈포스트 건담〉의 건담을 비롯해 조커와 할리 퀸, 킹콩과 처키, 〈매드맥스〉 〈백 투 더 퓨처〉 〈아키라〉 〈A특공대〉 등 열거만으로도 놀라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게임과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소설 등 대중문화 속 놀라운 아이콘들이 대거 등장한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에서 명연기를 선보이고,

〈마이 리틀 자이언트〉와 〈스파이 브릿지〉를 함께 작업하며 스피버그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마크 라이런스(마크 라이런스)와 사이먼 페그 등 연기파 배우들과 올리비아 쿡, 타이 웨리던, 벤 멘델스, T.J. 밀러 등이 출연한다.

〈어벤져스〉 〈엑스맨 : 최후의 전쟁〉 등의 자크 펠리 각본을 맡고 〈링컨〉의 아누즈 카민스키가 촬영을 맡았다. ‘최초의 가상현실 블록버스터’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18년 3월 28일 개봉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대만큼 큰 흥행을 하진 못했다.

영화 속 사운드 트랙 : 80~90 년대의 음악들을 적절하게 삽입했다. 음악감독은 앨런 실베스트리. 영화의 메인 테마곡은 앨런 실베스트리 본인이 이번 영화를 위해 작곡했지만 그 외의 추격전 음악이나 효과음이나 등장씬 음악은 대부분 백 투 더 퓨처 시리즈의 테마곡들을 활용했다. 80년대 느낌을 한껏 높이기 위해서인 듯, 그 외 카메오들의 등장 때마다 그에 맞는 각자의 테마곡이 흘러나오는 등 스피버그와 실베스트리의 센스가 돋보인다.

참고로 여기에 나온 80년대 곡들은 미국인들이 들으면 “아, 그 음악이구나!” 할 만한 히트곡으로 꾸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Van Halen의 히트곡 ‘Jump’ 와 Bee Gee’s의 ‘Stayin’ Alive’,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그리고 블론디의 ‘One Way or Another’ 등등이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소년 영웅 영화에는 공식이 있다. 평범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용기와 기지를 발휘한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주인공 웨이드 와츠도 마찬가지이다. 제임스 할리데이

의 미션을 치르며 성장하는 과정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치기 어린 유년기를 떠올리게 한다. 평범했던 일상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바뀌고 그 안에서 비범해진 웨이드는 음모에 맞서 나가며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스티븐 스피버그는 1946년생이다. 만 72세다. 할아버지가 할리우드의 최전선에서 오락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스피버그는 이번에 두 편의 영화를 동시에 내놓았다. 〈더 포스트〉라는 사실에 입각한 리얼리즘 영화와 게임과 오락의 세계를 버무린 SF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다.

〈선들러 리스트〉, 〈컬러 퍼플〉, 〈터미널〉, 〈원맨〉, 〈스파이 브릿지〉의 스피버그이지만 역시 그의 영화 세계의 본령은 오락 영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조스〉, 〈미지와 조우〉,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E.T.〉, 〈쥬라기 공원〉에 환호하며 자란 세대에겐 〈레디 플레이어 원〉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영화인 것이다.

이 ‘늙지 않는 소년’이 보여준 가상현실 오아시스라는 공간 속 2045년의 사람들 모습은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일지도 모른다.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는 말한다.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도피할 수 있는 가상세계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웨이드 와츠(타이 웨리던)처럼 필사적으로 도망치기만을 원했던 현실세계의 삶에 정면으로 맞서야만 한다. 현실만이 진짜(Reality is real)인 것이다. 그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ICT 아이템을 아니겠는가.



한-일 정보보안 전문가 간담회 FKI(한국정보산업연합회)-JISA(일본정보서비스산업협회)간 정보보안 현안 공유 및 협력 파트너십 구축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일본 카운터 파트너인 일본정보서비스산업협회(JISA) 산하 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10명이 지난 6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정보보안 대응현황에 대해 학습하고, 한국 기업 및 기관 인사들과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Amiya Corporation의 Masamichi Shibasaki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문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통신인터넷기술, SW마에스트로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정보보안 관련 정책에 대하여 듣고, 보안 관제 시설 및 인력양성 시설을 견학하였다.

아울러 6월 27일(수)에는 한국 정보보안 전문가 및 기업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침해 대응 현황과 지역 및 글로벌 사이버 침해 공동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고, 일본 측은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의 사이버 보안 체계 준비 사항을 발표하였다.

정리/김정태



부탄 ASOCIO 정례회의 참석 부탄 국제 IT 세미나 및 ASOCIO 집행 이사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아시아 대양주 24개국 IT협회들로 구성된 ASOCIO(아시아대양주정보산업기구)의 한국 측 대표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 6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부탄 팀부에서 개최된 ASOCIO 정례회의 및 제3회 부탄 국제 IT & Training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ASOCIO와 부탄 IT협회인 BICTTA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의 첫째 날에는 부탄 정보통신부 Lyonpo D. N. Dhungyel 장관, ASOCIO David Wong 회장, 부탄은행 Perma Nadik 은행장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탄의 디지털 경제와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기술 스타트업 육성 방안, 개도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술 소개 등의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마크애니 최종욱 대표가 참석,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튿날에는 ASOCIO 집행 이사회가 열려 사업 및 활동을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ASOCIO에서는 'Cross Border Talent Development, Aquisition and Collaborations' 주제의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결과는 올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ASOCIO Digital Summit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총 12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의 주요 ICT분야 인력 범주와 인력 수급 현황, 수급 차 해소를 위한 국가별 프로그램, 국가 간 인력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력 방안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부탄 정보통신부를 방문, Jigme Thinley Namgyel IT & Telecom 담당 국장을 면담하고 ICT 파크를 견학하였다.

정리/손정배





한국CIO포럼 4월 조찬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CIO 역할과 비즈니스 혁신”

지난 4월 25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조찬회를 개최했다.

IBM 정성욱 전무 Evolving CIO – more than IT의 주제로 CIO의 역할을 *4로 소개하며 “디지털 전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모르면 안 되니 신기술을 잘 이해하는 CIO가 나서서 해야 한다”며 “CIO가 사업 전략을 알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면서 AI, 블록체인 등 필요한 신기술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일에 투자하라”면서 “투자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CIO와 HR부서가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CIO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문화, 비즈니스 부분까지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Initiating)하고, 기술과 사람에 투자하고(Investing), 기술을 통합하고(Integrating), 애자일 프랙티스를 IT뿐만 아니라 전사 조직에 시행하는 것(Implementing)을 말한다.

이어서 IBM 이승훈 상무가 ‘도입 사례로 보는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요건에 따른 IT인프라의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이 상무는 IBM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이 화두가 된 이유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기업 내의 비즈니스 챌린지가 엮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이론적인 학문적 영역에 막혀 있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난제가 해결되면서 성숙한 기술로 발전해 기업에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단계는 크게 broad AI, narrow AI, 제너럴(general) AI로 소개했다. 제너럴 AI 단계는 길 건너는 시스템부터

교통까지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통일돼 사회 전체가 AI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현재는 broad AI에서 시작해, 단위 업무별로 정해진 업무만을 반복 수행하는 narrow AI 단계를 지나고 있다”며 “2050년 정도가 되면 제너럴 AI 단계로 진입해 혁신적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더엔케이의원 정양수 원장을 초청해 ‘면역과 건강’에 대한 주제로 오프닝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회원 네트워킹을 위한 CIO사랑방 및 여성IT임원(모임장: 한양대 송정희 특훈교수) 모임을 진행하였다.

정리/신효선



한국CIO포럼 5월 조찬회 “디지털 트윈과 IoT 분석의 미래”

지난 5월 16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조찬회를 개최했다.

스티븐 브롭스트(Stephen Brobst) CTO는 “커넥티드 스마트 디바이스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것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IoT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변환의 다음 단계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트윈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파악하기 위해 이론과 공식을 적용해 현실 세계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다.”며 이를 분석하여 재해석하고 평가하여 다음 단계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예측과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트윈은 분석을 수행하고 보다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제공한다”면서 “디지털 트윈은 이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고급 SW기능과 고급 분석 다음 단계로서 연구 개발과 조사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빅 데이터의 세 번째 물결이 센서와 만물인터넷(IoE)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가상이 아닌 진정한 현실이 되고 있다”며 “향후 5년 내, IoT 플랫폼의 85%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트윈은 전통적인 제조 분야 고객들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 제안이 달라지고, 가격 모델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제조, 프로세스 설계에서 더 많은 가치를 이끌어낼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석에 대한 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한양대 이희수 교수를 초청해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에 대한 주제로 오프닝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회원 네트워킹을 위한 CIO사랑방 및 여성IT임원(모임장: 한양대 송정희 특훈교수) 모임을 진행하였다.

정리/신효선





한국CIO포럼 6월 조찬회 “This Is How The Future Works”

지난 6월 1일(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시트릭스 Stanimira Koleva 수석부사장은 미래의 디지털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였다. 한국을 '디지털 호랑이(Digital Tiger)'로 언급하며 특히, 서울은 정부와 재벌이 국가의 혁신과 경제 강국 위치를 선도하는 '미래의 도시(City of the Future)'라고 언급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현지 환경의 강점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이 낮음으로 인해 세계를 주도하는 인프라가 오히려 디지털 전환 및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억제제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Stanimira Koleva SVP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바이스 및 데이터의 확산과 직원의 업무 방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로 IT 인프라 및 환경에 복잡한 요소가 많이 증가되어 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비용 증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하여 디지털 작업 공간에 대하여 앱과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로도 안전하고 손쉽게 액세스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워크스페이스(Smart Workspace) 전략을 제시했다. 시트릭스는 기업들이 IT환경의 엄격한 보안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조직 및 사용자 모두가 간편하고 유연하며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제로 기업들이 시트릭스의 네트워킹 및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메인 주제 강연 외에도 스펜지교육연구

소 성원숙 대표의 '유머, 마음의 행복을 부른다' 특강과 회원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미팅의 자리로 'CIO 사랑방'이 운영되었다.

정리/신효선



근로법 개정에 따른 IT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주 52시간 근무’가 IT 업계에 미칠 영향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 4월 19일(목) 삼성동 메디톡스 빌딩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법 개정에 따른 IT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황지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IT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휴일근로 포함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범위만 개선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장근로 감소로 실질임금 하락 시 임금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 비용 문제와 효율성 유지 및 시스템 투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IT기업들은 사전에 약정 휴일 등의 축소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인력 투입과 시스템 투자의 적정 비율을 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 여부와 보전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임금과 여가 사이의 근로자 선호 분석, 효율성 향상 감내 수준을 사전에 분석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적용에 대비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역할과 고려사항 7가지도 짚었다. ▲근로시간 단축운영에 따른 현업의 애로 및 그 원인을 파악할 것 ▲행정감독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을 임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해석해 제도 안에서 관리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 ▲실무차원에서 업무시간과 공간 유연성을 확보(스마트워크 등)하고 회의방식이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업무 효율 향상방안 찾을 것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준수 중요성을 공유할 것 ▲실제 근로시간 단축운영 후 임금보전 문제는 노사간 합의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 ▲일자리 나누기가 정책적 요구라는 점을 인식할 것 등 조언이 제시됐다. 끝으로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없는지, 회의가 너무 많지 않은지 등 현장의 도움을 구하고 목소리를 들으라”고 조언했다.

정리/김정태





2018 SW마에스트로 제9기 발대식 “세상을 이끌어 가는 SW마에스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석제범),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상헌)가 주관하는 2018년 「SW마에스트로」제9기 발대식이 지난 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SW마에스트로」과정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재의 기술역량을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국내·외 취업 및 창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여 최고급 인재로 육성하는 과정으로 많은 젊은 대학생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제9기 연수생 모집 공고를 통해 고교·대학(원)생 등 441명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선발평가(서류평가, 코딩 테스트 등)에 통과한 150명의 예비연수생을 대상으로 2차 선발평가(프로젝트 기획 평가, 기술평가 등) 과정을 거쳐 최종 100명이 선발되었다.

정리/백송이



2018 임베디드SW 컨퍼런스 웨어러블 · 스마트카 · 제조융합 산업에서의 임베디드SW 기술 개발 동향

임베디드SW · System산업협회는 웨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8 임베디드SW 컨퍼런스를 5월 30일(수) 개최했다.

임베디드SW는 웨어러블, 스마트카, 서비스와 융합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진행됐던 컨퍼런스에서는 크게 3개 주제(웨어러블, 스마트카, 융합서비스)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웨어러블 분야에서 KIST 김영준 박사가 VR/AR 기술의 의료분야 응용 현황 및 동향 등을 소개하고 UNIST 박장웅 교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스마트카 분야는 ETRI 한태만 책임이 스마트카 국제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프로센스 강병준 박사는 자율주행차용 센서융합 기술

소개 및 센서융합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 사례를 소개했다. 융합서비스 분야에서는 로젠솔루션 김운식 부장이 IoT 및 Cloud 서버 기반의 스마트 O&M 솔루션 기술을 소개했고, 애니파이브 오지영 수석은 IP-R&D Solution과 Service를 소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임베디드SW 관련 기업, 연구기관,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임베디드SW · System산업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업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세미나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리/김성배





2018년 한이음 ICT멘토링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13일(화) ~ 23일(금), 이화여자대학교 등 전국주요대학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 3월 13일(화)부터 23일(금)까지 전국주요대학 ICT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이음 ICT멘토링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총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한이음 사업 홍보 및 제도 안내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질의응답 참여 등 학생들의 관심도도 높았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방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강원, 대전, 경북, 전북 등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CRM·BI협의회 3월 정례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018년 03월 26일(월), 비포럼

본회 CRM·BI협의회는 지난 3월 26일(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Business Intelligence"에 대한 주제로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이매트릭스 배영근 대표가 연사로 나와 빅 데이터 기반의 AI(인공지능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최신 BI트렌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하였다.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1차)

■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28일(수), 선릉 디캠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년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1차) 행사가 3월 28일(수) 선릉 디캠프에서 개최되었다. IT트렌드 강연, 정부 지원사업 소개, 재도전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ICT 분야 재도전 및 창업 활성화와 실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제고,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을 장을 마련하였다.



제16회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 정기총회

■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29일(목), 웨라톤 서울팔래스호텔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는 지난 3월 29일(목) 제16회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제9대 회장으로 한컴MDS 장명섭 대표가 취임하였다. KESSA 9대 회장으로 선임된 장명섭 신임 회장은 "4차 산업 대응을 위한 산업 전 분야의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미래 산업 기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임베디드SW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CIO아카데미 제 34기 해외워크샵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29일(목) ~ 31일(토), 베트남 하노이

CIO 및 CISO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인 CIO아카데미 제34기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9일(목)부터 2박 3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총 14명이 참가한 이번 34기 워크샵에서는 나이스그룹 이호석 상무의 초청으로 하노이 사무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고 수강생 네트워킹 및 베트남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CIO포럼 와인파티

■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SPC스퀘어 비스트로바 라그릴리아

CIO포럼은 지난 4월 12일(목) SPC스퀘어 라그릴리아 강남점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네트워킹 행사인 'CIO 와인파티'를 개최하였다. 이번 와인파티는 에즈웰플러스 박희선 부회장이 모임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와인 시음과 회원 자기소개 시간 등 캐주얼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개방형 커뮤니티 스터디 모임

■ 일시 및 장소
2018.04.12(목) ~ 05.17(목), 토즈 강남컨퍼런스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는 임베디드 인공지능이 가져올 차세대 변화에 대응하고자 KETP, 모두의 연구소 R4RWS와 협력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임베디드 개발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커뮤니티 스터디 모임'을 개최하였다. 임베디드 인공지능(강화학습)을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퓨스트테크 박철 대표의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즐거움과 연구자와 개발자들 상호간의 교류를 장려하였고, 인공지능 기술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제16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조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8년 04월 18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는 지난 4월 18일(수) 제16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조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임베디드SW경진대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관련 융합 모델 발굴, 인재 육성, 임베디드SW 저변확대 등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조직위원회에서는 제15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결과를 보고하고 제16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운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근로법 개정에 따른 IT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19일(목), 삼성역 메디톡스빌딩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근로법 개정에 따른 IT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지호 노무사님을 모시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개정법에 대해 IT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을 마련했다. 100여명의 회원사들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018 회원사 초청 골프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21일(토), 안성 마에스트로 C.C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임원사 및 주요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골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합회 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산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무국은 회원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재도전 창업보육센터 입주사 집중캠프

■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26일(목),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운영하는 '재도전 창업보육센터(B)' 입주사 집중캠프가 4/26(목) 상암동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입주사 창업역량강화 및 신규·기존 입주기업 임·직원간의 상견례와 기업소개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피치 전문가와 VC가 피칭 전략을 소개하고 입주사들이 각자의 사업아이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6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대회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18년 04월 28일(토), 인지어스 커리어센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의 대회 설명회가 서울 역삼동에서 개최되었다. 학생, 일반인, 교사, 학부모 등 임베디드SW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설명, 각 부문별 설명, 부문별 Q&A 등이 진행되었다.



신SW상품대상 2018년 4월상 시상식 주관

■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30일(월), 과천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4월 K-ICT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시상식이 4월 30일(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수상자인 조창희 대표(자이솜)과 류규준 이사(자이솜), 김남교 대표(엔디에스솔루션), 김영진 대리(엔디에스솔루션)가 김용수 차관으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4월 K-ICT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수상작 - 일반SW 부문 : (주)자이솜 'X-SCADA' - 멀티미디어&서비스SW부문 : 엔디에스솔루션(주)'Q-Wayfinder 3.0'



IT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수·위탁 거래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16일(수), 강남역 녹명빌딩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중소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IT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수·위탁 거래 교육을 개최했다. 송재호 변호사님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방안, 상생법 및 하도급법 상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실제 일어난 케이스 위주의 교육을 통해 회원사들로부터 좋은 평을 얻었다.



CRM·비협의회 5월 정례세미나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5일(금), 더모임

본회 CRM·비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금) "GDPR대응을 위한 고객 정보 보안 전략"에 대한 주제로 정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GDPR 발효일인 5월 25일(금)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바넷정보기술 한병창 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와 GDPR에 대해 설명하며 핵심요소별 대응필요성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한국CIO포럼 영화모임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9일(화), 코엑스 메가박스

본회 CIO포럼은 회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극장 개봉작인 '독전'을 관람하였다. 회원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영화 관람은 이광성 수석부회장(두산 상임고문)을 모임장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영화상영 후 티타임을 진행하며 영화후기에 대해 공유하였다.



2018 임베디드SW컨퍼런스

■ 일시 및 장소
2018.05.30.(수), 웨라톤 서울 플라호텔

임베디드SW·System산업협회에서 지난 5월 30일(수) 웨라톤 서울 플라호텔에서 '웨어러블·스마트카·융합서비스 산업에서의 임베디드SW기술 개발 동향'을 주제로 임베디드SW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웨어러블, 스마트카, 융합서비스에서의 각각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산업의 최근 현황 및 동향 그리고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2018 SW마에스트로 100+ 컨퍼런스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30일(수), 양재 엘타워

SW마에스트로 100+ 컨퍼런스가 지난 5월 30일(수) 양재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진행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SW마에스트로 연수생 멘토 뿐 아니라 SW분야 연구자, 학생, 일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최고급 SW인재양성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의 "젊은 소프트웨어 인재가 미래다"는 제목의 '기조강연', 8기 SW마에스트로 10명에 대한 '인증식', 가수 료생의 '데모데이' 그리고 LG CNS, 기아자동차, 바비퍼블리카(토스)가 참석한 '취업상담' 등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되었다.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2차)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30일(수), SW마에스트로연수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년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2차) 행사가 5월 30일(수) 선릉 SW마에스트로연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성실 실패를 위한 강연, 정부 지원사업 소개, 퍼실리테이터 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ICT 분야 재도전 및 창업 활성화와 실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제고,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을 장을 마련하였다.



회원 및 IT산업계 유관인사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8년 6월 16일(토), 렉스필드 CC

지난 6월 16일(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원사 및 IT산업계 유관인사들의 교류 협력을 위한 골프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상반기 간담회에는 총 24명이 참석, IT업계 인사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하반기 간담회는 오는 10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SW시상제도 신SW상품대상 (KOREA SOFTWARE AWARDS)



1994년 국내 최초 SW관련 시상제도로 제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는 본 시상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SW제품을 선정·시상함으로써 SW기업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홍보 및 품질개선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전개, 국내 SW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상 내역

구분	상격	비고
연말상 (대한민국SW대상)	대통령상(1개) / 국무총리상(2개)	월별 장관상 제품에 한하여 심사 진행
월별상	장관상(12개/12명) (일반SW / 멀티미디어&서비스SW / 임베디드SW)	제품 및 핵심개발자 장관상 수여

지원 내역

지원 내역	내용	비고
언론 홍보	(지원제품)전자신문 주간 신SW 추천작 코너 게재 (수상제품)전자신문 시상식 기사 및 수상제품 안내 게재	
기타	각종 전시회, 설명회 참가 지원 수상기업 CEO 커뮤니티(SW미래포럼) 활동 자격 부여	수상작에 한함

* 기인증 제품의 경우, 1차 서류심사 가점으로 지원금을 대체함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청/접수	언론홍보	1차심사	2차심사	인증절차	시상식	연말상
이메일 접수 news.waward@fkii.org	전자신문 신SW추천작 코너	서류심사	발표/데모 심사	GS인증 (1등급)	제품+개발자 장관상 수여	대한민국 SW대상 -상품상 부문-
D-6월 ~ D-3월	접수순	D-3월 (홀수月初)	D-3월 (홀수月말)	D-2월 ~D-10d	D-day (짝수月말)	10월 : 심사 12월 초 : 시상

신청방법

FKII홈페이지 내 신SW(신청절차)신SW상품대상 신청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news.waward@fkii.org 로 송부)

〈Journal of ICT Leaders〉

대한민국 IT산업의 '아미'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박우건(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중학교 진학을 떠났을 때 간간이 찾아오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하숙집 형들이 FM라디오를 통해 들던 외국의 팝 뮤직이었습니다. 들려오는 음악은 연주시간이 9분 여에 달하는 킹 크림슨의 '묘비명' 같이 장중한 음악도 있었고, 비틀즈의 '앤솔로지' 같이 매력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안되어 우리 모두의 귀에 익숙한 CCR의 '자랑스러운 메리'나 '목화밭', 다니엘 분의 악-악-악-악을 쓰던 '아름다운 일요일'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라디오 DJ는 빌보드 차트의 순위를 말하며 세계 음악시장의 판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귀를 쫓긋 세우고 들어보아도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무슨 록 그룹이 어디까지 올랐더라 하는 '의외의 소식'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걸그룹 '원더걸스'가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올랐다는 소식이 이어 '싸이'의 고군분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대하던 대망의 1위 소식은 몇 주 동안 '강남스타일'이 2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룸도 희한하여 언뜻 전체주의 혹은 군국주의 아닌 가 의심이 들게 한 '방탄소년단', 영어로 'BTS'가 발매 1주 만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

니다. 그것도 그들에게는 낯선 외국인인 우리말로 말이죠. 사실 이들은 1위 소식 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며 전조를 띄운바 있기는 합니다.

2013년 데뷔한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기적 같은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층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해 166만 장이 판매된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 앨범에 대한 분석이 더해져 인문학·철학·마케팅적 논의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석을 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BTSDNA'입니다.

'B'는 Beyond의 약자로 탈 경계를 지향하는 콘텐츠의 힘을 말합니다.

'T'는 Transmedia로 음악을 중심으로 영상·캐릭터·캠페인·게임 등등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드는 것을 말합니다.

'S'는 Storytelling입니다. 이들의 프로듀서 방시혁이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어슐러 르권의 단편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등등 영상에 차용된 문학 작품은 여러 편으로 미술의 콜라주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D'는 Direct로 팬들과의 직접 소통을 의미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팔로어 1천만 명을 돌파한 트위터 계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N'은 Network입니다.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트



위터와 달리 기획사가 관리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1282만, 1070만 명 수준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언어장벽을 허물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Army, 즉 '군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의 성공에 아미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함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것을 축전으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조직력과 전술을 갖춘 군대처럼 행동하는' 글로벌 팬덤인 아미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굶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깔아주는 핵심 조력자인 것입니다.

한국의 아미는 해외 아미에게 한국식 팬 문화를 민들레 흩씨처럼 퍼트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앨범과 음원을 사는 것은 물론 밤새 스트리밍하면서 각종 차트의 순위를 높이고 시상식마다에 강력한 투표 화력을 퍼부어대지요. 이를 두고 '조직의 싸움'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스타의 성장이 곧 내 성장이라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후원자 팬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호로 〈Journal of ICT Leaders〉는 여섯 번째를 맞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IT계의 주목할 만한 인물 열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고영진 의원님을 위시해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이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바꾸고 정부 내에 변화와 개

혁을 이끌고 있는 김명희 원장님, 그리고 모든 기업이 선호하는 학생들의 대학으로 바꾸어놓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총장님, 세계 굴지의 기업인 한국IBM의 장화진 사장님,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이사님, 10년 CEO를 바라보는 한국HPE 함기호 사장님을 찾아 업계의 현황과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선결과제, 학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KT의 CIO로서 보안업무에 신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신수정 부사장님과 한양대학교 송정희 특훈교수님도 만났습니다.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이사님, 숙명여자대학교 윤용익 교수님이 전하는 말씀 또한 금과옥조로 가슴에 새길만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피' 엔디에스솔루션 김남교 대표이사님, 모어이즈모어 박재경 대표이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IT산업계의 밝은 내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한정된 지면 관계상 훌륭하신 분들을 더 모시지 못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래도 다음 호를 기약하며 저희 〈Journal of ICT Leaders〉가 방탄소년단의 '아미'처럼 대한민국 ICT 발전을 기적처럼 이룰 'BTSDNA'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부천 전시장/서비스센터

강북 전시장/서비스센터

영등포 전시장

특별함을 즐기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KCC오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KCC오토는 차량구입부터 AS까지 One-Stop 고품격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KCC오토 전시장, 서비스센터,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 방문하시어 최고의 혜택과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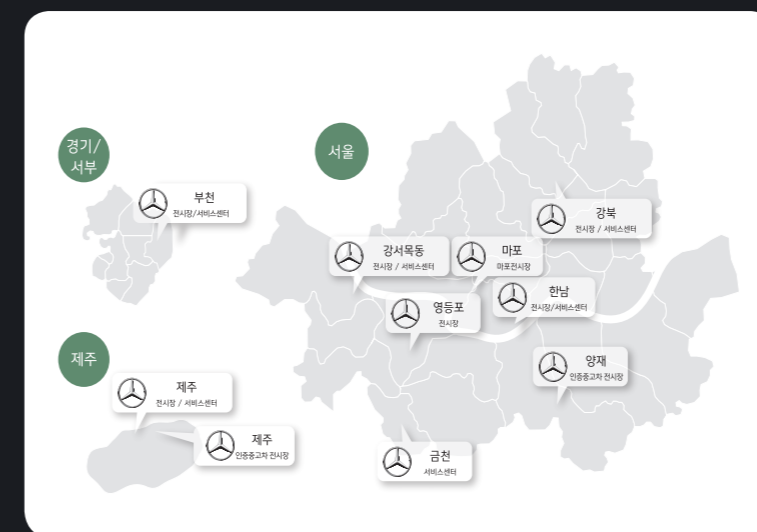
강서목동 전시장/서비스센터



제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금천 서비스센터



한남 전시장/서비스센터



마포 전시장



제주 전시장/서비스센터



Mercedes-Benz

KCC오토

전시장
 강서목동 (02)6355-0000
 강북 (02)6678-7500
 영등포 (02)6123-1400
 부천 (032)713-4500
 제주 (064)800-9800
 한남 (02)6328-7700
 마포 (02)6010-9000
 대표 문의 전화 (02)6355-001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65 (영창동 260-4)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3 (미아동 20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13 (신길동 426-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43 (춘의동 77-1)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101(오라3동 279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49 (한남동 739-1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88 (공덕동 105-99)
 홈페이지 www.kccauto.co.kr

서비스센터
 강서목동 (02)6355-0100
 강북 (02)6678-7575
 금천 (02)807-2400
 부천 (032)713-4533
 제주 (064)800-9898
 한남 (02)6328-7500
 양재전시장 (02)6090-7388
 제주전시장 (064)805-801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3-23 (영창동 261-7)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3 (미아동 203-2)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69 (시흥동 987-9)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43 (춘의동 77-1)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101(오라3동 279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49 (한남동 739-16)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 201호
 제주도 제주시 일주동로 407(삼양 2동 1550-3)



상상을 현실로! ICT 혁신을 통한 편리한 세상!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전문기업

KCC정보통신은 한발 앞선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창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정보사회의 리더 - KCC정보통신은 IT전문가 집단입니다.